月刊

미사일

1962年 2月 25日 印刷
1962年 2月 28日 發行

1962

3

三一精神과 民族의 進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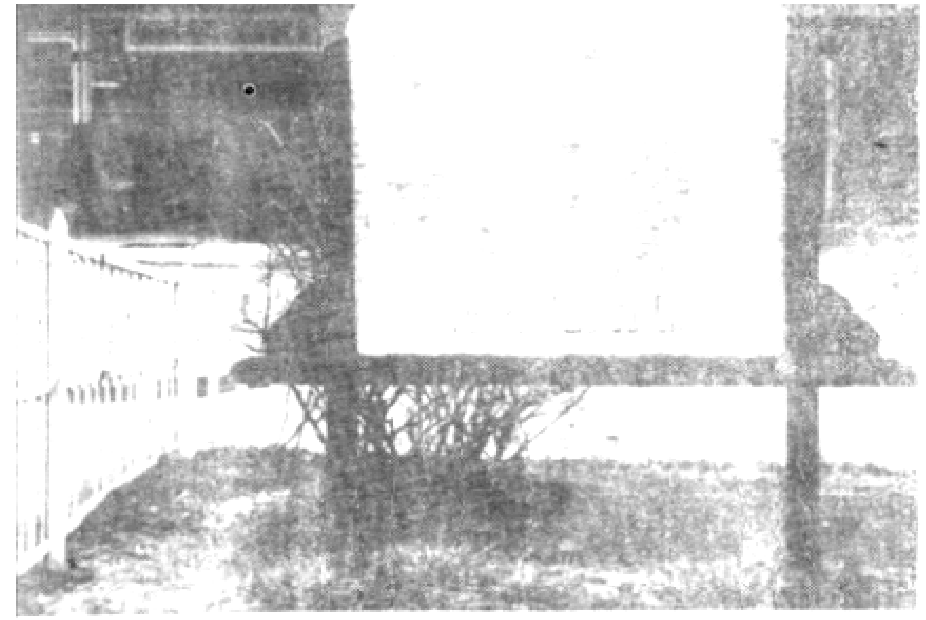
特輯 만네리즘을 葬送한다

生活의 科學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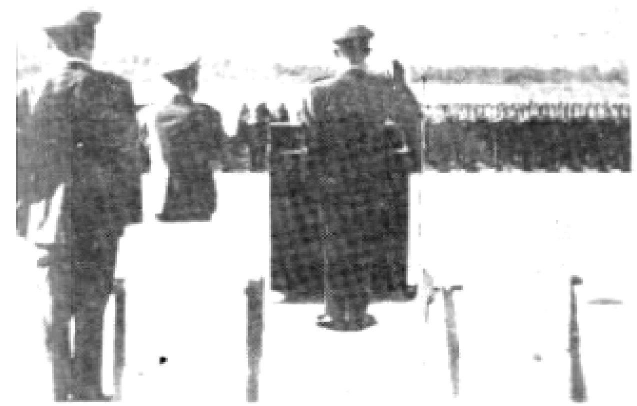
화보

보라매의 요람

신병 100기를 맞은 항공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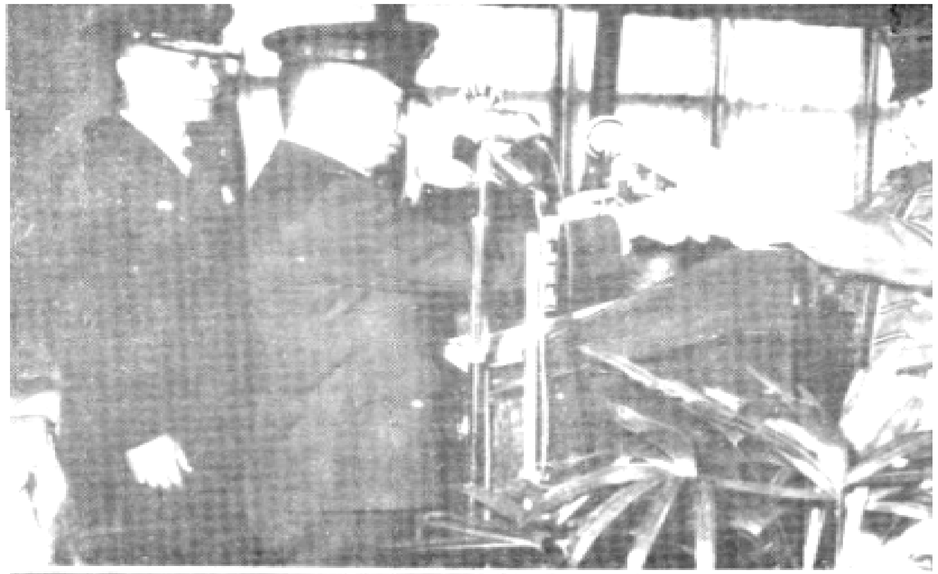
항공병학교 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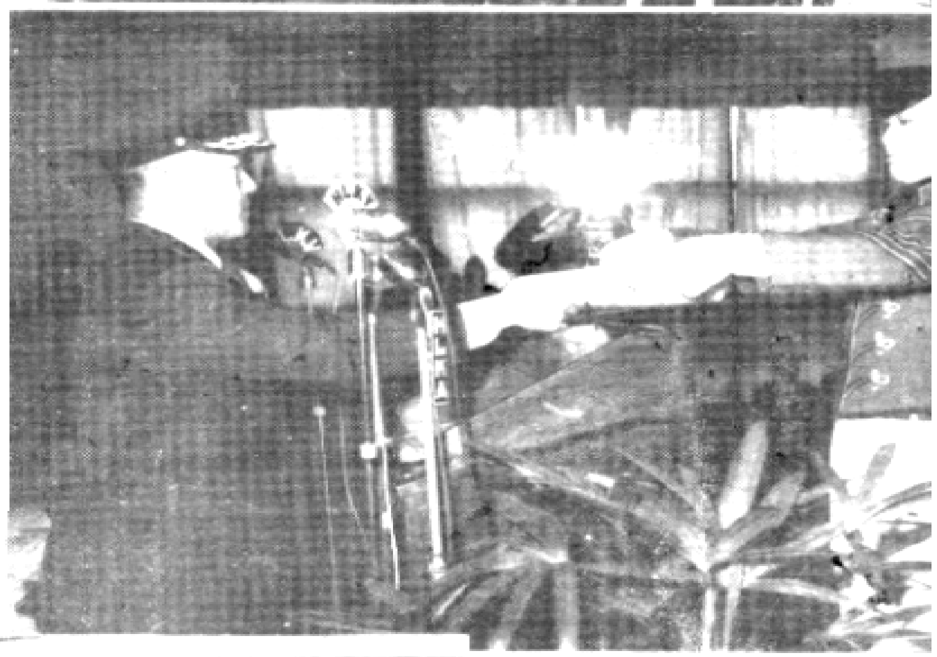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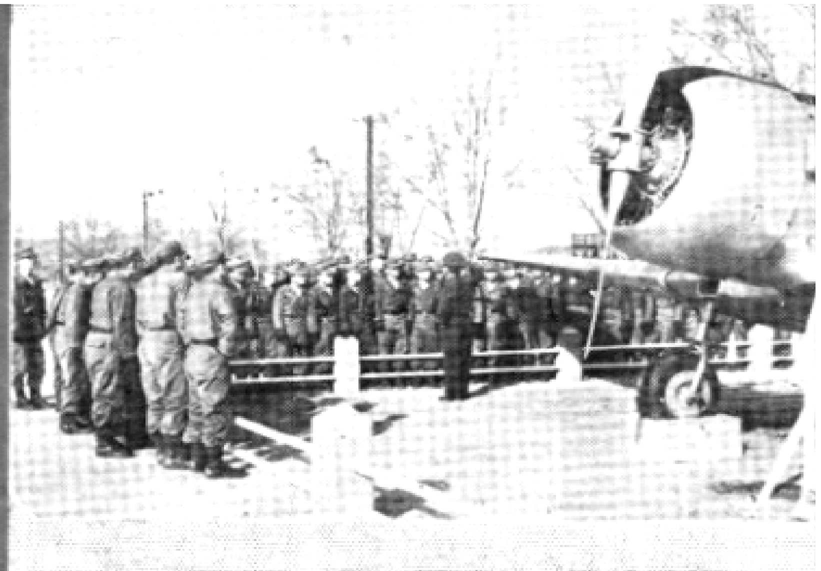
입교선서식. 이때부터 정식으로 군인이 된다.

입교 첫날. 군복으로 갈아입기 직전

지난 2월 23일 공군사관학교 제10기생 졸업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사진은 동 식전(式典)에서 우등상장을 수여하는 박정희(朴正熙)의장(上)과 김신(金信) 참모총장(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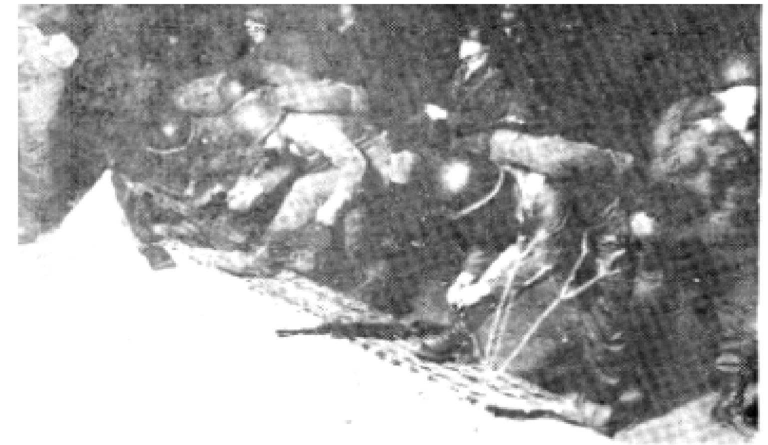




T16 앞에서 <항공상식>과목을 수강하는
후보생들

실전을 방불케 하는 CBR교육 실습

스포츠를 통해서 끊임없이 심신을 단련한다.



특수훈련에 나서는 야간비상

필승의 신념에 넘치는
출동 1분전의 모습들

전투훈련중의
도하(渡河)작전

종합훈련에서 고지점령을
기도하는 분대공격

튼튼한 체력을 기르는 체련시간↗

↓즐거운 가족과의 면회시간

→수진(受診)중인 기술병. 의무전대에서는 항상 피교육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위문단의 래교(來校)공연도 고된 훈련의 필요를 풀어주고

한 주일의 학과가 끝나면 즐거운 외출이 온다.

미사일
제11호
1962

주요목차

3·1정신과 민족의 진로 · 유진오(兪鎭午) (2)

특집 · 생활의 과학화

분업과 책임관념 · 최태호(崔台鎬) (14)
통계와 우리생활 · 육지수(陸芝修) (16)
연구하는 태도부터 · 강신표(姜信杓) (17)

<좌담회> 1기에서 100기까지 · (20)

특집 · 매너리즘을 장송(葬送)한다

1. 시간관념 · 정비석(鄭飛石)
2. 파벌의식 · 전혜린
3. 허례허식 · 오혜영
4. 관존민비 · 윤석중(尹石重)
5. 탁상공론 · 조풍연(趙豊衍) (7)
6. 우유부단 · 민철웅(閔哲雄)

매스컴의 윤리과제 · 김기점(金基漸) (79)

그 후의 생활(예비역 장병을 찾아서) · 편집계 (62)
범죄예방의 길을 찾아서 · 김동훈(金東勳) (70)

미사일 교실
민주주의 세미나 · 공산주의 세미나
새 군법의 해설 · TV의 원리와 현황 · (52)

평화순찰중인 우주 카메라 · 이학재 역 (64)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 한기옥 역 (67)
소련의 간첩망 · 김영주 (72)
★장병 페이지 · 10전비단 편 (82)

<투고> 공군의 관문 · L 기자 (42)

김유신장군의 위훈 · 이현희(이炫熙) (45)
내가 만난 잊을 수 없는 군인 · 손소희(孫素熙) (31)
소설 · 우연(愚緣) · 오상원(吳尙源) (91)

★공군의 요람 · (화보)
★편집후기 · (94)

표지 · 민철홍

발행처 · 공군본부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 공군대령 주정호
인쇄처 · 공군교재창
인쇄인 · 공군대령 김석환

3 · 1 정신(精神)과 민족(民族)의 진로(進路)

3 · 1 정신(精神)은 한 민족이 자기(自己)의 운명(運命)을 자기(自己) 스스로 결정(決定)하겠다는 숭고(崇古)한 정신(精神)이요, 4 · 19 학생의거(學生義擧)와 5 · 16 군사혁명(軍事革命)은 우리민족이 역사상(歷史上) 처음으로 민주체제(民主體制)의 건설(建設)을 위하여 그 자신(自身)의 힘으로 발을 떼어 놓기 시작(始作)하였다는 것을 중외(中外)에 알리는 역사적(歷史的) 신호(信號)였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이미 해방(解放) 직후의 우리가 아니요 6 · 25 당시(當時)의 우리도 아니다. 우리는 지금 사상적(思想的)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민족적(民族的) 대도약(大跳躍)의 전야(全夜)에 처(處)해 있다. 이 비약(飛躍)에 성공(成功)하는 것만이 우리의 잃어버린 국토(國土)를 되찾는 길이요, 자손만대(子孫萬代)의 번영(繁榮)을 약속(約束)하는 길이다.

유진오(兪鎭午)

1

우리 헌법(憲法) 전문(前文)에는「우리들 대한민국(大韓民國)은 기미(己未) 3·1 운동(運動)으로 대한민국(大韓民國)을 건립(建立)하여 세계(世界)에 선포(宣布)한 위대(偉大)한 독립정신(獨立精神)을 계승(繼承)하여」라고 명기(明記)되어 있어서 3·1 정신(精神)은 즉(卽) 독립정신(獨立精神)이요 독립정신(獨立精神)은 즉(卽) 독립국가(獨立國家)를 유지(維持)하는 정신(精神)임이 천명(闡明)되어 있다.

모든 민족(民族)은 각각(各各) 자민족(自民族)의 독립(獨立)을 유지(維持)하여야 하겠다는 정신(精神) 즉(卽) 모든 민족(民族)은 각각(各各) 자민족(自民族)의 운명(運命)을 자기(自己)들의 손으로 결정(決定)지어야 하겠다는 소위(所謂) 민족자결(民族自決)의 원칙(原則)은 지금 와서는 자명(自明)의 원리(原理)인 것처럼 느껴질는지 모르나 적어도 제일차(第一次) 대전후(大戰後)의 평화회의(平和會義)에서 미국대통령(美國大統領) 윌슨이 이를 제창(提唱)하기 이전(以前)까지는 현실국제정치(現實國際政治)에 있어서 그렇게 일반적(一般的)으로 승인(承認)된 원리(原理)는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국제정치(現實國際政治)란 강대국(强大國)의 영향(影響)밑에 좌우(左右)되는 것인데 제일차(第一次) 세계대전(世界大戰)때까지의 세계대세(世界大勢)를 지배(支配)하던 강대국(强大國)들은 거의 예외(例外)없이 소위(所謂) 식민제국(植民帝國)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침략(侵略)의 밥이 되어있는 피압박민족(被壓迫民族)의 자결권(自決權)을 용인(容認)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강대국(强大國)들이 그와 같이 세계(世界)의 다수(多數)한 민족(民族)들을 노예화(奴隸化)하고 무자비(無慈悲)한 착취(搾取)와 탄압(彈壓)을 자행(恣行)하기 이른 데는 몇 가지의 원인(原因)이 있었다 하겠다. 그것은 서구(西歐)의 강대국(强大國)들과 조금 뒤늦게는 러시아 제정(帝政), 일본 등(日本等)이 근대과학기술(近代科學技術) 발전(發展)의 성과(成果)를 그들의 산업(産業)에 도입(導入)하여 산업혁명(産業革命) 완수(完遂)에 성공함으로써 국력을 강대 케하여 이에 뒤떨어진 제민족(諸民族)과의 사이에 힘의 불균형상태를 야기하고, 따라서 마치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얕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강대국의 세력이 후진제민족(後進諸民族)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남의 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탄압하는 소위 강대국들이 도덕적으로 규탄되어야하고 법적 정치적으로 보복을 받아야 하고 또 역사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것은 그러한 규탄이나 보복이나 심판은 죄악이 이미 벌어진 후에 오는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그러한 죄악이 벌어지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데 있는 것인데 그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러한 힘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진민족이 스스로의 힘을 충실케 하는 것이다. 인류도의(人類道義)의 현상으로서는 강대국을 향하여 마치 눈앞에 있는 약소국을 침략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것은 마치 굶주린 이리〔狼〕를 향하여 눈앞에 있는 토끼를 잡아먹지 말라고 타이르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렇다하고 후진약소민족(後進弱小民族)들이 강대국들의 밥이 된 원인인 그들의 근대과학에 있어서의 후진성, 바꾸어 말하면 산업발전에 있어서의 후진성은 또한 민족의식 각성과정에 있어서의 후진성을 의미하는 것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말은 아시아·아프리카의 다른 후진민족의 경우에는 몰라도 적어도 신라통일 이후 연면(連綿) 천여년 동안 민족국가를 형성, 유지해온 우리 한민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말엽에 일본의 침략이 시작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우리의 민족의식은 춘수(春睡)를 계속해 온 것이 사실 아닌가. 물론 그 전에도 가령 임진왜란(壬辰倭亂) 병자호란(丙子胡亂)같은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는 전 국민이 민족의식에 불타오르고 이충무공(李忠武公) 같은 불세출의 애국장군이 나타난 일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외화(外禍)가 지나가면 전 국민의 민족의식은 도로 잠든 것같이 잠잠해지곤 하는 것이었다.

만일 우리 민족이 지나간 날에도 충분히 민족의식에 각성되어 있었다 하면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의 골수에 스며있는 자기를 망각한 배외사상(拜外思想)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며, 또 19세기 후반 열강의 야욕이 한반도 위에서 불을 뿜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판국에도 거족적 단결로써 민족의 운명을 만회해 보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각자 외세와 결탁하여 국내의 패권을 잡아보려고 혈전을 전개하던 추잡한 정쟁은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반수상태(半睡狀態)에 있는 후진민족의 민족의식이 침략자들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잠자고 있던 우리 민족의식에 불을 지르고 수많은 의인열사들의 피를 끓게 한 것은 실로 일제의 침략이었다. 일제의 우리민족에 대한 강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 국민의 민족의식은 한층 똑똑해지고 한층 강화되었으며, 또 그것은 우리가 일정하(日政下)에서 부분적, 간접적으로나마 사상, 문화, 산업의 제면(諸面)에서 근대적 세례를 받음으로써 한층 더 촉진되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전 민족이 잃어버린 독립을 도로 찾으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어났던 것이니, 그것이 이른바 3·1정신이요, 민족의 자주독립정신이었던 것이다.

2

3·1정신은 숭고한 정신이오. 위대한 정신이다. 한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정신은 숭고하다던가, 위대 하다던가 하느니보다도 당연한 것이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것이 맨주먹으로 일제의 총칼과 대결하는 정신이었기에 숭고하다 하고 위대하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깝게도 그것은 자기 자신을 관철하여 이를 지상에 실현시킬 힘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서구열강의 경우에는 각 민족자체 내의 산업발전과 민족과 민족사이의 대항, 경쟁을 바탕으로 삼고 민족의식이 고양되어갔기 때문에 민족의식의 성장은 곧 그들의 근대적 민족

국가로서의 개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민족의 운명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침략자가 그들 자신의 필요를 위한 외에는 우리의 근대화를 계획적 조직적으로 억압하였기 때문에 8·15해방에 이르도록 우리민족의 산업 및 사회의 구조와 생활 및 사고의 방식은 적이 전 근대적이오 파행적임을 면치 못하였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민족의 나아갈 길은 3·1정신으로 뚜렷이 명시되어 있었음에 불구하고 밖으로부터 뒤집어 씌어진 억압과 자체내부의 역량부족으로 인하여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거의 두절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사정은 8·15 이후 우리가 겪어온 모든 혼란과 고난, 그리고 비극과 참화의 원인을 설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미군정시대의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여 우리민족의 나아갈 길이 민주국가체제의 수립에 있음을 엄숙히 선언한 뒤에도 우리의 고난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다.

첫째 우리는 민주체제의 수립을 내외에 선언하면서도 우리민족의 대다수는(정치지도자를 포함하여) 민주체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아직 체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입을 열면 민주체제란 각인(各人)의 자유를 존중하는 제도라 하였다. 그러나 자유가 무엇이며 각인의 자유는 어떠한 조건 밑에서 존중될 수 있는 것인가를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약언(約言)하여 자유란 공동생활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기본조건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공동생활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소수의 강자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는지 모르나 다수인 약자는 당장에 노예상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임에 불구하고 사람들은 덮어놓고 자유를 부르짖기만 하였다.

한 개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겠다. 해방 후 얼마 안 된 때의 일이다. 대학입학시험을 끝낸 즉후(卽後)의 어느 날 지인의 한 사람이 학교사무실로 나를 찾아왔다. 용건은 시험에 떨어진 그의 아들을 어떻게 추가 입학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지만 나는 우선 그 학생의 성적을 조사해보았더니 예상(?)한대로 형편없었다. 대답은 물론 「노」였다. 그랬더니 이에 대한 그의 말이 걸작이었다.

「아따 성적이 좋으면 뭣 하러 청하러 다니겠소. 성적이 나쁘니 청하는 것 아니오? 전에 왜정(倭政) 때에야 그놈들 등살 때문에 우리가 꼼짝 못했지만, 인제 우리 세상인데 우리끼리 아무렇게 한들 누가 무어라 하겠소」 기막 히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민족의 대다수는 이 입학청탁자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해방 이후 계속되어 내려온 무질서, 혼란, 부정의 원인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자유란 제한이 없음으로서 자유인 것이 아니라 그 제한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위에 스스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인 것이다. 민주사회와 전제사회의 차(差)는 제한이 있고 없고 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물론 제한이 많고 적고 한 정도의 차는 있을 수 있다) 그 제한이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부로부터 스스로 부과하는 것이냐 하는 곳에 있는 것이다.

교통질서는 전제제도 하에서나 민주제도하에서나 똑같이 잘 지켜질 수 있다. 양제도의 차는 교통질서가 지켜지고 안지켜지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제재(制裁)가 무서워서 하는 수 없이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지켜야 할 필요를 자각해서 자발적 자주적으로 지키느냐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결코 자유의 관념 하나 만에 국한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하여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체계, 전통가치가 모두 그러하였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라고 누구나 입으로는 떠들지만 실지(實地)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 중에 정말로 국민의 공복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는지 나는 의문이다.

공무원이야말로 가장 빠른 치부(致富)의 길, 가장 속(速)한 출세의

길로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직한 설명이 아닐까.

이러한 관념상의 우리 민족의 후진성은 바로 우리의 사회, 경제체제의 낙후성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경제의 일부로서 그것을 보충하는 임무를 다하는 한에 있어서만 육성되어온 우리 경제가 갑자기 그 모체로부터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또 남북으로 양단된 것이니, 해방직후에 남한만의 경제자립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몽상(夢想)의 평(評)을 들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투성 이었다. 자본이 없고, 기술이 없고, 경험이 없고, 자원이 없고, 동력이 없고, 숙련된 노동도 없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 무슨 자주독립이 있고, 무슨 경제자립이 있겠는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경제 원조를 뒷받침으로 하여 탄생한 것은 결단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요컨대 우리민족은 3·1정신으로 이미 우리의 진로를 밝혔고,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으로써 민주주의야말로 3·1정신을 구현할 방법임을 천명하였으나, 이 길로 실지로 나아가기에는 허다한 악조건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3

우리민족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악조건을 최대한도로 또 무자비하게 악 이용한 것이 소련, 중공 및 그들의 조종 하에 날뛰는 국내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우리민족에게 주어진 제 조건이 민주체제건설을 위하여 지극히 불리한 반면에 공산주의선전을 위하여서는 도리어 유리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은 국내 국외의 공산주의자들이었다. 민주주의란 이성과 양식을 토대로 하는 사상체계이므로 해방 직후의 한국과 같이 민주적 자각이 되어있지 않고 무지와 빈곤과 권위에 대한 반항심으로 가득 찬 사회에 있어서는 그것은 뿌리박기 어렵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공산주의혁명이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달리, 자본주의가가 가장 성숙한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그 반대로 반봉건적, 반농노 사회적 단계를 미처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러시아나 중국 같은 곳에서 먼저 일어난 것을 그들은 몸소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해방이 되자마자 그들은 증오, 방자, 복수, 탐욕, 모략, 중상, 기타 인간의 가장 비열한 감정과 투쟁방법에 불을 질러 온 사회를 통째로 파괴와 무질서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

「지식계급이 공산주의자 되기는 낙타(駱駝)가 바늘구멍을 지나가기보다도 더 어렵다. 이와 반대로 프롤레타리아가 공산주의자 되기는 참으로 쉽다. 그들은 그들의 이기심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더 훌륭한 공산주의자가 된다」.

이것은 레닌이 러시아의 전시(戰時)공산시대에 감행한 방언(放言)이다(현재의 공산국가에서 그런 소리를 했다가는 사형이 틀림없지만).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레닌의 이 교훈을 글자 그대로 실천으로 옮긴 셈이다.

6·25의 공산남침은 이러한 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려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자 일어났다. 즉 그들의 피비린내 나는 파괴공작에도 불구하고 38선 이남에 있어서 민주적인 선거가 단행되고, 경제 질서도 당초의 예측과는 달리 점차 안정으로 옮겨지기 시작하자, 그 결과로서 민주체제의 기반이 남한에서 굳어지는 것을 염려한 그들은 무력으로 전국을 제압하여 공산지배체제를 확립하려 하였던 것이다.

역설적 현실 같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체제 확립에 기여한 공로는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민주체제를 건립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 선전 앞에 거의 무방비상태로 있던 남한 인민에게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만이 민족의 활로라는 굳은 신념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준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역시 험난하여 우리 민족은

휴전 후 또다시 7,8년 동안 자유당의 폭정(또는 난정(亂政)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4·19의 학생의거와 5·16의 군사혁명은 우리 민족이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체제 건설을 위하여 그 자신의 힘으로 발을 띄어놓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중외에 알리는 역사적 신호였다. 무엇이네 무엇이네 하면서도 우리 민족은 해방 후 15,6년이 지나는 동안에 사상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지닌 약점, 결점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민주건설의 길로 나설 준비를 갖추게 되었음을 이 두 차례의 혁명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건설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고 최종목표에 이르는 거리는 아직도 요원하다. 우리는 1년 반 후에 민정이 복귀되기 이전에 하루빨리 민주체제건설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겠다. 준비완료의 방법은 낡아빠진 봉건적 가치체계를 깨끗이 버리고, 새로운 민주적 가치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요, 둘째로는 이러한 가치체계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경제건설을 완성하여야 하겠다. 오늘의 우리 민족은 이미 해방 직후의 우리가 아니요, 6·25동란 당시의 우리도 아니다. 우리는 지금 사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기타 무엇으로나 근대국가로의 민주적 대도약의 전야(前夜)에 처해있다. 이 비약에 성공하는 것만이 우리의 잃어버린 국토를 되찾는 길이요, 자손만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길이다.

(필자·고려대학교 총장)

위인일화

명장(名將)의 퇴각(退却)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 1세를 격파하여 영명을 세계에 날린 영국의 명장 웰링턴 공작이 어느날 몇 사람을 데리고 총사냥을 나갔을 때의 일이었다.
그곳은 어떤 큰 농장이었는데 모처럼 경작한 논밭을 이러한 수렵자들에게 난폭하게 짓밟히는 것은 대단한 폐였다.
더욱이 공작이 사냥을 나갔을 때에는 바로 밀이 겨우 싹트기 시작한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농장주인은 웰링턴 일행을 보자 겁을 집어먹고 급히 농장입구의 책문을 닫아버리고 자기 아들에게 문지기를 명령하였다.
그런 줄은 모르고 웰링턴은 짐승들을 쫓는 중에 종자(從者)들과도 헤어져 정신없이 말을 달려오자 농장입구에는 한 소년이 시치미를 떼고 문지기를 하고 있었다.
공작은 이것을 보자 마음이 초조하여
"애 소년, 책문을 열어라! 빨리! 빨리! 안 열면 짐승이 도망치치 않느냐!"
하고 워털루에서 삼군을 질타하던 소리를 또 한번 내면서 고함쳤다.
그러나 소년은 태연 하였다.
"아뇨,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책문은 열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잔소리 말아! 너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내가 명령한다. 빨리 열어라!"
하고 화를 잔뜩 내서 또 한번 소리를 질렀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결코 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공작은 더욱 화를 내며
"음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는 모양이로군. 나는 웰링턴 원수다. 자 빨리 책문을 열어라!"
웰링턴 공작이라고 하면 이 고집센 소년도 반드시 놀라서 열어줄 것으로 알았으나 소년은 여전히 침착한 태도로
"네 모름지기 당신이 공작각하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웰링턴 공작각하 만한 분이 아버지의 분부를 배반하라고 말씀하시리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비열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누가 오든지 이 책문을 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유도 없이 각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소년은 정중하게 절을 하는 것이였다. 이 말을 듣자 지금까지 화를 내고 있던 공작은 툭 말의 목덜미를 치면서,
"음 너는 훌륭하다. 과연 나도 손들었다. 아무리 위협을 받아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움직이지 않는 그 정신은 참말로 훌륭하다. 그럼 나는 너의 그 훌륭한 영국혼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삼가 이 자리를 퇴각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모자를 벗고 답례를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매우 유쾌한 마음으로 귀로(歸路)에 오르는 것이었다.

매너리즘을 장송(葬送)한다

특집

예술 창작에 있어서 하나의 매너(Manner, 수법(手法))만을 고집하는 태도를 의미하던 매너리즘(Mannerism)은 "발전력의 상실" 내지 "창의력의 부족" 또는 "구태의연한 타성"등 그 말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상황으로 인하여 어느덧 <현대>라고 하는 특수한 <풍토>위에서 빚어지고 있는 제반 사회현상의 일면을 포용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말았다.
따라서 현대의 고민을 그대로 투영하는 창백한 사조 매너리즘은 우리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침투하여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늘여 우리를 묶고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적 정체성(停滯性)"의 연쇄반응 속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급속한 근대화를 전취(戰取)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의 분쇄야말로 시급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매너리즘의 장송—이것은 구김 없는 내일을 밝히기 위한 서곡이다.

<편집자>

<시간관념(時間觀念)>

시간(時間)은 생명(生命)이다

정비석(鄭飛石)

서양에는 「시간은 돈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네들 간에는 배금사상(拜金思想)이 농후해서, 시간은 돈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 누구한테나 시간의 존귀성이 대번에 이해될는지 몰라도, 그네들보다는 돈에 대한 가치 관념이 훨씬 희박한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돈에 비유한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맥 빠진 감이 없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던가, 혹은 「세월은 달리는 화살과 같다」라는 말이 흘러가는 시간의 속도를 눈앞에 보여주는 듯해서 훨씬 실감이 난다. 사실 시간이란 1초도 쉬지 않고 흘러가기 마련이요, 한번 흘러가기만 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또한 시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생이란 그처럼 쉬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위에 몸을 싣고 시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까닭에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어름어름 하다가는 30세, 40세가 후딱 지나가고 50세, 60세가 속절없이 다가와서 내가 언제 그와 같은 시절을 가진 일이 있었던가 하는 허무감조차 느끼게 된다. 인생무상(人生無常)이라는 문자는 아마 그런 허무감에서 나왔으리라.
내가 아직 어렸을 때, 40세, 50세의 장년이라면 굉장히 늙어 보여서 나 자신은 몇 세기를 지내야만 그런 연령에 도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오십 고개를 넘은 지금 와서 지나간 반생(半生)을 돌이켜보면 내가 언제 그와 같은 세월을 살아왔던가 하는 의아심조차 생길 지경이니, 고인(古人)들이 「소년이로학난성(少年易老學難成) 일촌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이라고 부르짖게 된 것은 필연코 그런 심리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은 돈」이기보다는 도리어 「시간은 너 자신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시간관념은 희박하다. 시간관념이 희박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정신적인 후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방 후에 시간관념이 강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내왕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는 「코리언 타임」이라는 새로운 술어(術語)가 생겨났는데, 그런 신조어가 생겨나게 된 것은 분명히 우리 민족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더구나 일본서 발간한 시사용어사전에까지 「코리언 타임」이라는 신조어가 수록되었다는 소문까지 들려오고 있으니,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처럼 수치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용어가 생겨나게 된 것을 덮어놓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우리들 자신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시간관념이 너무도 박약한 것을 가슴깊이 반성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들은 무슨 회합에 있어서나 다수인사가 모일 경우에는 30분쯤 지연되는 것은 누구나 예사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인사가 죄다 그렇게 지각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회원은 정각에 대어 오지만 나머지 몇 사람들이 제 시간에 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불필요한 시간을 강제적으로 소비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야말로 그레샴의 법칙대로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살아있는 실례라고 하겠다. 가령 열 사람이 모이는 회합에서 세 사람이 지각을 했기 때문에 일곱 사람이 30분씩 기다렸다고 친다면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삼십분간 이나 남의 귀중한 시간을 무리하게 희생시킨 결과가 된다. 더구나 회원이 다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를 주장하는 어른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사람 하나가 참석해주기를 기다릴 경우에는 그 시간의 낭비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인권유린이란 반드시 남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정신적으로 핍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남의 귀중한 생명인 시간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강제력으로 낭비시키는 것도 분명히 반민주적인 인권 유린의 하나다. 남의 재물을 강제로 탈취하는 것을 강도라고 부르고, 남의 재물을 주인의 눈을 속여 가며 훔쳐가는 것을 절도라 해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사들이 어째서 생명이나 진배없는 남의 시간을 낭비시키는 것을 예사로 알고 있는지, 이해하기에 매우 곤란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간을 제대로 지켜가는 사회는 군대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 오늘날 우리 군대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위용을 갖추게 된 것도 시간에 관한 정신적인 뒷받침이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 기이한 것은 군대생활에서는 그처럼 시간을 엄수하던 사람들도 일단 평민으로 돌아오면 시간관념이 다시 헤이해지고 마니, 우리들은 차제에 사회 기강을 시간 준수의 면에서도 일대 혁명을 일으키지 않아서는 안 될 것 같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시간이란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금전대차관계에 있어서는 에누리를 아니 하면서 시간약속에 있어서는 누구나 에누리를 하게 되는 것은 어디서 오는 모순일까. 아마 그것은 상대방에게 물적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시간 위약(違約)은 오히려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적인 피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독일에 유학하는 어떤 한국학생이 주임교수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서,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 약속시간보다 10분 이르게 찾아갔더니 그 독일인교수는 왜 10분이나 일찍 왔느냐고 책망하면서, 10분 동안을 그냥 기다리게 하고 자기는 자기 일을 보다가 정확한 약속시간에 만나 주더라는 일화를 들은 일이 있다. 늦게 오는 것도 곤란하지만,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것도 결과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기는 마찬가지다. 더구나 우리네 사람은 자기가 한가한 것만 생각하고 바쁜 사람을 찾아가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남의 직무시간을 낭비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런 것은 국가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폐풍(弊風)이라 하겠다.

우리는 그런 폐풍을 단연 일소(一掃)하고 누구나 현대적인 시간관념 속에서 살아나가도록 생활태도부터 혁명해 나가야 한다.

(필자·작가)

(P10에서 계속)

서류를 돌렸던 것이다. 나는 이 썩고 구린 구정권때 관청에서 하는 짓을 상여꾼에 비긴적 조차 있었으니 상여를 둘러멘 상여꾼들이란 비탈이나 도랑을 그냥 지나가는 일이 별로 없다. 돈을 손에 쥐어 주어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게 마련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여꾼 정치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매장이 되었거니와 관을 대단히 알고 민을 업신여기는 관존민비의 낡은 생각도 뿌리채 뽑아 버려야 할 때는 왔다. 그렇다고 해서 민을 대단히 알고 관을 업신여기는 민존관비도 안되고 관도 민도 시시껄렁하게 여기는 관비민비도 못쓴다. 나라재건의 가장 버젓한 길은 관존민존일 것이다. 관은 민을 받들고 민은 관을 섬기면서 서로 따질 건 따지고 서로 두둔할것ㄴ 두둔해 가며 관민일체로 국난을 돌파해 나갈 결심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조차도 백성의 손으로 골라 내게 마련인 민주공화국에 있어서는 관리란 국민의 시중꾼이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잘 인식하고 못함으로 관료만능주의에서 해방이 되고 못되고 할 것이다. 뜨거운 국맛 모르는 모양으로 우리는 너무나 갑자기 8·15해방을 만나 얼떨떨한 가운데 공짜가 자꾸 생기는 통에 불로소득병에 결렸었고 관존민비 증세가 병발하여 위독하더니 5·16군사혁명 덕분으로 탐관오리 적체가 뚫린 것은 통쾌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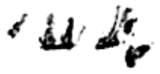
1962년 2월 19일

〈필자·새싹회 회장〉

<파벌의식(派閥意識)>

파벌(派閥)과 편견(偏見)

전혜린



어떤 사람이던지 편견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편견은 인종, 종교, 지역, 기타의 여러 원인에 의해서 근거 지워져서 한 조류를 이루고 한 시대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에게는 무의식적인 편견이 있다. 그것을 정신의 훈련에 의해서 극복하고 말살해 버리는 대신 그것에 타당성 있어 보이는 이유를 붙임으로써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러한 자기의 의견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 타인에게 전파시키고 동류(同類)를 구하게 될 때 단순한 편견은 반갑지 않은 파벌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대개의 파벌은 「무엇을 위한」것인 동시에 「무엇을 반대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반대당하는 것이 입는 피해는 종종 가공할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는 것이다. 2차 대전 때 무서운 숫자가 학살당하고 만 가엾은 유태인들에 대한 독일 사람의 반혹(反惑)의 시초는 막연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으나 그 편견에서 나치가 정치적인 이용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것은 무서운 「안티쎄미즘」의 파벌의식을 만들고 급기야는 조직적 학살이라는 「유태인 문제의 궁극적 해결」로 인도하고 만 것이다. 이 이외에도 「리틀 쿡」사건 기타 신문 보도로 우리는 미국에 흑인에 대한 가혹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남부 주에서는 당당한 파벌을 이루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깝게 체험하고 있는 편견 내지 파벌의식은 지역적인 파벌의식이다. 독일서도 북부 프로이센인과 남부 바이에른 사이에는 강한 편견이 남아있음을 나는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지역적인 편견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아무도 부인 못할 것이다. 출신교에 의한 또는 출신 도(道)에 의한 파벌의식은 아직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파벌의식도 그것이 좋은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경우는—예를 들면 자기 출신 도를 번영시키는 방법을 강구한다던지 자기 도 출신 피난민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 한다던가—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고 대의명분이 서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좋은 의미의 파벌의식은 독일 같은 나라를 각 주(州)가 각 주에 지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독일을 번영케 하고 있는 예를 보아도 찬성할 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벌의식도 이번에 실시된 학사 및 대학입학자격고시를 통해서 엄연히 나타난 우수교(優秀校)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생김으로 오히려 강해질 염려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영국서도 4분의 1이 이튼교 출신이고 2분의 1 이상이 옥스퍼드와 켐브리지 출신임을 보아도 영국도 천재 내지 수재교육이라는 입장을 택한 학벌국(學閥國)임을 알 수가 있다. 도 내지 학교의 동이(同異)에 따른 파벌 내지 집단의 생성은 어디서나 거의 불가피한 것일 것 같다. 다만 그것이 적극적인 선악의 목적에만 쓰이지를 않고 배타 독선적(排他獨善的)인 온갖 분야에서 「모노폴리」적인 방향으로 흐르면 파괴력이 커질 것 같다.

「어느 도 사람은」 운운하는 것은 「무슨 띠 사람(사주의)」운운과 마찬가지의 신빙력 밖에 없는 것이며 어느 교 출신은 비교적 우수하다는 상대적인 견해는 있을 수 있을지라도 어느 교 출신자는 한명도 안 빼고 다 우수하고 그 학교 이외의 타교 출신자는 전원이 열등하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가소로운 독단인 것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이런 류의 무의식적인 편견이 굴러다니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얼마나 무책임하게 어느 도, 어느 학교에 관해서 총괄적인 평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우리의 책임 없는 말, 반성 없는 편견이 굳어지고 모여서 한 파벌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파벌은 「무엇을 위해서」보다도 「무엇을 반대해서」 여태까지 일해 왔다. 어느 교 출신이니까 하고 무조건 무시당해온 우수한 사람이 수없이 많을 것이고 어느 도 출신은 안된 다는 「터부」에 저촉되어 자기의 출신지를 원망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단계에 놓여 있다. 전 국민이 한 개의 이념에 같이 불탈 수 있는 최초의 기회가 온 것이다. 구각을 뚫고 새로운 정신이 솟아나오기 위하여 지금 진통 중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참신한 역사의 새 페이지에 놓여있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할 때 구태의연한 파벌의식이 주변에 아직도 마치 새로운 파도 뒤에도 우연히 남아있는 패각들처럼 잔존하고 있음을 볼 때 그리고 만연한고 발호할 기세까지 군데군데 엿보임을 볼 때 한심하다기보다 슬퍼지고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진심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위대함은 다만 그의 정신 속에만 있다. 온갖 새로운 역사적 단계의 기저(基底)는 인간의 정신의 새로운 각성에 비롯했던 것이다. 참으로 새로운 정신 새로운 의식 속에 깨어나기 위해, 어제까지의 자기를 악몽처럼 떠나고 빛 속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낡은 의식들과 결별해야 한다. 非情的인 비감상적인 결별이 거기는 요구되며 그것만 행해진다면 우리의 정신은 파벌이나 기타의 의식에 의해서 흐려지기에는 너무나 맑고 자유로워져 있을 것이다.

(필자·서울 법대 강사)

<관존민비(官尊民卑)>

관존민비(官尊民卑)으로

윤석중(尹石重)

「정승(政丞=지금의 장관) 죽은 것보다도 정승집 개 죽은 것이 더 설다」는 속담이 있다. 정승집 개가 죽었을 때, 모두들 찾아와서, 참 안되었다고, 입맛들을 다셨지마는 개가 죽은 것이 서러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승 눈에 들기 위한 술책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승이 죽고 보니, 발라맞출 대상이 없어져 버렸으므로, 본체만체 하더라도 후환이 없게 되었다. 정승보다도 정승집 개가 더 이용가치가 있음을 폭로한 속담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벼슬아치들을 두려워하였고, 우러러 보았고 부러워하면서 대대로 살아오는 동안 관존민비의 사상이 골수에 배어버렸다. 「이용」이라는 말부터도 그렇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스케이트를 탄다던가, 폐물을 이용해서 그릇은 만든다든가 하면 좋게 들리지마는, 「그 사람은 남을 잘 이용해 먹어」「남을 이용할 줄만 알았지 도와줄 줄은 통 몰라」—항용 듣는 이런 말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용이란 「악용」으로 타락해 버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난날의 공무원들의 행실은 어떠하였던가? 그 자리를 이용(즉 악용)해서 재물을 긁어모으느라고 눈들이 벌갰었다. 대단치도 않은 벼슬자리를 부둥켜 쥐고 늘어진 것은 뒷구멍으로 생기는 것이 많아서 그랬으며, 허겁지겁 거두어들인 것은, 언제 그 자리를 뜰는지 모르는 노릇이어서, 있을 때 한밑천 잡기 위해서였다. 손쉽게 재물을 잡는 길, 공짜로 먹고 살 수 있는 길, 돈 구경을 할 수 있는 길은, 벼슬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어서, 앞을 다투어 공무원 노릇을 하려 들었던 것이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택시나 자가용이 꼬리를 물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 저절로 한탄 소리가 난다. 「가솔린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홍 아주 팔자들이 늘어 졌구나……」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매우 못마땅한 눈으로,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흘겨본다. 그러나 일단 자기가 차를 타고 거리를 달릴 때는, 길거리에서 어물어물하는 자들이 눈에 거슬려 「저런, 저런, 저게 치어 뒈지고 싶은가……」하면서 눈을 부라리게 된다. 이처럼 인간이란, 똥 누러 갈 때 다르고, 똥 누고 올 때 다른 법이어서, 제가 막상 그 자리에 앉고 보면 한술 더 떠서 못된 짓을 하게 되기가 쉬운 것이다. 벼슬아치 역시 그렇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진 않지. 멀쩡한 놈 같으니라고……」하며 탐관오리의 무리를 공격하던 자가 그 자리에 앉자 「그 놈이 그 놈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 일이 허다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어찌해서 벼슬아치를 제일로 쳤었던가? 첫째로, 공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눈을 한번 감아주거나 도장 한 개 눌러주거나 명함 한 장 써주는 것으로 한평생 먹고 살 것이 생기는 수도 있는 판인데, 단작스럽게 월급봉투만 들여다보고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이처럼 공짜로 생기는 것에 맛을 들이고 보면, 정직하다는 것, 부지런하다는 것, 고지식하다는 것이 다 어리석은 짓이요, 밑지는 수작으로만 보일 것이다. 벼슬아치를 부러워들 하게 된 둘째 이유는, 뻐기는 재미로 였다. 손가락이나, 고개나, 눈으로 사람을 부리고, 신바닥에 흙을 안 묻히고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다. 셋째로는, 힘 안들이고 출세하려면 역시 벼슬길이 제일 빨랐으니, 줄만 잘 닿고, 돈뭉치만 두둑이 마련하면, 승급이든, 승격이든, 자유자재인 시절이 있었던 것이 그렇고 보니, 손톱 밑 가시 든 줄은 알아도 염통에 쉬 쓰는 줄 모르는 격으로, 탐관오리 등살에 나라가 골병이 들어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 아는 어느 학교 재단이사 한 분이 지가(地價)증권 돈을 타러 ○○부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적이 있었다. 그가 돈도 없으면서, 미제 양복을 한 벌 새로 맞춰 입고 와서 하는 말이 「격에 맞지 않지만, 옷이 너절하면 관청에서 상대를 안 해서……」하며 입맛을 다셨다. 갖은 애를 다 먹은 끝에, 돈을 타내게 되었다. 관에서는 덜컥 내주지를 아니하고 내일 오정 때 한번 더 들어오라고 하였다. 점심 한 끼 더 털어먹고 내줄 심산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튿날 점심때 출두하자 동료 한 떼를 거느리고 신발 벗는 음식점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나더니, 속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더란다. 셈을 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재단이사가 펄쩍 놀라 말리니까, 부득부득 지갑을 꺼내더니, 그 속에서 쪽지 한 장을 뒤져내어 내미는데, 받아들고 보니까, 그전에 저희끼리 와 먹은 외상쪽지였다. 그자는 돈을 치르려고 지갑을 꺼냈던 것이 아니라, 재단 이사에게 그전에 먹은 저희들 외상 술값까지 바가지를 씌운 것이었다. 그 시절엔 당연히 결재를 해서 내줄 서류일지라도, 쥐고 뭉갤 때마다, 넌지시 돈을 쥐어주게 되어 있어서, 대단치도 않은 서류에도 도장을 다섯 개씩, 열 개씩, 맡게 마련이었고 도장 한 개에, 하다못해 양담배라도 한 갑 생기는 것이 있어야

(P8에 계속)

<허례허식(虛禮虛飾)>

체면(體面)과 허세(虛勢)

오애영

우리나라 사람처럼 「체면문제」에 신경을 쓰는 사람도 드물다고 한다.

「얼어 죽어도 곁불은 쬐지 않는다」는 「안간힘 양반」의 후예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상당수도사리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자기의 실력은 아랑곳없이 남에게 어떻게 점잖게 보여야 하는가에 온 신경을 쏟는 사람들이다. 생활의 중심이 「나」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수입 이상의 수준에서 지출하는 것을 체면 유지로 생각한다. 영국 사람들은 수입 내 지출이라야 체면이 손상되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고 연전에 영국을 다녀온 K여사가 비교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체면의 기준이 영국과 180도 다르다. 체면이란 개개인의 솔직한 얼굴일 것이다. 남의 얼굴을 빌어다 쓰더라도 좋게만 보여야 체면이 선다는 것은 주객전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다. 이조(李朝)의 유학사상이 그러했다. 예를 숭상하는 유교의 가르침이 체면제일주의의 「안간힘 양반」을 만들어 낸 것이다.

허례허식의 역사성이라고 할까. 오랜 인습과 전통 속에 체면이 얽매인 풍습이 굳어져 버렸다. 이제 와서 그것을 허례허식이라는 고깝지 않은 이름으로 불러도 선뜻 버리지 못하는 무게가 여기 있다.

무게라기보다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우리의 생활조건은 시대의 변천과 함께 눈부신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생활의 「매너리즘」은 우리를 시대의 낙오자로 만든다.

지금 우리네의 생활주변은 이조 시대의 그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활풍습은 그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구시대의 생활풍습에 얽매이는 「넌센스」는 아직도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실정이다. 생활의 개혁—그것은 가장 어려운 혁명인지도 모른다. 대륙적인 우리 민족성은 변화를 흔히 부박(浮薄)한 것으로만 여겨왔다. 「매너리즘」의 안일이 양반의 체면이었던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가정생활의 「오토메이션」화(化)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식마저도 밥 대신 빵으로 갈아치우는 데까지 생활을 바꾸어 놓고 있다.

거기에는 경험적인 뒷받침도 무시할 수 없으나 이로운 것이면 거침없이 새 것을 받아들이는 정신적 자세가 보다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그네들이 자기네 고유의 것을 송두리째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묵은 것을 새 세대에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가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혁해 가고 있는 것이다.

조상이 남겨준 유산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모셔 받드는 것은 아름다운 풍속일지 모르나 현명한 짓은 못된다.

생활의 개혁은 먼저 사고방식의 개혁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허례허식이 복잡하고 바쁜 현대생활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가는 어제 오늘 시작된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요컨대, 문제는 어떻게 탈피하느냐에 있다. 과감하게 묵은 것을 내던지고 보다 합리적인 새 것을 찾아내야 한다.

사고방식의 개혁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수동적인 것에서 능동적인 것으로 생활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봉건적인 조상 때문에」 지금 우리가 후진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한다. 그것이 그릇된 논리는 아니다. 과거가 없이 현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상이 남긴 그릇된 것은 우리가 바잡아 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로부터 「조상 때문에」라는 원망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지금 행동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다.

구악(舊惡)을 도려내는데 용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례허식은 우리네 생활 속에 배어 있는 구악이다. 자신 속에 들어앉은 구악을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 쓸데없는 겉치레를 일소하는데서 생활개혁의 첫걸음은 시작되는 것이다.

허례허식이 체면이라고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다. 개개인의 생활환경에 따라 허례허식의 한계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한마디로 『체면치레를 위한 낭비』라고 나는 부르고 싶다. 정신적 시간적 낭비도 물질적 낭비에 못지않은 폐해를 가져온다. 관혼상제 풍습을 보다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종래의 갖가지 의례가 필요이상의 낭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면치레를 위한 무리한 낭비가 때로는 희비극을 연출시켰음은 부인치 못할 사실이다.

「무리한 낭비」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위선이다.

결국 허례허식은 하나의 위선인 것이다.

허례허식이 성행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자유당

(P23에 계속)

<탁상공론(卓上空論)>

공론(空論)과 공상(空想)

조풍연(趙豊衍)

공론(空論)과 공상(空想)은 애당초에 다르다. 공상은 과학으로 도달할 수 있으나 공론은 물거품과 같이 꺼지고 만다.

하지만 공론과 공상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공상이 없는 곳에 공론이 있기 때문이다. 공상에는 지향(志向)이 있고 지양(止揚)이 있다. 지향과 지양하려는 의욕이 전혀 없을 때, 공론이 거품처럼 이는 법이다.

공론은 실속이 없는 의론이기 때문에, 전혀 의지할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실력 없는 사람일수록 남에게 의지하려 든다. 떡 소리만 듣고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것이 공론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공론은 펼칠 때는 그럴 듯이 들린다. 막상 실행에 옮겨보면 수포가 된다. 처음부터 공론인 줄 알고 경청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가 크다.

공론이 공론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는 기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면 모름지기 기초를 닦아야 한다.

우리 국력의 크나큰 약점은 각 분야에서 조사가 빈약한 그것이다. 어느 정도로 조사가 빈약하냐 하면, 조사가 별로 긴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주 담을 쌓을 정도로 빈약하다. 그러므로 종으로 횡으로 연계가 잘 안 된다. 모처럼 좋은 착상이나, 남의 모방에 착안을 했어도, 조사의 밑받침이 없기 때문에 허사—즉 공론이 되고 만다.

근대건축에 있어서 설계비가 총 비용의 10%를 차지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이보다도 계획에 앞서 조사비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설계비, 조사비를 합친 것이 건축의 기본이 된다. 모든 시책이 건축의 기본과 같이 설계가 필요하고, 설계에 앞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말이 쉽지 조사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요, 결코 규모가 작지 않다. 또 조사의 대상이 항상 유동(流動)되기 때문에 부단히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여기 어떤 상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자. 우선 그 상품의 수요인구부터 파악해야 될 것이다. 다음에 그 수요자의 재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 재력은, 다른 수요품이 그 상품의 판로를 새치기하지 않나, 까지 알게 되면 만점이다. 어느 계절이 가장 그 상품을 사들이기 좋은 것인가도 알아야 한다. 한 겨울철에 선풍기를 사들일 사람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다음엔 어떻게 선전을 하느냐, 하기까지엔 또 다른 조사가 필요하다. 구매자의 심리를 알아내어야 한다.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동류(同類)의 상품을 파는 경쟁자의 유무, 있다면 어떠한 전술로 이겨내는가, 또는 어떻게 제휴하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기본조사에 맞춰서 어떻게 계획 생산할 수 있는가. 이것도 조사가 필요하다.

친근한 예로 영화의 제작에서 상영까지를 들어 말해보겠다. 영화는 보통 10만의 인구를 표준해 만들어진다고 한다. 적어도 10만이 보아주어야 적자를 면한다는 것이다. 틀림없이 10만, 또는 20만의 관객이 붙으리라 자신이 있는 작품일지라도, 그것의 상영하는 시기가 중요하다. 근자(近者)에 한 작품이 개봉될 때 , 그것이 서울을 비롯한 수 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봉됨을 우리는 신문광고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시기를 중요시한 까닭이다. 때를 맞추지 않다가 물건이 상하기 쉽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때를 맞춰 극장에 붙이긴 했는데, 관객이 예상 외로 안 드는 수가 있다. 이것은 웬 까닭일까. 다름 아니라, 딴 극장에 더 매력있는 영화가 공개되고 있다. 그리로 몰려들기 때문이다.

관객이 통 들지 않는 영화면서 「당당(堂堂) 제2주에 돌입(突入)」이라고 선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대개 극장주가 그 영화를 제작했거나 수입한 때문이다. 지방에서 관객을 끌자면 서울에서 장기 흥행한 것이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중 상대의 상행위(商行爲)가 어렵기 때문에 영화제작은 어렵다. 만들어놓고 햇볕을 못 보는 작품이 허다하다.

예를 상품에 들었지만, 행정에 있어서 「소셜 리서치」가 긴요한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

어느 동물학자는 내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미국 하와이에는 우리나라 꿩이 벌써 오래 전에 옮겨졌다고 하는데. 그 실태 조사가 해마다 거의 정확히 되어있기 때문에 꿩 사냥에 대한 허가 숫자, 기간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몇 마리가 번식되어 있으므로, 금년은 몇 마리까지를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사이에 잡아야 한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매해 공포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학자도 나와 마찬가지로 조사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우리는 속력을 내어 국가를 재건하는 한편, 연차 계획을 조사 통계 방면에도 세워서 유효한 계획의 밑받침이 되도록 하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확고한 조사 위에선 공론(空論)이 있을 수 없다.

(필자·소년한국일보 주간(主幹))

<우유부단(優柔不斷)>

사고(思考)와 행동(行動)

민철웅(閔哲雄)

한창 무덥던 작년 여름의 휴가를 나는 여행을 하면서 지냈다. 포항, 부산, 대구 등지를 돌아다니며 해수욕도 하고 절간에도 들르다 보니 어느새 휴가기간인 열흘이 다 되었기에 대구에서 마지막으로 서울 행 기차에 올랐다.

창을 모조리 열었건만 3등 객차 안은 여전히 더웠다. 견디다 못해 마른 목도 축일 겸 해서 식식당 차에를 갔더니 그곳도 손님으로 빽빽했다. 하는 수 없이 서른을 갓 넘은 듯 한 여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 맞은편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는 맥주를 주문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홍차를 마시는 그녀도 혼자 여행을 하는 듯 하기에 말을 건넸다.

서로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그녀가 서울에 있는 S병원에 근무하는 여의사라는 것과 그녀도 부산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여름휴가를 지내고 오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원을 이룬 식당차 안의 손님에 섞인 외국인들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하던 그녀와 나의 대화는 어느새 한국의 민족성으로 흘렀으며 「점잖음」을 행동강령으로 하는 한국인이 명랑한 구미인(歐美人)에 비해 얼마나 손(損)을 보고 있는가를 그녀는 지니고 있는 의학지식을 동원해서 장황하게 설명했다. 즉 인간의 신경조직은 웃을 때면 11개가 작용하고 성을 내면 36개가 작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에 구미인에 비해서 웃음이 없는 한국인은 훨씬 빨리 피로해지고 또 늙는다는 것이다. 의학에 대해 문외한인 내가 이것이 의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를 알 수는 없으나 한국인이 얼마나 점잔을 빼며 한국인의 표정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점잖음」을 좋아하는 것이 동양인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에게는 그러한 증세가 농후하다. 스물이 넘어서 사회에 나서면 「점잔」과 배치되는 여하한 행동도 삼가야 한다. 동작은 그리고 무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작을 신속하게 하는 운동은 일체를 삼가야 하며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도 점잖기 위해서는 삼가야 한다. 이러다 보니 삼십 고개를 넘어서기 바쁘게 운동신경은 마비되고 동작은 둔할 대로 둔해지며 비로소 한국사회에서 대접을 받는 의젓한 인간형이 형성되는 것이다. 신체는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다. 입으로 아무리 훌륭한 말을 떠들고 뇌리에 아무리 세찬 의욕(意慾)이 도사리고 있어도 이를 행동화할 수 있는 정열이 없으니 마냥 무기력한 인간이 되는데다가 신체적으로 허약한 자기를 방위하겠다는 인간 본연의 「이드」가 발현되므로 말미암아 「입」은 보다 더 공격적이고 편협하게 되며 사고에는 관용이 비비고 들 틈이 없이 잔인하게 된다.

고래(古來)로 동양에는 중용지도(中庸之道)라는 말이 있다. 예를 들면 음식을 취하되 너무 많이 취하면 체한다. 그러니 사람은 음식을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나이가 차서 색(色)을 취하지 아니하면 성미가 괴벽해지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색을 받치면 패가망신한다. 그러기에 색을 취하되 적당히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맞게, 적당히, 이것이 가로되 중용지도인 것이다. 중용지도라는 동양의 미덕은 극단과 모험을 절대로 금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훌륭한 덕인가?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네의 현실의 빈곤을 낳게 한 근본원인인 것이다. 돈을 벌되 적당히 벌었기에 현대 산업을 진흥시킬 민족자본의 축적이 없었고 싸움을 하되 적당히 싸웠기에 철저하게 망해보지 못하였으며 그러기에 7·8세기에 걸친 수난 끝에 이루어지는 철저히 망했던 이스라엘의 오늘의 기적이 8·15 해방 후의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일을 하되 알맞게 하기에 매사에 실수가 없다. 참으로 좋은 현실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니 않을 수 없다. 불완전한 것이 인간이다. 이러한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일에 과오가 있을 수 없겠는가? 실수가 없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했다는 말과 통하는 것이기에 실수가 없음을 자랑함은 아무 일도 아니했음을 자랑함과 조금도 다름없이 어리석은 것이다. 무엇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충분히 생각한다 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모순이 없는 일이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인간만사에는 모두 모순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따지다보면 우유부단의 표준이 되는 것이다.

국가재건의 도상(途上)에 있는 한민족의 식자(識者) 중에는 방관자의 입장에서 따지기만 하는 자가 없는가? 우리는 따지기 전에 우선 절박한 민족적 과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후세에 남을 역사가 있지 아니한가? 점잔을 위해서 이 이상 더 우리는 허리를 조를 수 없는 것이며 중용지도를 고집하는 나머지 실수가 두려워 앉아서 적색(赤色) 마수의 제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점잔빼며 따지기 전에 우선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이다.

(필자·군인)

생활(生活)의 과학화(科學化)

매너리즘의 극복을 위하여

과학정신(科學精神)의 결핍(缺乏)은 오늘날 우리가 하루속히 극복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과제다.

분업(分業)과 책임관념(責任觀念) · 최태호(崔台鎬)

단계마다 고도의 책임을 요구하는 현대의 과학문명은 극도의 분업화, 전문화를 낳아 자칫하면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드는 비극을 초래한다. 그러나 보다 더 비극적인 현상은 정신생활마저 과학적 정신을 잃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점이다. 즉 어느 세부의 사무를 창조정신 없이 수행하는 가운데서 생기는 매너리즘이 두렵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대문명을 과학문명이라고 일컫는다. 참으로 오늘날처럼 인간능력의 발로가 과학의 힘에 의존한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세계 제2차 대전 가까이 6·25사변에서 공산군을 물리친 것도 과학의 힘이었으며, 국가재건의 계획과 경제5개년계획을 통한 민생문제의 해결도 과학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과학을 논할 때는 흔히 자연과학의 물리 화학 생물학을 말하고, 공업 의학 통신 등 응용과학을 연상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의 발달은 극도로 분화되어 그 다기다양성은 극히 세분된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과학뿐 아니고 기술면에 있어서도 나날이 분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작용은 기계문명을 발전시켜 생산양식이 180도로 개변(改變)되었는데 그것은 주로 인간이 기계의 일부화 하여 직업 생활이나 학문 연구에까지 부속품격인 극소부분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일면 인간이 스스로의 창조성을 포기하고 기계의 한 부분으로서 점유하고 있는 좁은 테두리 안에서 전체를 움직이는 어떠한 힘에 맹종하는 부작용을 가져 왔으니 이는 곧 인간상실을 의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분적인 과학적 지식에 얽매여서 과학정신의 근본인 통찰과 통합의 태도를 잊게 되었다는 점이다.

왕년에 희극배우 채플린은 영화에서 이런 풍자를 한 일이 있다. 기계문명이 극도로 발달해서 식사도 기계의 힘을 빌려서 하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서 온통 요리로 얼굴 전체가 패대기치는 장면이라 던가 볼트 너트를 조이는 직공이 허구한 날 스패너를 가지고 너트를 조이다가 마침 구경 온 사장 부인의 옷에 달린 단추를 너트로 오인하고 조이러 달려들어서 야단이 나는 장면 같은 것 등이다. 극도로 분업화된 사회의 비극을 희화화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다.

가령 어느 큰 기계공장에서 지정된 길이로 철근을 자르는 직공이 있다고 하자. 5년 10년 동안 같은 일을 하여 눈감고도 정확히 자를 수 있는 숙련공이 되었지만 일단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 그는 무능력자로 실업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떤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인사사무에 이력 대조만 하다가 어떤 기획 사무를 맡게 되면 그는 그동안 쌓은 사무능력이 무(無)가 되고 만다. 이러한 사실들은 분업이 가져오는 인간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비극적인 현실은 정신생활마저 과학적 정신을 잃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 어느 세부의 책무를 창조정신 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생기는 매너리즘이 두렵다는 것이다.

과학정신은 비판적 정신과 인과관계의 추구와 판단을 현안으로 두는 태도와 진리를 신봉하는 정직성으로 구성된다. 거기에는 일분(一分)의 허위도 있을 수 없고 무책임한 억측도 있을 수 없다. 그러한 소산에서 발달된 기계문명이 사람으로 하여금 과학정신과 상반되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분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맡은 바 소임에 전 책임을 져야 한다. 세분된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마치 정교한 시계에 톱니바퀴를 돌리는 하나의 쇠붙이에 비할 수도 있고 교향악단의 일원으로서 북을 울리는 역할도 된다. 하나의 분업이 소홀함으로써 전체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인간이 기계가 아니고 정신을 구유(具有)하였다면 무의식의 기계와는 달리 전체를 통찰하는 능력과 자기소임의 위치를 자각함이 있어야 한다. 자기소임의 위치를 자각한다는 것은 보다 더 능률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생각해보면 우리 회사도 거대한 기계와 조직이어서 그 조직 안에 사는 개개인은 하나의 분업을 맡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은 곧잘 자기의 분업을 깨닫지 못하고 어느 인물이나 어떤 사물에 대하여 고답적(高踏的)인 시비(是非)만 하고 악의로서 욕하는 것을 지식인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초연히 오불관언(吾不關焉)의 태도를 취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불합리한 것은 합법적으로 고쳐 보아야 할 것이요, 사회, 문화, 정치, 경제의 〈악(惡)〉이 횡행한다 하면 그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자기 주위에서부터 조사 검출하여 올바르게 교정하는 것이 분업적인 책임수행이 될 것이다.

이 책임수행의 적이 곧 과학정신의 상실이라 하겠다. 무목적(無目的) 무창의(無創意) 인습의 묵수(墨守)요, 그것은 곧 매너리즘이라고 일컫는 안일주의이다. 간편한 예가 해방 후 우리는 정치생활에 있어서 실로 무비판적인 생활을 하여 왔다. 부정한 권력이 모든 사회악을 조장하였을 때 그에 편승하고 편승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 원인을 구명(究明)하여 개선에 힘쓰지 않았다는 것은 곧 생활태도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반성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나라를 세웠고 민주주의 현실을 위해서 혁명정부는 수립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국민에게 자각을 주는 큰 충동(衝動)이 되었고 혁명정부의 뚜렷한 목표의 하나가 인간개조에 있음은 명백히 국민에게 과학 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며 분업과 책임 관념과의 관계를 밝혀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불합리와 제약에서 벗어나려고 〈자유〉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수립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이기와 공리(功利)로 그릇 생각되어 우리는 그동안 협동을 잊고 책임을 잊어서 해방 후 16년을 무위(無爲)로 허송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악 조성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명기(銘記)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거창한 혁명사업완수를 앞두고 다 같이 부하(負荷)된 책임감이 이제처럼 절실한 때는 없을 줄로 아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계획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비판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정신을 앙양(昂揚)하여 하나의 물질과 하나의 인력일지라도 총력을 전체계획 수행에 봉사하는 구성분자(構成分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국립도서관장)

통계(統計)와 우리 생활(生活)

우리들은 아직도 너무나 많은 주먹구구식 생활을 하고 있다.
통계는 한낱 숫자의 나열이 아니고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아직도 후진적으로서 정체되고 있는 것도 맹목적인 생활을 해 온 까닭이다.

육지수(陸芝修)

지난 구정을 계기로 쌀값이 등귀(騰貴)하기 시작하여 하루에 2·3백환 씩이나 뛰었다. 일반으로 물가가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할 때이다. 지난번의 미가등귀(米價騰貴)의 원인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쌀의 입하가 순조롭지 못한데 있었다고 한다. 250만을 넘는 서울 인구가 소비하는 쌀은 하루에 대체로 8000석이라고 한다. 이 8000석이 매일 순조롭게 입하된다면 다른 원인이 작용하지 않는 한 쌀값은 오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서울시 당국자는 서울시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쌀의 양을 알아 가지고 이에 순조로운 입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소비되는 양을 알지 못하면 대책을 세울 수 없다. 이 소비량의 산출된 숫자가 아주 비근하게 말하면 통계숫자인 것이다. 좀 더 큰 문제를 생각해보자. 금년부터 우리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중대한 과업에 당면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5개년 간 경제성장을 7·1로 책정하고 있으며 인구의 성장을 2·88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의 성장률 책정이 과연 2·88이고, 책정한대로 경제의 성장이 7·1이 된다면 우리들의 생활은 5년 후에는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7·1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인구의 실제의 성장이 2·88보다 클 때에는 우리들의 생활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인구성장률 2·88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인구의 출생률과 사망률과의 차(差)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매 인구 1000명에 대하여 출생아가 몇 명 이며 사망자가 몇 명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차를 인구의 증가로 보는 것이다. 2·88이란 우리나라에서 매년 인구 1000명에 대하여 28.8명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획대로 간다면 현재의 우리나라의 인구를 2500만이라고 보면 우리나라의 매년 증가되는 인구는 2500만×28.8=70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70만이란 숫자가 과연 정확한가가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출생신고나 사망신고가 정확치 않다. 농촌에서는 심지어 학령에 도달하기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며 출생 후 2,3년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예사로 되어 있으며 사망신고는 출생신고보다 비교적 잘 한다고 하더라도 누락이 많다. 따라서 출생수와 사망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와 같이 부정확한 출생수와 사망 수에서 산출된 증가율이 정확할 수 없다. 그 위에 2500만이라는 우리나라의 인구 총수도 정확한 것이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2,500만이라는 숫자는 1960년 12월 1일에 실시한 인구조사의 결론이다. 이 조사를 위하여 10억환을 초과하는 우리나라의 예산이 소비되었으나 이 조사를 지도한 통계고문단장인 「라이스」 박사도 2500만이란 과소한 숫자이며 자기 견해로서는 2600만 정도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사가 부정확하기 짝이 없다. 이런 숫자에 근거를 둔 2.88이란 신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말한바와 같이 5개년 계획이 예정대로 성공하여 그 성장률이 7.1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인구의 성장이 2.88을 상회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생활은 조금도 향상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과학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면에 있어서 정확한 통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까지 주먹구구식 생활만 하고 있었다. 심지어 정부의 예산편성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우리는 정확한 통계 밑에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통계를 너무나 무시했다. 그러나 통계는 모든 국책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수기(手記)>

연구(研究)하는 태도(態度)로부터

우리에게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한마디로 그것은 <연구하는 태도>일 것이다.

강신표

『머리를 써야지!』라던 어릴적 부터 들어온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도 이제 와서 무엇을 말함인지 짐작이 간다. 퍽 쉬운 말인 듯 하면 서도 부모님의 조력을 받고 보면 언제나 그《머리》가 부족했었음을 보아왔다. 머리를 써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았으나,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를 몰랐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머리》를 어떻게《써야》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곧 그《연구하는 태도》로부터 이해되었어야 할 것인 것 같다.

하루의 일상생활에서, 또 일정기간에 완수해야 할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갖가지 문제를 끊임없이 만나고 있다. 생활에 권태를 적당히 메워주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업의 의욕과 모험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있고, 극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부득이 지워진 문제도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먼저 문제로 삼지 않는데 있어서는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무엇이나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것이다. 연구하는 태도란 먼저

우리가 후진국으로서 아직 정체되고 있는 것도 통계 없는 맹목적인 생활을 해온 까닭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통계가 숫자의 나열이라고 그대로 넘겨서는 아니 된다. 숫자 하나하나를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지금 우리들의 생활주변에 있어서의 몇 가지 통계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신문에 때때로 물가의 등락을 운운할 때 물가지수(物價指數)를 사용한다. 최근에 있어서도 물가지수가 201이 되었다고 보도된다. 이것을 보고 작년 연말에는 198이었던 지수(指數)가 201이 되었으니 3%나 물가가 올랐다고 말하며 1955년 8월에 비하면 물가가 배나 올랐다고 말한다. 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면 「인플레」가 야기 될 테니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는 논의가 활발해진다. 이 물가지수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은(韓銀)은 200여종의 물가를 일일이 1955년 8월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물가가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나를 판단하는 것이다. 학술용어로 말하면 1955년 8월이 기준년도가 되는 것이다. 이 기준년도의 물가를 100으로 할 때 금년 정월(正月)의 물가가 어떤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예컨대 1955년에 백미 한 되에 16000환이라고 하면 금년의 지수는 160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쌀이라는 단 한 가지 상품에 관한 것이지만 200여종에 대한 물가를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하여 그 평균을 내면 우리가 사용하는 소위 물가지수를 얻게 된다. (실제의 물가지수산출방법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하여간 이러한 물가지수를 산출 하므로써 물가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우리들은 매년 9월이 지나면 그해의 미곡(米穀) 예상 수확고(收穫高)의 발표를 보게 된다. 이것은 논에 있는 벼를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국의 논을 전부 돌아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간단하게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자. 지금 전국 모군(某郡) 모면(某面)에 논이 몇 정보(町步) 있는데 그 중 상답(上畓)이 얼마 중답(中畓)이 얼마 하답(下畓)이 얼마 하는 식으로 그 농지면적을 산출한다. 그리고 상답에서는 일단보(一段步)에 얼마를 생산 한다 중답은 얼마다 하답은 얼마다 하는 계산이 산출된다. (이 조사를 할 때는 평예(坪刈)라고 칭하여 실제로 일단 보에 대한 수확고를 산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음에는 상답의 면적과 그 단당 수확량과를 승(乘)하면 상답 전체의 수확량을 제정할 수 있으며 중답 상답의 경우도 동일하다. 그러면 전남 모군 모면의 수확고가 대체로 산출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면마다 실시하면 즉 전체의 수확고를 대체로 추계(推計)할 수 있으며 군의 추계가 되면 도의 추계가 나오고 도의 추계가 나오면 전국의 추계가 가능하게 된다. 이리하여 예상 수확고가 산출되면 인구와 연관하여 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양곡의 부족이 예상되면 해외에서의 수입을 계획하고 남으면 수출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우리나라에는 하절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제방이 파괴되는 예가 많다. 이것은 제방을 쌓을 때에 비에 대한 통계적 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제방을 구축한 것이 그 원인의 하나이다. 만약 통계숫자에 의거하여 과학적으로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가려내고 문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에 업무환경이라는 문제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내가 공군에 들어와 가져본 업무환경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육기관의 학술 교관실이오, 둘째는 공군본부 모참(某參) 모 보좌관실 이오, 셋째는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공군대학 ○○처이다. 업무환경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상의 환경에서 지나온 경험을 토대로 할 것이므로 극히 제한되어 있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힌트란 엉뚱한 것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의외의 사람에게 터무니없는 우연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나는 교관생활에서 부터 바로 작전계획업무로 뛰어들지 않고, 약 7개월 동안이지만 참모연구서를 작성하는 연구업무를 거쳤다는 것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었다. 공군에서 지난 이 기간은 별로 한 일은 없었지만 무엇인가 일하는 태도를 자기 스스로 실천해 본 것이다. 즉 일하는 대상도 중요했었지만, 일하는 방법이 어떠어떠했던가를 별개로 메모해 보았다. 『이 일을 위해서는 몇 개의 단계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① ××× ② ○○○.....』『제한된 시일 내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예정표를 짜 두는 게 좋을 것이다. 그 형태는 다음과 같이 하자.....』『나는 오늘 R대령님과 토의하면서 일하는 절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점을 암시받았다. ①——— ②××× ③△△△△』등등, 결코 이것들은 과제 자체는 아니지만, 이것들을 유의해 오는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이것들을 정리하느라고 일 자체가 다소 늦어진 것이 없지 않았지만, 그 결과 지금에 있어 내가 가지게 된 자신은 어떠한 것이 주어지더라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연장을 쥔 것이다. 공대(空大)에 와서도 이 실험은 계속되었다.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항목별 목록 등이다. 파일 안에는 그 아이템에 관해 정리될 자료가 끼워져 있지만, 어떤 항목이고 표지의 안면에는 『Study memo』라는 것이 일자별로 정리되어 나갔다. 그러는 동안 나는 일하는데 있어 무엇을 몰랐던가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온 것이었다.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파일과 책상위에 있는 카드 박스는 나의 업무환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공대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이러한 원칙을 만들어 벽에 붙여 두었다. 《일은 즐겁게, 처리는 능률적으로》 명랑성과 신속성을 ○○처의 분위기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절대로 그 결과만으로 분위기가 될 리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았다. 그러나 그 표어는 이미 사무실 벽에 붙어있지 않다. 몇 달 전 일이지만 내 스스로 찢어 없애버렸던 것이다. 그 이상 필요 없다고 느껴진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는 자기노력의 의미를 불신한데 오는 반발이었는지도 모른다.

무엇이 안타깝다고? 평생할 일이야? 생각은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교환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생각은 피어올라야 한다. 피어오르지 못하는 사람 속에서, 거기에 젖어들고 교환을 희망하는 생각이 딴 것으로 인하여 차단되고 흐려질 때 하나씩 둘씩 무엇을 잃어갔던 것이다.

업무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다른 하나는 바로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내가 공대를 좋아하는 이유를 들라면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일 게다. 그러나 ○○처에서 나는 많은 체험을 얻었다. 한 사무실의 분위기가 한 사병으로 인해서도 얼마나 바뀌는가를. 전에 있던 병장은 문제를 언제나 논의할 수 있었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꼭 떠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제대한 L병장은 사사건건이 이유요, 까닭이다. 손은 있으되 발이 없다. 의논,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소리를 지르게 되고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헤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해답을 얻지 못했다. 굳이 그 이상의 분위기를 위해서하면.

한편 같이 일하는 장교 간에도 재미있는 콤비로 일을 수행하고 있다. 각기 상이한 일에 특징을 지니고 있다. 거기서부터 이뤄지는 코디네이션은 언제나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상호부조가 된다. 그 밑바탕은 언제나 차이점에 관한 관용과 긍정이었다. 아무튼 여기에서 생겨진 분위기라는 환경은,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이번 새로 온 처장의 업무수행을 뒷받침하는 데는 좋은 파트를 각자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기회를 한 기점으로 새로운 과제를 전개하게 되었다. K소령은 처장과 하급 장교간의 조 규정 작성에는 명수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와 의논해야 할지를 안다. 그러면 K소령과 B중위는 또 하나의 몫을 맡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고 업무란 팀워크이다. 그 팀워크에 있어 리더십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는 똑똑히 보게 되었다. 게시 전에 붙어있기만 하던 주간행사표가 주가 바뀔 적마다 빈틈없이 적혀져 가고, 또 새로운 차트가 많이 붙여졌다.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는 각처 원(員)에게 금주에 자기가 해야 할 과제가 주어진다. 매일 매일의 일과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은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 마디를 맺는다. 시련이 없는 게 아니다. 야근을 위한 야근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장교들 간의 팀워크는, 이룩된 분위기 속에서 며칠 안가서 리더의 아이디어를 무난히 실천해 내는 것이다.

이제 ○○처에는 화분이 떨어지는 적이 없다. 어린 고무나무 한 그루는 언제나 K소령 책상 위에 놓여 있고, 처장 책상 뒤쪽 창가에는 이름 모를 사붕뎅들이 끊일 사이 없이 바뀌어 놓여 지고 있다. 사무실내에 있는 화분이 가져다주는 기분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어떤 취미의 영역을 맛보게 한다. 그것은 새 처장이 가지고 온 선물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까지 나의 사무환경 주변을 소개하였다. 나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팀워크에서 파트를 잘 맡아야만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의 일은 그 파트를 잘 맡기 위해서고, 다시 팀워크의 분위기조성에 참고하고픈 것이다. 팀 리더는 다시 당면한 골(목표)을 거기에 놓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군대생활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며, 또 계속 그렇게 배우게 될 것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꼭 머리를 써야할 게 있는 줄 안다. 문제를 문제로 가려낼 줄 아는 연구하는 태도가 선행해야 할 줄 안다.

(필자·공군중위 공군대학 근무)

제방을 구축한다면 작년의 남원과 같은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하절에 비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 강우에 관한 관측이 불충분하다. 우량의 관측은 대체로 측 우소가 있는 도시에만 있다. 따라서 산간의 강우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산간의 강우는 상당하다. 따라서 만약 어떤 강 상류에 강우량을 매년 관측하여 그 최고최저를 알 수 있다면 가장 많이 올 때 강의 물은 하류에 있어서 얼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하류의 가장 위험한 곳을 가장 비가 많이 왔을 때 몇 둔(屯)의 우수(雨水)가 몇 센티미터의 높이로 흘러간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계산이 나오면 우수의 높이보다 좀 높은 제방을 구축하고 몇 둔의 유수에도 파괴되지 않는 견고한 제방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통계조사가 전연(全然)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통계가 불충분한 것이 작년의 남원의 참화를 가져온 원인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참화를 없애기 위해서도 우리는 정확한 통계를 가져야 한다.

이상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통계가 우리들의 생활에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들이 만약 정확한 통계 없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우리들의 생활은 도저히 향상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이 얕은 생활수준이라는 매너리즘을 탈피하고 좀 더 향상된 좀 더 문화적인 좀 더 인간적인 생활을 향락(享樂)하려면 과거의 주먹구구식 생활을 청산하고 정확한 통계 위에서 생활계획을 작성해야 될 것이며 그래야만 과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서울 문리대 교수)

약이 되는 말

◇자유의 본질은 자기결정(자율)이다. 나는 나 자신을 지배해야 한다. 만약 내가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타인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나의 자유에 창조적인 목적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나는 나 자신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자기결정은 나의 마음을 지나가는 우연적인 욕망에 대하는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매개적인 충동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최악의 형식의 속박인 것이다. 자기결정의 의미로서의 자유는 나는 진실한 자기인 영구한 욕망체계에 의해서 내가 통제됨을 말하는 것이다. 거기서 나는 본연의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거기서 나는 최선으로 나 자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대가능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HJ. 러스키—

◇나는 생각한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 철학적 발견의 9할까지는 실제로 과학자나 철학자나 한밤 두시 혹은 새벽 다섯시 경에 베드 속에 구부리고 누워 있을 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한데 와상술(臥床術)의 중요한 것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도 적은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임어당(林語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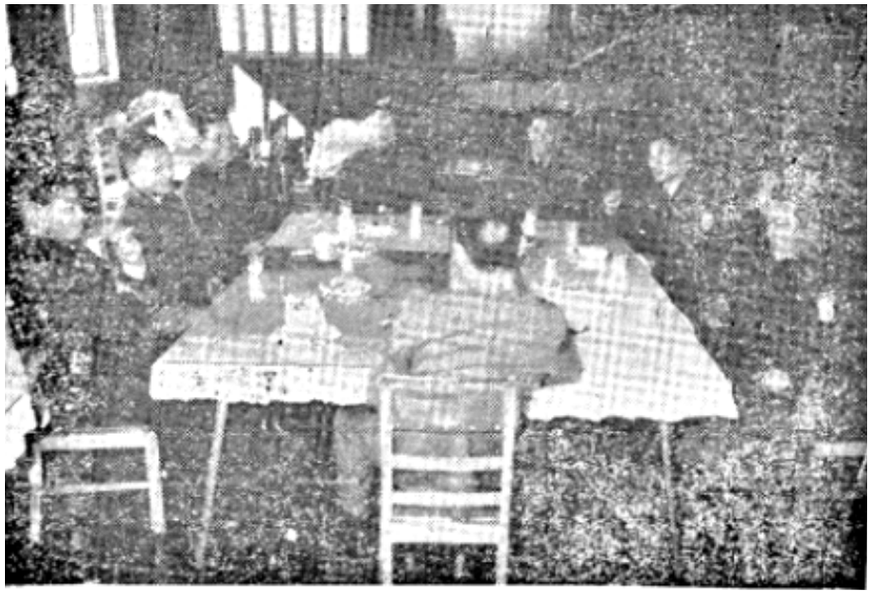
◇세상에는 대낮에 자는 이도 있을 것이요 밤에 자는 이도 있을 것이다. 여기 말하는 잔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는 것과를 동시에 의미한다. 양자는 우연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베드에 눕는 것은 인생최대의 유락(愉樂)의 하나라고 나는 믿는데 이 생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자다. 이와 반대로 그것을 예찬하지 않는 자는 실제는 대낮에 잠자는 패들이다. 낮잠 자는 무리는 도학자(道學者)요 유치원의 선생이요 「이솝」 얘기의 독자다.

—임어당—

◇헝가리 의거에 있어서 민주주의 청년동맹이 내건 요구는 다음과 같았다.

1. 교육의 비(非) 소련화
2. 교과서의 근본적 개정과 대금의 인하
3. 서구제(諸)국 또는 동양에의 학술여행, 유학의 자유화
4. 외국어 수학의 자유 선택화(노어(露語)필수제의 폐지)
5. 마르크스·레닌주의 강좌의 폐지
6. 대학의 완전자치권의 회복
7. 자유시험제도의 실시
8. 기숙사 및 식사의 개선
9. 청년회의의 개최
10. 남녀학생의 군대교육의 재검토(군대시험의 성적을 군대 내의 승진에만 한정할 것이며 일반취직에까지 적용치 말 것) 여학생의 군대교육의 폐지
11. 서구 영화 연극의 상연 상영을 인정할 것
12. 문예작품, 과학저서의 번역 출판의 자유화
13. 영불 등 서구신문 서적의 자유유통
14. 각국과의 학문적 정보, 과학상의 발견의 자유교류
15. 외부세계와의 통신, 여행의 자유화



1기(期)에서 100기까지

여공군의 기합은 꼬집기

꿈은 모두 조종사였는데

사회 오늘 좌담회는 항공병학교 1기에서 100기까지의 출신지의 말을 빌어서 우리 공군이 발전해 온 자취를 더듬어 볼까 합니다. 말로서는 간단하게 100기라 하겠지만 그간에는 대충 1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마 많은 기복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또 하나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선후배간의 의사를 소통하고 후배들에 대한 선배들의 도움 되는 말씀도 들려 주셨으면 합니다.

100기의 영광을 차지한 이 기술 병, 언제 입교했죠?

이종(李淙) 지난 2월 1일입니다.

사회 어때요, 감상이랑?

이종 아직 1주일 남짓해서요. 모든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요. 교관님들도 좋고……내무생활 환경도 깨끗하고……

이갑선(李甲善) 1주일이지만 한달 이나 된 것 같습니다. 실은 아직 얼떨떨해서 어떻다 감상까지는.

사회 그럴 거야. 그럼 대선배인 김수복 대위님께서 입교하시던 당시의 감상을 어디 한번 회상해 주실까요.

김소령 제가 입교한 것은 육군항공병학교 시대였죠. 81년 6월 13일. 지금 생각하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같습니다만. 그때 입교한 동기생들은 모두가 대단한 기대를 가졌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조종사가 되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모두가 비행기 탄다는 생각이었지요.

시일 2월 13일
장소 본주 정훈감실

참석자

제4기 소령, 본부인사국 김수복(金壽福)
제4기 상사, 본부작전국 김형우(金炯佑)
제12기 상사, 제10전비제10정비대대 고동희(高東熙)
제15기 상사, 제10전비무장대대 박해종(朴海宗)
제42기 중사, 제11전비정비대대 김영창(金永昌)
제42기 하사, 제11전비무장대대 최진학(崔振學)
제100기 기술병, 항병교신병대 이종(李淙)
제100기 기술병, 항병교신병대 이갑선(李甲善)
회장 민대익(閔載翼) 대위

(속기 · 유기영)

박상사 제가 입대한 것은 사변 때 였습니다. 15기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대전엔 콘셋트 18개밖에 없었습니다. 특기는 전자계기 관계구요.

사회 김소령님 께서는 주먹밥을 먹었 다구요.

김소령 기가 막혔지요. 입대하자마자 아직 사복 인채로 비상소집—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땐 여자 공군도 한 50명 있었구.

고상사 저희들도 여자 공군과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소령 우리는 여자 항공대 제1기가 배속되어 왔을 때 이 여자공군한테 기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압이란 마구 꼬집는 것이었어요.(소성(笑聲)

사회 많이 꼬집히셨군요.

김소령 나야 꼬집히진 않았지. 달아나곤 했으니까. 그런데 얌전한 친구들은 그대로 서서 꼬집히고는 멍이 든 사람도 있었어요. (소성)

그때 김포공항은 미군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곧잘 여자 항공군 변소에 들어갔다가 꼬집히기도 하구요. (소성)

사회 여자항공대는 그때 뭣을—

김상사 주로 행정훈련을 받았습니다.

김소령 말하자면 멋을 상당히 부렸지. 그때는 공군이 불과 천여명의 병력으로 대전, 대구, 수원, 그리고 제주도의 비행장까지 맡고 있었는가 하면 육군항공대가 공군으로서
독립하는 준비에 바빴어요.
기술계통이 장래성 있어……

사회 김상사는 상당히 고참인데.

김상사 줄곧 공군본부 직활 부대에 있었지요. 대구 경마장 비행장 때에 지원했습니다. 그때는 15킬로, 30킬로 폭탄을 가슴에 안고 가서 적이 보이면 비행기 문을 열고 내려 던지곤 하던 때입니다.

최하사 88년도에 입대했습니다. C-46정비로 배속되었는데 대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김중사 F-51과 86제트기가 교체될 무렵에 10전비로 배속되었습니다. 그땐 마트도 아직 미군 것이 그대로 달려 있었지요. F-86이 들어오면서부터 정비를 했습니다.

사회 F-51은요?

김중사 못해봤어요. 항공병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F-86편대가 머리를 휭—지나갔는데 그때는 놀랐어요. 지금은 정말 그때 비하면 달라졌지요.

사회 고상사는?

고상사 대구에서 후퇴 당시 입대했습니다. 자인 국민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 후 통신학교를 거쳐 육군통신학교에서 동력관계, 발전기 등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후 47,56,42등의 특기부문에 종사했습니다.

박상사 저는 후보생 때 후보생 배지를 달고 일선에 갔었습니다. 그땐 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선조반에 있었는데 하루에 손이 세 번이나 터졌어요. 그래서 하이도롱을 손에 발랐었죠.

사회 그때 한 일은?

박중사 무장이었습니다. 아침 다섯시에 라인에 나갔지요. 그 후 각종 전투는 모두 겪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 받기는 오키나와가 낫더군요. 같은 동양이어서 그런지…….

사회 이 기술병은 입대 전에 뭘 했지요?

이갑선 한양공대에서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이종 저는 서울문리대 정치과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특기는 행정계통을 바라고 있어요.

박중사 하사관은 행정보다 기술을 배워야 장래성이 있어요. 정비 같은…….

고상사 되도록 기술 교육을 받는 편이 좋아요.

이종 특기는 희망에 따라서 부여한다던데요.

김소령 소질에 따라서 부여하기는 하지마는 행정계통과 기술계통을 비교해보면 행정계통은 인원 수요가 적고 기술계통은 많아요. 또 공군은 기술군이기 때문에 기술병을 더 요구합니다.

이갑선 통신, 정비 같은 기술 분야에 가려면 무엇에 주력을 해야 하나요?

김소령 수학 영어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배우려면 어학을 먼저 배워야 해요. 기술 분야에서는 영어를 모르고는 여러 가지로 곤란을 당하게 돼요.

이종 기술계통에는 무슨 특별대우가 있습니까.

박해종 상사

고병희 상사

김형우 상사

김수복 소령

고상사 대우란 기술을 알아준다는 것이 최고의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우리 정비사가 아니고는 좀…(소성)
박상사 정비계통은 물론 고됩니다. 자주 외출도 할 수 없고 하지만 엔지니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 것 문제되지 않아요.
고상사 보통 군대생활은 편하게 해야 한다는 관념에 젖어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도 일제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의 하나이지만…….편한 자리 편한 자리해서 그냥 편하게 지내면 그만이겠지만 군대생활이라 해서 그렇게 허송세월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손해가 되고 말아요. 배워보면 더욱 배우고 싶어지는 것이 이 기술입니다. 미지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은 파고들수록 커지는 것인가 봐요. 앞으로는 항공기, 특히 제트기도 민간에 도입될 것이므로 그때는 우리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3년 복무는 중요한 시기
군문 나설 때 그것을 안다

김상사 아까 편안히 지내는 것을 제일주의로 삼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가령 그러한 자리가 주어진다고 해도 생각할 문제입니다. 또 계급이 높다고 해서 편안해진다는 생각도 잘못이에요.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계급이 높다 해서 뒤에 앉아 손짓이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솔선수범 앞장을 서야 한단 말입니다. 앞장서서 돌진해야 하거 던요.
김소령 내가 인사장교로서 한마디라도 참고가 되고 장래에 유익한 얘기를 해 준다면 좋은 특기, 기술을 배우고 연마하라는 것입니다. 박상사가 말한 것처럼 시간적 제한이 심한 것 같으나 일반행정 계통은 어느 정도 일을 알게 되면 할 일이 없어지는 반면에 기술계통은 배우면 배울수록 일을 알게 되고 그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편한 생활로 3년을 보낸 사람과 기술 분야에 있던 사람이 제대하게 되면 아주 판이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3년 동안에 배우면 무엇을 얼마나 배우겠나 하는 생각이 잘못이지요. 기왕에 주어진 시간을 유효하게 쓰자는 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문을 나설 때 알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인사계통에 13년간이나 종사해서 여러 사람들을 접촉해서 알 수 있겠지마는 제대해서 빠르게 진출한 사람은 대부분이 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송국, 기상대, 영화관계 항공회사 또는 외국관계에 취직합니다. 군에서 착실한 사람은 사회에서도 취직이 쉽다는 증거는 얼마라도 볼 수 있어요. 허무맹랑하게 지난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그 버릇 그대로구—.
김상사 그런데 왜 국가가 기술병들 에게 3년 동안 군대생활 할 것을 요구 하는가 그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군이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을 그대들이 제공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며 이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인 것이지요. 100기가 입대하기 전, 99기까지 고귀한 피와 땀으로서 전통을 세웠습니다. 흔히 전통을 말하면 나쁜 전통만이 눈에 띠기 쉬우나 100기라는 하나의 영예를 차지한 여러분들은 좋은 전통을 발굴하고 발견해서 그것을 키워 나아가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을 것이구 오늘이 없는 내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길지 않은 일생에서 3년이란 기간을 보람 없이 보낸다고 하면 장래에 결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지요. 안일만을 추구하는 자는 어디를 가나 마찬 가지구 그러다 보니 결과는 뻔 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군대에서 뭣 배울 것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은 현대사회에 대한 심한 인식부족입니다. 배워도 배워도 모르는 것이 많아서 남과 경쟁하는데 못 견디는 것이 요즘의 사회가 아닐까요?
그러면 어디 이번에는 군대생활의 추억을 더듬어 보기로 할까요? 어디 김상사, 괴로웠고 즐거웠던 추억을—

전란(戰亂) 전과는 천지의 차(差)

김상사 선배로서 100기의 후보생을 맞았다는 것을 첫째의 즐거움이라 하겠죠. 그러나 아무 것과도 바꿀 수 없이 즐거웠던 추억은 만난을 무릅쓰고 전투시 적기(適期)에 출격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괴로운 것은 한이 없겠죠만 사변 때 북한에서 우리를 그처럼 환영해준 주민들을 남기고 후퇴했던 일입니다.
김소령 나는 2등병에서 소위까지 본부에 있었습니다. 육군 항공대, 시대에

이갑선 기술사

이종 기술사

최진학 하사

김영창 중사

교육을 받고 행정부문에 종사했는데 초창기에 공군 창설식에 공군의 일원으로서 참가했을 때가 가장 즐거웠습니다.
김중사 입대해서 오늘까지 줄곧 정비 분야에서 일해 왔지마는 전력을 다해서도 정비를 시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때면 언제나 슬프죠. 그러나 그 반면 내가 정비한 비행기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기쁨이란 비행기를 끌어안고 키스라도 해주고프죠. (소성) 이것은 기술자만이 느끼고 또 알 수 있는 기쁨이라고나 할까요.
고상사 신병 때 매일같이 엄중한 군기 밑에 병영생활을 하다가 처음 외출했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 없어요. 오키나와에 갔을 때 태평양 전쟁에 끌려 나갔던 소위 여자 정신대 천오백명 중에 한국인 2명이 남아서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나라 없는 백성을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국의 젊은이로서 그분들을 대하기가 무척 괴로웠습니다.
사회 김소령님 한국 공군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본 느낌을—전란 전과 오늘과를 말씀입니다.
김소령 간단히 말해서 사변 전 L형 항공기를 보유했던 공군이 오늘날에는 신예 제트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생각하면 굉장한 발전이지요. 천지의 차입니다.
김상사 사변 당시에는 전차만 보면 후퇴하는 것이 일이었을 만치 대전차 무기란 없었고 나중에 바주카포가 나왔지만 그 전에는 고전(苦戰)이었습니다. 아까 폭탄을 비행기에 싣고 가서 던졌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공격을 탱크에 감행했었죠. 그리고 비행기가 정찰 역할을 맡았는데 탱크를 발견하면 날개를 흔들어 신호를 보내곤 했습니다. 이 비행기 정찰에 의해서 발견된 적의 탱크가 폭발할 때의 그 통쾌함이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대단히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로서 그치겠습니다. (끝)

(P11에서 계속)
시대에 우리의 체면제일주의는 보다 악성으로 변질되고 고질화되었던 것 같다. 자유당 말기에 관료들의 허례허식은 거의 망국적인 것이었다. 겉치레에만 눈이 뒤집힌 시대였다.
가난한 나라라면서 한 쪽에선 체면을 위한 낭비가 맘껏 허용되는 절름발이의 세상이었다. 5·16이후 신생활운동이 맨 먼저 기치를 높인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던 것이다. 허례허식의 그늘에서 아첨과 부정거래가 저질러진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다.
도시에 있어서의 허례허식은 체면보다 이권에 결부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순박한 농민의 무지에서 오는 허례허식은 개인의 부담에 그칠 수도 있다. 무서운 것은 도시에서의 의식적 허례허식이다. 그것은 사회풍조를 어지럽히고 죄악의 씨앗을 배태하기도 한다.
요즘 각 분야의 인재등용에 엄격한 시험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허례허식사상의 말소에 좋은 각성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몇 천 마디 구호보다 허례허식의 폐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는 실력 없이 겉치레만 가지고 한몫 볼 수 있었던 시대는 사라졌음을 스스로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원칙대로 정상적인 것으로 제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이번 혁명이라면 우리들의 비뚤어졌던 마음자세도 정상 위치로 돌려놔야 한다. 허례허식은 분명 우리 조상의 유물에서 온 것이지만 그것을 악용하고 두둔한 것은 우리 대의 잘못이다. 지금 혁명의 시기는 이러한 구악을 몰아내는 데 가장 좋은 찬스이다. 우리의 행동이 한 발 늦으면 다음 세대가 몇 년 몇십년 후진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역사적인 시점에 처한 우리가 선대의 매너리즘의 피해를 그대로 후대에 물려준다는 것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네 마음 한 구석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안간힘 양반」을 장송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필자·경기신문 기자)

망 령 들 의 역 습

-스탈린 격하운동과 흐루시초프의 처지-

그 옛날 중국에는 죽은 제갈량(諸葛亮)이 산 중달(仲達)을 쫓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날, 공산세계에는 죽은 스탈린이 산 흐루시초프를 잡아먹을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흐르고 있다. 그것은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이 의외의 향방으로 흘러 흐루시초프를 역습하려는 운동을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역자)

◇되살아난 트로츠키

까마귀가 자기세력이 우선 강하다고 해서 까치를 보고 검다고 욕질하는 것은 이롭다고는 할 수 없다. 스탈린 정책에 순응하여 스탈린의 죄악에 가담한 흐루시초프가 갑자기 스탈린을 단죄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위험을 각오해야만 하겠는데 잘못하면 그 법정에 나란히 서야 할 운명을 가지는 것이다. 지금 공산세계 내에서는 흐루시초프로 하여금 스탈린의 범죄를 재판하는 피고석에 흐루시초프도 세워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으나 적어도 그것을 안색에 나타내는 사람의 수는 점차 늘어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향방은 물론 소련 자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다른 나라의 공산당들처럼 표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로서 보충하는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은 보충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뒤로 돌리기로 하고 우선 소련 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잡아 보기로 하자.

세계에서 제2위를 차지한다고 알려진 이탈리아 공산당은 최근 스탈린 격하문제를 둘러싸고 미묘한 동태를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 공산당은 문제에 대해서 3파로 분열되었는데 다수파는 당 서기국의 이름으로 「스탈린을 비난하는 것만으로서 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스탈린 시대의 불유쾌한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 스탈린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스탈린을 무조건 숭배하고 찬양했던 이탈리아 공산당 자체가 공동의 책임자가 아닐 수 없다고 단정하는 선언을 당 기관지 「우니따」에 발표하였다. 이것은 바로 스탈린 슬하에서 스탈린을 받들어 일 천만에 가까운 소련 인민을 학살한 방조자 흐루시초프의 뺨을 흐루시초프가 보이지 않는 그의 등 귀에서 갈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 이탈리아 청년공산동맹은 그의 기관지 「신세계」에 「소련식 만장일치를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노예가 하는 아첨이요 스탈린의 부하들의 유산이다. 우리들은 비판할 수 있는 자들이 비판하기를 바라는 것이다.」라는 선언을 발표하여 당관계의 지식인들 사이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각 당 지부 세포 노동조합 등에 일파를 형성하고 있다고 「레키 프레스」는 보도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의 고물 카는 소련의 지휘자들을 향해 스탈리니즘과 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 났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완전한 설명을 요구하는가 하면 국가부의장 오스카 란개는 스탈리니즘의 마르크스주의적 설명을 요구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스탈리니즘이 일어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충실히 이행되었다면 그러한 범죄가 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은근히 라기보다는 정면으로 익살을 부리고 있다. 다음은 소련 내에 있어서의 스탈린 격하운동의 새로운 움직임을 보충해 보기로 하자. 그것은 스탈린에 의해서 추방되고 스탈린에 의해서 암살된 트로츠키의 복원이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소비에트 상층부가 스탈린 비판에 부심하고 있을 때에 소련의 대중들은 트로츠키의 죽음에 의한 반스탈린 운동을 흐루시초프와 결부시켜 「추억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범자(共犯者)는 누구냐?

1956년 2월 24일 심야, 흐루시초프는 제20회 공산당대회에서의 외국 공산당 정식대표를 전부 퇴장시킨 뒤 비밀연설에서 스탈린의 공포정치의 일단을 처음으로 폭로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소련과 소련인민국제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냉혈하고 언어에 절(絶)하는 범죄의 일부, 빙산의 일각에 지나니 않는 것이었으나 미국 국무성에 의해서 발표 보도된 사실이 전 세계를 진감(震撼)시켜 크렘린, 또는 그 밖의 스탈리니시스트 정권을 위기에 빠뜨린 것은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여기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을 발견한다. 그것은 흐루시초프가 56년의 대회보고 연설에서 트로츠키며 지노비에프를 「인민의 적」이라고 불러놓고 10일후의 비밀 연설에서는 「인민의 적」이라고 말한 것은 스탈린이다. 이 같은 용어는 스탈린이 그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장 잔혹한 탄압을 가하는데 이용하였다라고 주석을 붙여 그것을 스탈린에 슬쩍 뒤집어씌우고는 트로츠키에 대한 비난을 구체적 사실을 예거(例擧)하지 않고 되풀이는 하였으나 지금까지 입버릇이 된 악담을 일절 삼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제22차 공산당대회에 이르러서는 단지 한 번 트로츠키의 이름을 들었을 뿐 트로츠키 공격은 고사하고 이미 그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스탈린에게는 최상급의 송사(訟詞)를 바치고 적에게는 최대의 오욕으로서 트로츠키의 이름을 들어 거의 말끝마다 트로츠키 매도를 일삼던 사람들이 이제는 트로츠키의 이름에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적에게는 사악과 혐오의 대명사로서 스탈리니스트의 이름을 오물처럼 내던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흐루시초프는 제20차 공산당대회에서 아직 스탈린의 공적을 십이분 인정했으면서도 제22차 대회에서는 일체 부인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걸쳐 그의 이름을 말살하고 끝장에 가서는 그의 해골마저 레닌묘에서 파헤칠 것을 시위적(示威的)으로 만장일치로서 열의하고 즉시 결행하였다. 스탈린 증오운동이 이같이 광적 소동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대 범죄가 단 스탈린 혼자서 이루어졌으며 또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소련 대중의 의혹을 묻어버리려는 연막은 실패하고 말았다. 아니, 소련 대중은 속아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트로츠키의 복권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히틀러나 일본의 동조(東條)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단 혼자서 전범죄인으로 처형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소련 사람이라고 모를 리 없다. 그들의 운명을 그와 함께 하는 동조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탈린도 그러한 동조자 없이는 그 어마어마한 대 범죄를 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소련인민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 스탈리니스트 관료 중에 흐루시초프가 끼어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방금 소련인민들의 머릿속 에서 태아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로서 보여주는 것이 다름 아닌 트로츠키의 복권인 것이다.

◇80 노파(老婆)의 협박장

제20차 공산당대회 비밀연설에서 흐루시초프는 이렇게 말했다.

「중앙위원회 정치국원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은 왜 개인숭배에 대해서 시기를 일실(逸失)치 않고 반대하지 않았는가? 고 일부의 동지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 투옥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스탈린의 부정이며 부당한 지도방식을 지적한다는 것이 새삼 얼마나 곤란한 점이라는 것을 새삼스러이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고 했다. 즉, 그처럼 위험한 짓을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모두가 천치가 아닐 진데 흐루시초프와 그의 일파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흐루시초프는 「안전할 때만 반대하고 위험할 때는 눈을 감고 아첨하는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로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4명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여 최후까지 전(全)스탈리니스트 관료와 싸워온 사람이 다름 아닌 레온 트로츠키라는 사실을.

(이제 와서 스탈린을 탄압—죽은 자에 매질, 공모자 너 따위 아가리 닥쳐!)

입 밖에 내지는 않지마는 소련의 대중은 이렇게 가슴 속에서 외치고 있을 것이다. 흐루시초프들이 위험을 구실삼아 반대를 회피하고 스탈린에 아첨하여 그의 범죄에 협력하고 있을 때 트로츠키는 죽음을 도(賭)하여 투쟁하였다. 감히 흐루시초프 따위가—

이같은 소련인민의 말없는 항쟁이 커다란 압력으로 흐루시초프 일파를 위갈(威喝)하고 있는 것이다.

흐루시초프는 제20차 대회 비밀연설에서 레닌이 1922년 12월 당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스탈린을 서기장의 지위로부터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뒤 23년 3월에는 스탈린에 보낸 서간에서 그의 처 크룹스카야에 대한 폭언을 취소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와는 절교 하던가 진중히 고려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 레닌은 1921년 1월, 트로츠키와 결탁해서 스탈린 타도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했던 사실만은 밝히지 않았다. 그때, 레닌은 이렇게 지적했던 것이다.

「우리들의 노동자국가는 관료적으로 병들었다. 그 관료화의 대표는 스탈린이다」라고.

트로츠키는 1923년 10월 8일 당중앙위원회에 서간을 보내어 스탈린의 관료화에 경고한 바 있는데 그 서간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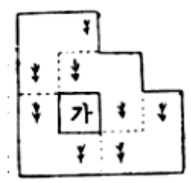
「전시공산주의의 가장 급할 때에도 당에 있어서의 임명제는 현재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46명의 당 지도자가 이를 지지하고 여기서 유명한 좌익반대파가 처음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트로츠키는 멕시코에 망명하면서도 스탈린 타도를 중지하지 않았다. 1937년 2월, 제2모스크바 재판에서 라디크, 비야타코프 등 17명의 볼셰비키 당 지도자들이 제1모스크바 재판과 같이 트로츠키와 그의 장자 세도프와 공모하였다는 죄목으로 고발되었을 때 트로츠키는 미국의 트로츠키 옹호 아메리카위원회가 2월 9일, 뉴욕의 힛포드드롬에 소집한 6천6백명의 청중을 향해 멕시코 시로부터의 텔레비전을 통한 트로츠키의 연설은 세계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멕시코 교외 코요아칸의 집은 스탈린의 앞잡이와 멕시코 공산당원에 의해서 기관총으로 습격되고 8월 20일, 드디어 스탈린의 스파이 잭슨에 의해서 암살되었다. 그 잭슨은 형기가 만료되자 출옥하는 순간, 체코슬로바키아의 외교관에 의해서 비행기로 프라하에 모시었다.
제22차 공산당대회 전후, 금년 80세의 트로츠키 미망인 나탈리아 세도프 트로츠키는 크레믈린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타전하였다.
「당신네들은 키로프 암살에 숨겨진 스탈린의 도발을 폭로하였습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크로츠키와 그의 아들 세도프가 중요한 피고였던 모스크바재판의 완전한 공개조사가 있기를 요청합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G.P.U가 트로츠키에 대해 취해진 수단, 및 그 암살에 동조 협력 또는 부채질한 흉행자(兇行者)들의 완전한 공개조사를 요청합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단지 트로츠키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죄목으로 1935년 체포된 나의 또 하나의 아들 세르게이 세도프의 운명에 대해서 그 전말을 나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나는 레닌이 생존 중에 시작되어 스탈린에 의해서 중지되고 왜곡되고 중절(中絶)되기까지 22원 출판된 레온 트로츠키의 전집을 러시아어판으로 출판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트로츠키 미망인의 요구는 흐루시초프에 대한 하나의 협박장이 아닐 수 없다. 트로츠키 암살에 부채질하고 동조하고 협력한 자는 과연 그 누구였던가? 오늘날 스탈린의 죄상을 폭로하면서 그의 암살을 소리높이 외치는 그 무리는 트로츠키 암살에 있어서 동조하고 협력하고 부채질한 자들이 아니었던가?
흐루시초프는 이미 자기 자신이 만든 시궁창에 자신의 손발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80 노파 나탈리아 세도프 트로츠키가 크레믈린에 대해 그와 같은 대담한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이면에는 흐루시초프가 그에 대해 매질할 수 없는 힘을 이 노파가 어깨에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련국민의 표시 없는 여론이다.
너도 같은 공모자!
흐루시초프가 이 공모자에서 빠져날 길을 발견치 못한다면 스탈린 시대와는 달리 훨씬 개명한 소련국민의 압력에 굴복하는 길밖에는 없을 것이다.

◇밝혀진 것 없는 대 폭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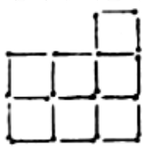
최근, 크레믈린 내에 모종의 암투가 야기되고 흐루시초프의 거동에 미심(未審)한 점이 여러 가지로 보도되는가 하면 스탈린파의 거물 모로토프가 흐루시초프의 죄상을 쥐고 있는 문서를 해외에 보관시키고 있다는 등 자못 소연(騷然)한 풍경을 보이고 있다. 스탈린이 감행한 숙청은 100만을 넘는 당원과 일 천만에 달하는 일반 국민을 희생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역사 최대의 대 범죄가 흐루시초프에 의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스탈린이 죄인이라는 것만을 떠들어댈 뿐 아직까지 하나도 구체적인 전모가 공개된 것은 없다. 1956년을 시발점으로 하는 스탈린주의 비판은 이미 8년이 경과하였으면서도 그 유명한 키로프 사건 하나 그 전모를 밝히는데 극력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만 으로서도 그들이 대회에서 아무리 노성을 높이고 화창(和唱)하고 「기다란 박수」를 보낸다 할지라도 흐루시초프 일파의 스탈린 탄핵은 진실을 위해서 폭로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어째서 스탈린 탄핵을 시작하였는가?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것은 소련국민들 사이에 울적되고 편만 되어 있는 불만과 노염(怒炎),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욕구가 이미 총칼로서는 저지해 낼 수 없는 압력이 되어 위에서 부터가 아니고 밑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즉 크레믈린 관료들도 오천명의 대의원들도 국민의 날카로운 안광을 항시 의식하면서 그 국민적인 노염과 증악(憎惡)에 몸부림치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일체의 책임을 공산주의자들과의 이른바 「우리들의 아버지」 스탈린과 몇 사람의 라이벌에게 다투어 전가시키려는 수작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대회가 이제야 트로츠키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일체의 반 스탈린 투쟁의 상징이 되어있는 트로츠키의 기억이 학생을 비롯한 일반대중의 머릿속에 선명히 소생되고 그의 22권의 저서와 논문이 읽혀져서 관료들에게는 이미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정도로 그의 이름과 이론이 공공연하게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둘도 없는, 증거인 것이다.
이들 학생들과 지식대중들은 대회에서의 연설자들의 심리의 움직임을 심층에서까지 손에 잡은 듯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제22차 공산당 대회의 배경은 이 같은 소련의 학생층 지식층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그 성격을 선명히 들여다볼 수 있다. 즉, 소련 국내에는 56년 대회이래 「공업의 건설」보다는 훨씬 중대한 사실이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학생층, 지식대중이 민감해졌다는 사실이며 자유를 욕구하는 움직임이 현저해졌다는 사실이다. 공산당 신 강령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오늘의 소련 국민은 이미 흐루시초프가 폭로한 스탈린의 공포 정치하에서 습복(慴伏)했던 그러한 중우(衆愚)가 아님을 의미한다. 그들은 공산당 일당정치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님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가슴속에서 생각하고 있다. 공산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수천만의 국민이 생명을 잃고 대전후에는 수백만에 달하는 「노동자 농민의 아들」인 포로가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아사(餓死) 피살 행방불명이 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답을 주지 않고 사회주의를 운운하는 공산당 지도자는 넌센스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모스크바 권력구성에 대한 소련의 국민적 압력은 이번 스탈린 탄핵에 이어 일어난 「트로츠키 추억」을 계기로 더욱 팽창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 「트로츠키 선풍(旋風)」은 최근 각국 공산당에 심각한 동요를 야기시켜 영국 공산당들은 스탈린의 죄악과 트로츠키의 업적에 관한 격렬한 질문 논쟁으로 도처에서 혼란에 혼란을 계속하고 있으며 당 서기장 존 고란은 킹스톤 당집회에서 트로츠키에 대한 질문의 답에 궁한 나머지 「트로츠키에 대한 얘기는 러시아인들이 할 말이며 영국인들이 관여할 바 아니다」라는 기묘한 답을 남기는 사태가 연출되기도 하였다.
(외지(外誌)에서 장세원(張世元) 초역(抄譯))

박사담당

凸凹박사 : 장병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아 뭐라구! 지난번 〔문제 3〕을 풀으셨다구요? 디 푸신 분은 다음 정답과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다구요? 그럼 이미 맞으신 겁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읽은 지 3초 이내로 대답할 것으로 하나.....
【문제1】 100마리의 고양이가 100마리의 쥐를 잡는데 100분이 걸렸습니다. 일곱 마리의 고양이가 일곱 마리의 쥐를 잡는데 몇 분이 걸리겠습니까?
7분 이라구요? 천만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정답은 50페이지에)
【문제2】 어느 담배장수가 1,000환짜리 한 장을 받고 200환짜리 아리랑 담배를 한갑을 팔았습니다. 마침 잔돈이 떨어진 담배장수는 옆집 미장원에 가서 그 1,000환짜리를 잔돈으로 바꾸어다 800환을 거슬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미장원 주인은 1,000환짜리를 은행에 입금시키려다가 가짜라는 것을 발견하고 담배장수에게 다른 돈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담배장수도 그 돈이 틀림없이 자기가 바꾼 돈임으로 할 수 없이 물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재수없는 담배장수는 얼마를 손해 보았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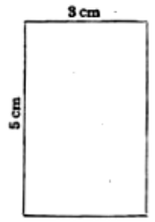


네? 1,800환이라고요? 글쎄요.....
(계산이 되었으면 50Page 해답과 맞추어 보시도록)
【문제3】 다음 그림과 같이 성냥개비로 7개의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3개만 움직여 다른데 놓음으로써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을 다섯 개로 줄여 보십시오. 세 개이상을 움직이거나 떼어낸 세 개를 버려도 안됩니다.



【문제4】 다 푸신 분에게 좀 어려운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알고나면 아주 쉬운 문제이니 미리부터 고심할 것은 없습니다. 성냥개비가 다음 그림과 같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자로 읽으면 VII=II가 되니 불합리합니다. 여기서 =양편에 있는 성냥개비 중 어느 하나를 움직임으로써=가 성립되게 하십시오.
여기 조건은 두 개뿐입니다.
가. 누가 보던지 명백하게(단 중학교 2학년 이상이 보아야 합니다.)

나, ㅊ와 같이 부등식을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렵다구요?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학의 부호를 잘 이용하십시오.
다 푸신분은 원 그런걸 다 어렵다고 하느냐고 웃으실 것입니다마는 아직 쩔쩔매는 분은 어렵고 어려운 문제 일 겁니다.
【문제5】 다음은 간단한 막간물(幕間物)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유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무덤앞에서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이를 보고 그게 누구 무덤인데 그리 서글프게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그 유식인의 대답이 왈"이 무덤의 아버님이 소인 아버지 장인이요. 소인 애비 장인이 이 무덤의 아버님이 올시다."
자 누구의 무덤입니까? 허참 잘 생각하래두.....



【문제6】 자 그럼 이 달의 마지막 퀴즈를 드립니다. 가로 8cm 세로 5cm의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에 당신의 머리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만큼 큰 구멍을 뚫으십시오.
안된다구요? 천만의 말씀... 아무래도 안되시는 분은 궁금하시겠지만 다음호까지 해답을 참고 기다리시도록....

1933년 8월 무더운 어느 여름날, 벌겋게 달아오른 구리덩어리 같은 아침 해가, 오리건 주의 울창한 <틸라무크>삼림을 내려 쪼이고 있었다. 그리고 강한 동풍이 나무로 덮인 태평양연안 산맥의 골짜기와 산마루 사이를 꿰뚫고 지나갔다.

서부해안을 끼고 있는 이 삼림 속에서는, 여름과 이른 가을철이면, 이러한 바람은 습기를 모조리 앗아가면서 이끼와 고사리와 나무 가지들을 스치고 지나가는 불귀신이 되는 것이다.

이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사리가 시들어 버리고, 이끼는 바싹 말라서 부서지게 되어 한 개피의 성냥불로도 맹렬한 기세로 오랫동안 타게 된다.

약 한 시간 좀 전에, 벌목 케이블선이 나무껍질도 없는 고목 그루터기의 거죽과 마찰되면서 흐느껴 우는 듯 한 소리를 내었다.

그러자, 곧 실 같은 연기가 모락모락 하늘로 천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불꽃이 나풀거렸다. 100야드 못 미쳐에 있던 한패의 나무꾼들이 삽이랑 행이랑 도끼들을 들고 달려왔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처음에 피어오른 불꽃은, 바람을 타고서 부싯깃처럼 바싹 마른 벌목더미를 세차게 휩쓸면서, 울부짖는 괴물처럼 불길을 내뿜었다.

해질녘이 되자, 불길은 그 마수를 앞에 펼쳐진 푸른 숲의 장막 속으로 뻗쳤다. 불길은 다시 태평양연안 산맥의 산등성이를 넘어서, 태평양에서 9마일 떨어진 안쪽에 이르기까지, 서쪽으로 23마일을 둘러싼, 빽빽한 원시림의 일대를 들이쳤다.

사나운 불길의 물결은 열나흘 동안에 걸쳐, 제 마음대로 이 무방비의 삼림을 휩쓸었다.

마침내 비와 안개가 내려서 불을 멎게 했을 때는 그 피해가 놀랄만했다.

243,000에이커 이상의 토지가 새까맣게 타서 쑥밭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죽어버린, 마른 그루터기들이 우뚝 선 채로 남아 있어, 마치 화약통처럼 만들어놓았다.

1939년의 산불과 1945년에 또 다시 일어난 화재는, 오늘날 틸라무크의 산불 터라고 알려진 황폐한 지역을 355,000에이커로 늘려놓았다.

산불의 잿더미를 푸르게 만든 이야기

<식목일에 즈음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산불은, <틸라무크>의 울창한 삼림을 황폐한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15년 동안이나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었던 이 잿더미는, 오늘날 오리건 주 주민들의 정성어린 조림운동으로, 어느덧 푸른 옷을 다시 입게 되었다. 우리도 하루 속히 이네들의 정신을 본받아 헐벗은 우리강산에 푸른 옷을 입혀야겠다.

태평양 서부해안에 남아있는 훌륭한 고목 숲 가운데 하나이던, 이곳에 우뚝 솟아 있던 키가 큰 더글러스 전나무, 전나무(당회(唐檜), 독당근, 으루나무 들도 새까맣게 타서 마치 흔들흔들거리는 파수병처럼 로드아일랜드의 약 절반만한 지역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 오늘날 선견지명이 있는 자립계획의 덕택으로, 15년 동안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던 바로 그 땅이, 바야흐로 수천 에이커의 묘목으로 새롭고 값진 푸른 옷을 입어가고 있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이 손잡고 일하고 있는, 하나의 괄목할 만한 변혁인 것이다.

1949년에 이 계획이 시작된 이래, 모두 78,200에이커가 공중 파종되었는데, 이러한 방법은, 이 잿더미 위에서 실험과 완성을 본 것이었다.

나머지 45,000에이커는 손으로 옮겨 심어지고, 또 30,000에이커는 바람과 야생생물들에 의해서, 이웃 삼림으로부터 날아온 씨로서 회복되었다.

이 사업의 일부가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감명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 어린이들도 떼를 지어 일하면서 500,000그루 이상의 묘목을 심었다.

이 가운데 1949년부터 시작되어, 가장 오래된 나무들은 지금 6피트 내지 7피트까지 자라났다.

또 소년단원들도 25만 그루의 또 다른 묘목을 심었다.

일요일이면 이 산불 터 위에서 예배를 올리는 교회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예배가 끝나면, 부인네들은 점심을 준비하고, 남자들은 나무를 심는다.

1951년부터는 오리건 주 형무소에서 선발된 수감자들이, 이 산불 터 위에 지은 특별캠프에서 숙영을 하면서 일을 많이 했다. 그리하여 주지사인 마크 O. 하트필드 씨는

『이 틸라무크 산불 터는 나무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에게도 그 성장을 도와준 기록을 세웠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수백만 그루의 묘목이 이미 땅속에 뿌리를 박았으며, 더 심고 씨 뿌려질 것들은 앞으로 한 두세기 뒤엔 수십억 보드 휘이트(목재의 양의 단위)의 재목으로 성숙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납세자나, 그 세금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는 굉장한 규모의 식목계획인 것이다.

오리건 주의 주민들은 그들 자신이 회계를 치러가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산불은 틸라무크 마을에게는 손해가 막심한 재화였다.

손실된 삼림은, 방 다섯 개짜리 집 150만 채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130억 보드 휘이트의 재목을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 목재의 고장은 군 조세수입의 70%를 조달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재목회사들은 세금 때문에 이 새까맣게 타버린 잿더미 토지를 군에 귀속하게 내버려 두었다.

희망은 오로지 하나였는데, 그것은 폐물(廢物)이용이었다.

서부해안의 밀림에서는 산불이 생나무를 시들게는 했으나, 모조리 태워버린 것은 거의 없었다.

새까맣게 탄 땅속에는 상하지 않은 나무가 남아 있으나, 병과 버러지들이 재빨리 침식하려 들고 있었다.

그리하여 소독작업에 선봉을 서서 움직이도록 민간인 경영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틸라무크 군 당국은 장기 자유 벌채계약을 제의했다.

이러한 유리한 기간에 매력을 느끼고 한 그룹의 경영자들이 자본과 시설을 투자해서 산불 터에 이르는 철로를 부설했다.

통나무를 잔뜩 실은 화차가, 검은 먼지를 바람에 길게 흩날리면서, 제재소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서, 재목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따라서 구매자들은 목재의 품등(品等)에 대하서 훨씬 덜 까다로워졌다.

압축된 장작, 굳은 널판 등등의 새로운 목재의 생산은 불에 타서 별로 쓸모가 없게 된 재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드디어 125명 이상의 경영자들이 이 지역에서 일하게 되었고, 약 670억 보드 휘이크의 불에 탄 원목들이 재목이나 목재생산품으로 변형되었다.

한편, 이러한 폐물 이용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몇몇 사람들은 재식림(再植林)을 생각하게 되었다.

삼림은 오리건 주의 가장 귀중한 천연자원이다.

알래스카 주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주보다도 큰 이 오리건 주의 36,000만 에이커의 상업삼림지대는 당주(當州) 산업 노동력의 63%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물과 철로 톤세 지출액의 75%이상을 계정(計定)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말할 것도 없이, 틸라무크 산불 터의 어린나무들은 오리건 주의 앞날의 경제적 안전을 돕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질과 지세에 많은 다양성을 띄우고 있는 이 광활한 지역의 재식림은 일찍이 생각조차 못한 일이다.

난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폐물 이용작업에 나선 나무꾼들은 산불로 말미암아 바싹 마른 수백만 그루의 나무 그루터기를 걷어 치웠으나, 폐품이용에 적합지 못한 것들은 수백만 그루 이상이 그대로 선 채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생나무에 새겨진 흰 표적이나 또는 나무판대기에 써놓은 표시가 모두 불에 타버려서, 소유지 경계선은 다시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것은 정확한 지도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드넓은 삼림지역의 원주민으로 일찍이 1940년도에 오리건 주 삼림관으로

임명된 넬슨·S 로저스라는 사람은 막연하나마 울창한 새 삼림의 환상을 머릿속에 그려 보았다.
그는 여러 해에 걸쳐서 원상회복계획(재식림계획)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몇몇 목재회사와 소수의 민간지도자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일방 공중들은 1945년에 세 번째 산불이 일어남으로써 틸라무크 산불터 자신이 아쉬운 나머지 손수 로저스 씨의 꿈에다 생명을 불어넣게 될 때까지도 냉담했었다.
이 산불은 대자연이 스스로의 힘으로써 잘 가꾸어 놓은 수십만 그루의 어린나무들을 앗아가 버렸다.
틸라무크 산불 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암담하고 허전해져서 희망이라곤 거의 없었다.
신문의 사설은 노발대발하여 혹독한 논평을 가하였다.
드디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리하여 사태검토의 사명을 띤 한 위원회는 70만 에이커나 되는 주 소유의 산화지역과 벌목지역의 원상회복계획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공채 발행을 권고했다.
북미대륙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흔적 가운데 하나인 틸라무크 산불 터는 모르모트가 되어 이 계획의 첫 대상자가 되었다.
1948년 총선거에서, 국민들은 이 계획을 지지하여, 계획의 재정을 부담하기 위한 재원의 가결을 보았다.
1949년 7월에 이르러서, 이 계획은 공식적으로 착수되었다.
이로부터 두 달 뒤에 넬슨·S·로저스 씨는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는 훌륭하게 자기의 꿈이 진행되고 있어, 결국은 실현되리라는 것을 알고서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이 계획을 주관하는 오리건 주 삼림국은 지금도 로저스 씨의 원 계획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백만 그루의 어린 묘목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실설비가 대폭 확장되어야만 했다.
묘목을, 산에 심어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기르는 데는 이년이나 걸린다.
그리고, 틸라무크 산불터에 대한 어림수를 따져보면, 연간 5백만 그루의 묘목을 50년간 필요로 하게 된다.
손으로 나무를 심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곳에서는, 훈련된 십인조의 인부들이 약 27달러의 임금으로 800그루 내지 900그루의 나무를 심으면서, 한 시간에 한 에이커의 지역을 녹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임업계에 대한 틸라무크 산불터의 주요 공헌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공중파종은 보다 쉽고 값이 싸게 먹힌다.
즉 헬리콥터를 가지면 단 한 사람이 한 에이커 당 평균 단 10달러의 임금으로 한 시간에 240에이커를 파종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잡초가 무성하다든가 하는 지역 등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적절치 못하다.
그러나 산불 터 지역을 실지로 답사한 결과 75,나, 143,000에이커는 공중파종에 의해서 씨를 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씨앗을 충분히 얻어 들이는 일이 무척 어려운 문제다.
원상회복계획 전에는, 한 톤의 나무씨앗을 주문한다는 것조차 일찍이 들어 본 일이 없는 얘기겠지만, 이제 단지 산불 터에만 공중파종하기 위해서만도 40톤의 씨앗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1949년 가을에, 오리건 주 삼림국은 한정된 양의 더글러스전나무와 그 밖의 나무의 씨앗을 공급할 수 있는 단 3개의 상업 상사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12개사 이상의 상사가 있다.
아주 작은 씨앗들은 솔방울에서 받아 내는데, 마치 나무에서 열매를 따듯이 손으로 따서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무꾼들이 잘라 놓은 나무에서, 또는 다람쥐들이 땅 위에다 쌓아 놓은 나무더미에서 받아낸다.
가정주부들이나 어린아이들이 틈틈이 잔돈을 벌기 위해서 가끔 솔방울을 주워 모은다.
그리고 돈을 붓셀(약 두 말 한홉)로 따져서 주게 된다.
바싹 말라서 회전전마기(回傳轉磨機)를 거쳐 나온, 한 붓셀의 솔방울은, 보통 3분의1파운드 내지 반 파운드의 더글라스 전나무 씨를 뽑아낸다.
일찍이 산림 관들은 이 계획의 초기에, 폐물이용벌목이 완전히 끝나서, 산불의 위험이 최소한도로 감소될 때까지는 어떠한 지역에라도, 씨뿌리기나 나무심기를 못하도록 통제해 왔다.
폐물이용에 쓸모가 없어서 자르지 않고 놔둔, 수백만 그루의 그루터기를 지니고 있는, 이 광활한 산불 터는 폭이 1000피트에서 거의 1마일이나 되는 200마일의 천장 없는 복도로 빽 둘러싸여서 구획이 되어졌다.
이렇게 하느라고 근 130만 그루의 그루터기들이 잘려서 치워졌다.
이러한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산불터에는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부 단파라디오를 갖춘 3개소의 경계소가 따로 설치되었다.
또 모두 60명으로 구성된 다섯 개의 화재 진압단이 훈련을 마치고, 장비를 갖추었다.
또한 약 150마일의 근접도로가 건설되었는데, 이 도로는 폐물 이용작업에 의해서 이룩된 수백마일의 벌목도로와 연결이 되어 이 단원들을 20분 이내에 산불터 가운데 어느 곳에든지 다다르게 할 수가 있다.
물 저장탱크와 무전장치가 되어 있는 소방탱크트럭들이 전략적으로 여러 곳에 배치되어서, 전 산화계절(山火季節)을 통해, 항상 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다.
오늘날 원래의 목적을 떠나서, 이 계획의 기획과 훈련 그리고 토목공사의 국면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은 나무를 기르는 일이다.
앞으로 80년 내지 100년이 지나면, 지금 황폐한 잿더미위에서 자라나고 있는 조그만 묘목들이, 이 땅을 물려받는 오리건 주 주민의 새 세대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이고, 수표(手票)를 내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네들도 지금 세대와 같은 산림보호의 위덕을 베푼다면, 틸라무크의 삼림은 인간이 자연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한, 길이길이 용기와 양심의 기념비로써 남을 것이다. (윤주영 역)

내가 만난 잊을 수 없는 군인 ②

어떤 모습

손소희(孫素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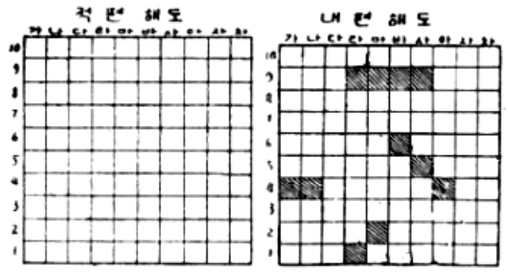
처절한 수난의 6·25—밀리고 미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러나 한편 그것은 우리들 가슴속에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수다(數多)한 이야기들을 남겨 놓았다.
그 중에는 <내가 만난 잊을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군인의 모습도 끼어 있는 것이다.

◇ ◇

6·25전의 어느 봄날이었다고 기억한다, 누가 나를 찾아 왔다기에 나가보니 말쑥한 군인 한 사람이 손에 조그만 사과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어디선가 익히 본 얼굴이기는 한데 누구라고는 얼핏 기억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 망설이고 섰자니까 그는 자기 이름을 대고 모자를 벗어들며 웃었다. 그제 서야 나는 그가 누구라고 알 수 있었다. 해방되기 한 해 전에 보았는데 그때는 그저 예쁘고 착실한 미소년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 집에 찾아 온 것은 그로부터 거 진 사오년은 지난 뒤였다. 당시의 미소년이 늠름한 장교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계급은 중위였던 것 같다.
그 뒤에도 두서너 번 우리 집을 찾아오곤 했다. 그리고 찾아올 때마다 늘 같은 화제를 우리는 되풀이했다. 그의 집안 어른들이 세상을 뜬 이야기며 자기는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시골서 어머니하고 함께 지낸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이러한 이야기 뒤에는 으레 현재의 자기가 하고 있는 군인생활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중 만족하고도 보람 있는 일이라고 그는 군인 생활에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 뒤 6·25사변이 터진 7월 중순께다. 깔 덮펭이에 흰 광목으로 된 고이 적삼을 입고 역시 흰 고무신 차림으로 그가 불쑥 우리 집을 찾아왔다. 가슴이 덜렁 내려앉았다. 그것은 거의 본능적이었다.

영내 놀이

파안자(破顔子)



1. 함대작전(艦隊作戰)

△[개요] 이 게임은 각각 4척의 군함을 가진 피아(彼我)의 함대가 서로 적 함대를 격침시키기 위해 함포로써 교전하는 것이다.
△[인원수] 2명 또는 2편
△[준비할 물건] 종이 2장
이 종이 위에다가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열 칸씩의 정방형(해도)을 두 개 그린다.
△[원칙] ①해도상의 위치는 「가의 1」「라의 5」등으로 표시한다.
②피아의 함대는 각각 네 척의 군함을 가지며 그 종류와 크기 및 포문수는 다음과 같다.
③각 군함이 가진 함포는 침몰할 때까지 발사할 수 있다.

함선종류	대수	크기	포문수
전 함	一척	四칸	三발
순양함	一척	三칸	二발
구축함	二척	二칸	一발

△[방법] 각기 자기편 해도를 적이 보이지 않게 가린 다음 자기편 군함을 배치시킨다. 이들 군함을 배치하는 요령은 자기편 해도 위에 가로 세로 혹은 대각선으로 나란히 그리면 된다. 서로 배치가 끝났으면 곧 전투(게임)을 시작한다.
이해의 편이를 위해 A와 B가 게임을 한다고 하면,
A는 먼저 적측 해도 위에서 적함의 위치를 찾아 조준한 다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함포를 총 동원해서 (최초에는 7발) 적함을 공격하는 것이다.
즉 A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측 해도를 보면서 적함이 가지고 있음직한 곳을 찾아 그곳에 번호 1을 하여 조준(표시)한다. 조준이 끝나면 A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B에게 불러준다(예 나의 5 사의 8 등) B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2개의 해도 중 자기의 함대를 배치하고 있는 자기편 해도 위에 A가 지시하는 데로 번호를 기입한다. (따라서 A의 발사가 끝나면 A의 적의편 해도와의 자기편 해도 위에는 각각 같은 위치에 일곱 개의 「1」자가 기입되어 있을 것이다). A의 발사가 끝나면 B는 자기의 해도상에서 A의 발사로 인하여 명중된 군함의 이름과 피탄수를 A에게 일러준다(전함 1방 순양함 2방 등)A는 B의 말을 받아 메모해둔다. 이로서 A의 사격이 끝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B가 A의 함대를 공격한다. B의 공격이 끝나면 다시 A의 공격이 있게 된다(이때는 2회이므로 피차가 쓰는 번호는 2가 된다)
게임 중 완전히 침몰된 함선은 다음번 사격시에 공격을 할 수 없다. 즉 침몰된 함선만큼의 함포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승부] 이렇게 해서 먼저 적의 함대를 전멸시킨 편이 이긴다.
△[주의] ①사격성과의 보고는 적의 공격이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해야 한다. 따라서 몇 번째의 발사로 인해 무엇이 명중되었는가를 절대로 밝히면 안 된다.
②위치를 부를 때는 발음을 분명히 하여 착오를 막아야 한다.
③함선을 배치할 때에는 각 함선이 따로 따로 떨어져 있게 해야 하며 서로 붙어 있게 하면 안된다.
△[평] 본명이 Swiss Nevy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 게임은 게임으로서 고급에 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함선의 배치를 교묘히 하여 적의 공격으로부터 음폐 되어야 하며 적의 함대를 효과적으로 발견 격침시키기에는 상당한 연구와 작전이 요구된다. 상당히 장시간을 요하는 게임이나(1회 교전에 보통 15~25분)

『어떻게 남하 못했구만』
나는 서둘러서 그를 집안에 들였다.
『전방에서 후퇴해 오고 보니 그만 길이 막혀버렸어요. 어떻게든 남하해야 할 텐데 지금 저까지 세 사람이 우리 부대에서 이렇게 낙오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연방 한숨을 쉬어가며 입버릇같이 <남하를 해야 할 텐데, 해야 할 텐데>를 되뇌이고 있었다.
『무얼 그냥 숨어있지 섣불리 남하하다가 잡히면 어쩔라구—포로 안 된 것만도 다행인데』
되도록 나는 그를 위로해주려고 애썼으나 그러한 나의 말은 들은 체도 아니하고,
『낙오병이 됐으니 꼴이 뭐가 됐습니까. 생각하면 견딜 수 없어요. 이런 전시에 이런 차림을 하고 숨어 다니다니, 자다 깨어나도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에요. 어떤 땐 차라리 행길로 총대를 들고 마구 뛰쳐나가고 싶어요.』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 뇌이기도 했다. 숨어있을 만한 곳이라도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처럼 젊은 사람을, 더구나 그의 경력이 현역장교였다고 알면 아무도 숨겨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 역시 그를 숨겨주겠다고 자청할 수는 없었다.
그럴 뿐 아니라 그 편에서 좀 숨겨줄 수 없겠느냐 요청을 하더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을지도 모른다. 식량도 물론 문제였지만 남의 생명을 맡는 격이 되어 아무래도 거절했을 것만 같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자기를 숨겨 달라고

적탄에 자기의 함선이 피탄 되었을 때의 초조감과 자기의 사격으로 적함이 명중 격침될 때의 쾌감은 경기자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하다.
△[응용] 게임의 변화를 위해 ①포문수를 함선의 크기와 같은 수로 늘릴 수도 있고 ②사격가능 포수를 피격수에 반비례해서 줄일 수도 있다(예 전함 4칸이 3방 맞았으면 한방만 쏘게 하는 등) ③또 구축함 두 척 중 한 척을 잠수함으로 하여 전함 5칸 순양함 4칸 구축함 3칸 잠수함 2칸으로 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2. 비행기 놀이

△[개요] 한 사람씩 눈을 가리고 도중에 있는 장애물을 피해 앞에 걸려있는 세계지도에 자기의 비행기를 착륙시키게 하는 놀이이다.
△[인원수] 10명 이상 20명
△[준비할 물건] ①세계지도 한 장
②참가자의 이름을 적은 종이로 만든 비행기 및 핀(각기 참가자 수와 동수)
③기타, 장애물에 쓸 물건과 수건 약간
△[방법] ①벽에 커다란 세계지도를 붙인 다음 지도 한복판에 이륙장으로써 이 지도 위에 직경 약5~6㎝의 원을 그린다.
②의자, 책상, 가방 또는 바께스 같은 청소도구 등을 적당히 배열시켜 장애물을 만든 다음
③한 사람씩 눈을 가리고 나와 중간에는 장애물을 피해 이륙장에서 될 수 있는대로 먼 거리에 자기의 비행기를 핀으로 꽂아 착륙시킨다.
△[승부] ①중간에 있는 장애물에 부딪히면 추락으로 되어 실격이다.
②지도상의 바다나 호수 또는 강 위에 꽂으면 그 비행기는 행방불명이다.
△[평] 멀쩡한 장님 비행사들이 장애물에 몸을 피해가는 모습이나 엉뚱한 곳에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넌 센스들이 웃음을 만들어낸다.
△[응용] ①장애물들 가운데 인간요격기를 배치하여 도중에서 납치하거나(이들은 두 손과 몸만 움직이고 발을 뗄 수 없다.)
②편을 갈라 말(言語)로 자기편 비행사를 조종케 하여 일종의 계기 비행을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때 조종하는 말을 평상시 사용하는 말과 반대로 하거나 미리 약속된 부호만을 쓰게 하면 더욱 재미있을 것이다.)

3. 간첩 찾기

△[개요] 많은 사람 중에 술래로 하여금 눈치로 간첩을 찾아내게 하는 놀이이다.
△[인원수] 열명 이상 20명 내외.
△[준비할 물건] 번호표, 번호표는 회원수 보다 하나 적은 수로 하고 나머지 하나는 간첩표로 한다.)
△[방법] ①술래를 한 사람 뽑아낸다.
②고르게 섞은 번호표를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자기의 번호를 외워둔다.
③술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지명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번호를 발표케 한다.
④만일 간첩이 지명되면 간첩은 번호를 거짓으로 발표한다.
⑤술래는 몇 사람을 지명하는 동안에 중복된 번호를 발견하면 그 번호를 크게 불러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⑥술래는 두 사람 중에서 눈치로 간첩을 가려내야 한다.
△[승부] ①술래가 지정된 시간 내에 못 찾아내거나
②찾아낸 두 사람 중에서 간첩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
△[주의] 간첩은 거짓번호를 몇 개라도 사용할 수 있으나 일단 말한 거짓 번호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자기 번호표에 기록한다.)
△[평] 간단하면서도 제법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놀이이다.
△[응용] ①술래가 지명할 수 있는 회수를 제한하거나 ②인원이 많으면 간첩 수를 늘린다. ③또 번호 대신 별명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단 이때 별명은 미리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요청하지는 않았다. 그저 남하를 해야겠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다가 돌아가 버렸다.
그 뒤 그러니까 환도하기까지다. 나는 군인만 보면 으레 그 6·25때에 낙오병이 되었다고 탄식을 하던 그 청년 장교를 생각하곤 했다. 9·28전에 남하하다가 잘못되었는지 어쩌면 남하에 성공하여 그의 소망대로 원대복귀가 되었는지, 혹은 원대 복귀에 이어 전방 전투에서 사망했거나 아니면 불구자가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늘 궁금증과 가슴 아픈 것이 한꺼번에 차갑게 가슴속에 담겨져 오기도 했다.
1953년 여름, 그러니까 환도 뒤다. 환도 위에도 때때로 나는 그를 생각했다. 그가 무사히 세상에 살아있으면 예전모양 우리 집에 찾아왔을 것도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사해 버려서 그는 찾아왔다가 도로 가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그랬는데 환도 다음해 여름이다. 어느 날 우연히 나는 버스 안에서 그를 만났다. 계급은 중령인가, 대령인가였다.
그는 예전모양 나를 반가워하지도 않고 좀 어색해하는 눈치 같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석연해하지 않는 이유를 물을 수도 없어, 우리 집 주소를 알려주고 그의 진급을 간단히 축하해 주고 나서 나는 예정대로 미도파 앞에서 버스를 내렸다. 자기는 역전까지 가야 한다고 거주례만은 단정히 했다.
버스에서 내린 나는 그 버스가 떠나기까지 그대로 그 정류소에 서 있었다.

◇어업◇
고래를 마구 생포해 온다

◇공업화◇
벌판에 이런 괴물들이 선다

그때가 환도 일 년 뒤라, 일반 서울 시민들도 전시와 같은 불안한 분위기 속에 살고 있었으며 따라서 군인들의 움직임은 여간 발랄하고 위엄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시기의 영관급 장교가 어떻게 해서 시민용 버스를 탔는지 생각할수록 의심스러웠다. 더욱이 이렇다 할 학력도 경력도 없던 그로서는 군의 고급장교라면 대단한 계급인데 그러한 계급조차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듯한 그의 태도가 나에게 어떤 의혹을 품게 하였던 것이다.

일선에 나가 특별한 전공을 세웠다면 몰라도 사병 출신인 그가 그처럼 속히 진급을 한 것도 나의 의혹을 덧치게 한 첫째 조건이다.

〈혹시 자기만(가짜)의 진급은 아니었을까? 본의 아니게 낙오병으로 몰려 영창 신세를 지고 나온 뒤?〉

이러한 상상을 하며 버스가 보이지 않기까지 그날 나는 그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그 뒤로 나는 그의 소식을 모른다. 길에서도 만나지 못했다. 찾으려면 능히 찾아올 수 있건만 우리 집에도 찾아오지 않았다. 어쩌면 그날의 나의 상상대로 그는 그야말로 자신만이 아는 계급장을 달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 단정한 용모와 부지런하고 착실하던 어린 날의 미소년이던 그가 정말 나의 상상대로 그러한 과오를 범했다면? 그리고 그 과오로 인하여 그는 또 다른 과오를 저지르고 지금도 영창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한강 다리가 끊어져 도강의 길이 막혀 버린 게, 그의 그 왕성한 의욕에 불타던 군인으로서의 앞날이 끊어져버린 동기가 되고 동시에 그가 나라와 겨레에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져 버렸다면, 얼마나 애석한 일일까.

나라의 간성으로서의 의무와 봉사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는 바뀌어 사기와 협잡으로 된 오욕의 자리에서 자유를 잃은 채 아직도 신음하고 있다면 말이다.

만약 동난이 난 1950년의 7월 중순께의 그가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한 말이 모두 사실이고 또 환도 뒤 그의 인상에서 얻은 나의 상상이 제대로 들어맞았다면 그런 경우 그에게 지워진 운명은 그야말로 부조리일 수밖에 없다.

그 자신의 힘으로서는 막을 수 없었던, 그리고 자신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가, 결국은 낙오병의 낙인을 받게 되어, 도매금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결과는 그 억울한 울분이 자포와 허세를 밑천으로 그릇된 세계로 전락해 버린 것이나 아닐까. 흔히 낙오자의 길은 그러한 방향으로 트여져 있기 마련이니 말이다.

이러한 경우 그는 그대로 신을 그것도 지극히 의로운 신을 그의 마음속에 모셔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스스로가 질 수 없는 부당한 조건들이 옳게 참작될 수 없는 인간의 정죄의 도량형은 신의 그것보다 완전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느 영창에서 그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조리와 의로운 신을 가슴속에 모셔두고 있음으로써 마음 편히 지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다가 문득 생각해 보았다.

◇산림녹화◇
리젠트 형으로 할까?
군인 스타일로 할까?

◇광업◇
마구 노다지가 나오는 바람에 철제 우산을 받고 가야지

—◇—

다음은 아직도 그가 현역으로서 군적에 적을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전기한 상상과는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기도 한다.

그가 워낙 착실한 군인이 되어 영광급 장교이지마는 버스를 타는 경우가 흔 히 있는 그러한 장교라고, 그리고 이제는 6·25이전보다 더 많은 아이의 아버지로서 혹은 가장으로서 간혹 시간여유가 있으면 가족끼리의 단란한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옛날에 알던 아주머니를 찾아볼 시간과 성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그것이다. 길에서나 버스나 합승 같은데서 만날 수 없음은 그가 차를 가지고 있는 때문이라고도 생각해본다.

이밖에 그의 군무 주둔처가 서울이 아닌 지방일 수도 있지 않는가? 또 그렇지도 않다면 그는 이미 현역에서 물러나 고향에 돌아가 일하고 있지나 않을까, 그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향토를 지키며 향토문화의 발전과 건설에 군에서 단련된 의무와 봉사의 정신을 발휘 실천하고 있을 것도 같다.

그런 것도 모르고 다만 그의 계급이 영관급이었다는 점과 그러한 그가 버스의 손님이었다는 점과 예전같이 나를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본 결과 그 괴상한 상상을 이따금 하고 앉았는 내가 아무래도 비정상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상상이란 어디까지나 상상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만약 환도 다음해 여름에 그 버스 안에서 내가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나는 그처럼 여러 모로 그에 대한 상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행여 이 글을 그가 읽어 본다면 그리고 그가 한 번도 그러한 오욕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속으로 얼마나 웃을까.

제발 그가 이 글을 읽고 우스워서 소리를 내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나는 빌고 있다. 더욱이 그가 현역 고급장교나 혹은 그보다 윗 계급의 경우라면, 그는 이 글을 읽고 더욱 높은 소리로 웃어주기 바란다.

(필자·소설가)

△지도에도 없는 땅

그리스의 대부호 아르키비아데스가 하루는 대철학가인 소크라테스 앞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얼마나 광대한가를 자랑하며 한바탕 늘어놓았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세계지도를 그의 앞에 펼쳐 놓더니,

『그러면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토지는 어느 근방에 있소』

하고 물었다.

대부호인 아르키비아데스도 그 말에는 당황하며,

『농담은 마시오. 내 토지가 아무리 광대하기로서니 세계지도에 오를 리야 있겠소?』

하였다. 거기서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그러나 타이르듯이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아니, 지도에도 없단 말입니까? 지구의 일부도 아닌 그까짓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토록 감히 뽐낼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지식인은 혁명과업의 역군으로서 바통을 받아 달리라.

일반적으로 정치는 플라톤 시대부터 철학적인 지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상 정치가 구체화되는데 있어서는 지식인들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를 막론하고 「티눈에 가시」처럼 돌림받기가 일수였고 회의와 주저의 의지박약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지성인에 대한 인식은 관념적인 일반개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상 지성인이란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대와 사회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의 다른 구성분자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거나 더 많은 지식을 가졌으므로 해서 행동하기 전에 이에 수반되는 제반조건들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이들이 속하는 시대와 사회는 이들을 가리켜 결단력이 약하고 모든 것에 주저하고 회의하는 사람이라고들 일컫는 것이다.

이제 재건국민운동이 본 궤도에 들어가게 된 단계에서 「군사혁명을 국민혁명으로 성공시키는 길은 오로지 덕과 지성으로 인간개조를 하는 길이다」라고 외치는 동시에 「이번 혁명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여기에는 반드시 지성인이 혁명완수에 동원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부르짖는 것은 즉 혁명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이 지성인의 어깨에 걸려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주저와 회의만을 일삼는 사람은 참된 지성인이 아니다. 비겁한 기회주의자이거나 기생충적인 존재일 것이다.

보다 깊은 사고를 위하여 실천의 시간을 늦추는 것은 보다 자신 있는 실행을 위한 것일 테지만 그러나 사고에만 그치고 행동이 없는 사람은 참된 지성인이 아니다. 백일몽을 꿈꾸는 몽유병자와 같은 신경이 불건전한 환자일 것이다.

62년도에는 혁명과업의 역군으로서 모든 지성인이 바통을 받아 돌격 매진하여야 할 해라고 생각되며 참된 인간개조는 참된 지성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대한일보 1월 27일)

울산 공업지구 건설기공식의 의의(意義)

소백산맥을 물줄기로 하는 태화강이 삼각주를 이루고 있는 동해안 남쪽 울산평야에 총 5천만평 가까운 넓은 지역의 현대적인 공업중심지대를 건설하자는 역사적인 기공식이 2월 2일 거행되었다.

정부의 동 지구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석유정제공장을 비롯해서 석유화학공장 그리고 종합제철공장, 화학비료공장과 화력발전소 등을 신규 건설할 것으로 되어 있다.

동 지구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되는 날 울산은 석유, 철강, 화학공업제품을 대량으로 제조 산출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지대가 될뿐더러 인구 50만명을 헤아리는 현대적인 공업도시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현대적인 「공업지대」란 선진 각국들이 그들의 국력의 표상으로서 자랑하는 그것이고 후진적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립경제로의 「도약대」로서 소원해온지 오래된 이상도(理想圖)였던 것이다.

물론 우리가 바란 것은 저 대 미시간 호변 지대같은 대공업지대도 아니었고 루르 또는 맨체스터나 일본의 북구주지대(北九州地帶) 같은 초 특대판의 그것과는 규모를 달리하는 것이며 다만 우리가 바란 것은 식민지형 파행구조에다 공업지대인 북한마저 상실한 형편 아래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립경제를 위한 중공업적 기반을 갖추자는 것이며 구각(舊殼)을 박차고 벗어나기 위한 국민경제의 몸부림인 것이다.

철이 없이는 일체의 건설이 불가능한 바이고 나아가서는 기계공업이나 선박공업도 존립할 수 없으며 석유정제 없이는 비싼 외국 석유를 사 쓰게 될뿐더러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려 하고 있는 석유화학공업에 대한 가능성은 닫혀져 끝끝내 제3류 산업국가형을 불면(不眠)할 것이기 때문에 만난(萬難)을 무릅쓰고라도 우리는 새 울산공업지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 오랜 염원이던 공업화에로의 지름길로서 우리의 꿈은 부풀어 오르고 있다. 대형석유 「탕카」가 안벽(岸壁)에 닿고 제철공장에서는 쇳물이 흘러나오고 비료더미가 산을 이루고 이를 둘러싼 연관 산업이 집단으로 일어나고 물건과 사람은 부산경공업지대를 쉴새없이 왕래하고 북으로 삼척공업지구도 더불어 활기를 띄게 되는 날 우리는 자립부강의 확실한 명일(明日)을 전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일보 2월 2일)

생활혁명(生活革命)의 일부분으로서의 「미신(迷信)타파(打破)」

인간이란 역경과 비운에 당하면 자위를 얻자는 미지의 희망에서 미신에 도취되는 것이 보통 심리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부적 따위로서 재액을 예방하고 신수를 점치는 등 무복(巫卜)의 집을 드나든다고 하여 불운이 통운(通運)으로 바뀔 수 없을 것이며, 또 화가 복으로 변해질 수도 없음은 소연(昭然)한 이치다. 더욱이 액해(厄害)를 피하기 위해서 기원 또는 치성 같은 것만을 한다는 것은 아까운 재물만을 헛되이 소비한다는 점에서 결코 잘 한다고 할 수 없는 우사(愚事)에 지나지 못한다.

이 양재(禳災)와 방액(防厄)을 위한 풀이에 자명(藉名)하고, 우리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뿌리고 있다. 그것은 넉넉한 집안의 경우에서도 모르겠는데 구차한 사람의 처지에서 빚을 내고 물건을 팔아서까지, 그렇듯 무모지극(無謀地極)하게 미신을 위한 거액의 소모(消耗)를 한다는 것이야말로 『파산을 각오한 자살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도 그러려니와, 그 같은 우속(愚俗)은 개화된 국민으로서 하나의 큰 치욕이면서 또한 사회의 풍조를 어지럽히는 죄악도 적지가 않다. 그뿐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상으로도 나쁜 저어신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국민교육상 용서받지 못할 죄과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때 복무(卜巫)를 생업으로 삼는 그 사람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숭상하는 자신들이 단연 자각할 필요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우리의 신생활운동은 비단 의, 식, 주의 면이나 예의, 도덕적 면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모든 습속 가운데서도 미풍양속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을 가릴 것 없이 하나하나 뜯어 고쳐 나가야만 한다. 우리가 허례 폐지를 주장한다고 할진대 이 미속(迷俗)도 그와 함께 뿌리를 뽑아버려야 할 것은 당연한 순서가 된다. 우리의 입고 먹고 거처하는 풍습은 문화양식을 찾으면서 만약에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일체의 미신행위를 깨쳐 파묻지 못한다면 신생활운동이란 그 참된 의미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실천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혁명 가운데서 「습속의 혁명- 즉 「미신의 타파」도 중요한 일부로서 다루어져야만 되겠다고 강조하고 싶다.

뜨거운 영하 12도

-한 해병장교의 「인간」의 승리와 아문센 정신-

살 얼음속에 빠져 자살하려는 청년을 이른 아침, 지나가던 해군장교가 영하12도의 기온 속에서 그대로 물에 뛰어들어 위기일발에서 목숨을 구해 주었다는 보도는 열천(熱泉)의 파문이 되어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해준다. 용감한 국군용사의 이름은 해병제2훈련단 소속 권태휴(權泰烋) 중위다. 그는 머리끝만 물에 솟았다가 가라앉았다 하는 투신자를 발견한 순간, 50미터가 넘는 경사지를 내려가 옷을 입은 채 살얼음을 뚫고 물에 뛰어들어 구출하였다. 구출한 뒤에 처리도 침착하여서 통근 버스에 투신자를 싣고 교통병원에 입원 가료(加療)했기 때문에 투신자는 완전히 회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권중위의 미행(美行)은 예리, 용감, 민첩, 침착이 순시(瞬時)에 같이 작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위급함에 용감성을 발휘하여 죽음 직전에 인명을 구출한 사례는 미담으로서 허다하게 남아있다. 그중에서 가장 세인의 기억에 남는 큰 사건은 1928년 5월, 이탈리아의 탐험가 알베르토 노빌레가 북극 탐험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비행선이 빙하에 충돌하여 일행 8명이 조난한 일이 있었다. 이때 노르웨이의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 솔선 구출에 나섰다. 그러다가 도중에서 아문센이 탑승한 비행기가 농무(濃霧)로 인하여 불시착을 하고 말았다. 이때에 57세의 초로(初老) 아문센은 단신으로라도 노빌레를 구출하려 노력한 끝에 마침내 행방불명이 되었다.

아문센의 미화(美話)와는 비록 규모는 작으나, 권중위의 정신과 서로 상통한 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아문센의 의거는 당시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탈리아를 비롯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등 각국에서 비행선, 비행정, 선박들이 노빌레 구출에 출동되었다. 장서(長逝)는 했으나 장려(壯麗)한 죽음이었다.

권중위의 경우는 아무도 모르는 외딴 곳에서 오직 열혈로서 감행된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영하12도를 꿰뚫은 인류애의 승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국일보 1월 14일)

별은 떨어졌어도 「샛별회」는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젊은 박승식(朴勝植)의 죽음을 애도함-

지난 1월 30일 밤의 수려선(水驪線) 동차(動車) 전복사고의 후문으로 알려진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부락의 샛별회의 젊은 지도자 박승식씨의 죽음은 그와 더불어 내 고장을 부강한 이상촌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샛별회의 회원들의 슬픔에만 그치지 않고 농촌의 참된 발전을 염원하고 그것을 위해 정력을 쏟고 있는 수백만 젊은이들의 애절한 슬픔이 아닐 수 없다. 「이상의 마을」 건설을 눈앞에 두고 약관 30세로 뜻하지 아니한 참변을 당한 것에 대해 애석을 금할 길이 없다.

그가 생전에 한 것으로 알려진 일들은 예컨대 샛별회의 조직, 수많은 농촌문고의 설치와 운영, 야간학교의 설립 등 그 하나하나가 헌신적인 노력과 꾸준한 실천 없이는 결코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그가 이와 같은 헌신을 통하여 이룩해 놓은 가장 커다란 유산은 무엇보다도 먼저 농촌청년들 가운데 보석과 같이 빛을 발하는 40여명의 자체지도자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일 것이며 그들이 있는 한 태평리 부락과 전국의 모든 마을들은 그의 말대로 「어두운 곳에서만 빛을 낼 수 있는 샛별」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진다.

왜냐하면 그는 샛별 회를 조직하고 그들의 앞장에 서서 일하였지만 결코 그들을 몰아내듯 지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과 더불어 일하는 가운데 그 전원과 부락사람들 하나하나를 모두 지도자로 만들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강제도 없고 정부나 외부로부터의 도움만을 기다려서 게으름을 필 여지도 없다. 고인은 죽기 3일 전에 「올해에는 2천5백평의 부락회관과 덴마크식 국민고등학교를 세워야 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샛별은 떨어졌어도 이 마을에 그리고 전국의 곳곳에 그의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울신문 2월 3일)

민철웅(閔哲雄)

안익태(安益泰)씨 지휘 시립
· KBS 교양향악단(交兩響樂團) 합동연주

음악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작곡한 세계적인 지휘자요 작곡가인 안익태 씨가 34년 전에 고국을 떠나 마침 세계일주 도상에 이번 세 번째로 고국을 찾아왔다. 그는 지금 스페인의 마요르카 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있으면서 세계 각국의 유명한 교향악단을 지휘하고 그의 지휘자로서의 능력과 작곡가로서의 재능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번에 고국을 방문했을 때 들려준 그의 작품「한국 환상곡」은 한국의 민속음악을 바탕으로 만들은 것으로 우리국민들을 감개무량하게 한 바 있었거니와, 온 세계에 우리민족과 민속음악을 골고루 알려주기도 했었다.

이번 세 번째로 귀국한 그는 1월 11일에 서울시민회관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KBS교향악단의 2대 교향악단 합동연주 지휘봉을 잡았다. 공연무대에서의 그의 절대적인 통솔력과 음 하나하나에 맺혀 있는 그의 정렬은 넓은 무대와 객석을 꽉 잡아주었으며 시종일관 그의 진지한 예술의 발로였다고 본다. 같은 악기 같은 악사라 할지라도 전체음악을 이끄는 지휘자에 따라서 전혀 느낌이 다른 음악이 생겨나는 것은 마치 모든 국가 사회단체와도 같다 하겠다. 당일의 연주를 프로그램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곡목 베토벤 작곡「레오노레」제3번은 단 하나밖에 없는 베토벤의 오페라「피델리오」의 서곡으로 이 오페라에 4개의 서곡이 남아있는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곡이다. 서주부의 느린 속도는 무게 있고 안도의 감을 주는 연주였으며 빠른 속도의 소나타 형식 부분은 각 동기를 잘 살려주었다. 많은 인원 편성이나 지휘자의 확고한 통솔력으로 전체 융합된 연주였다. 둘째 곡목 안익태 작곡 교향시곡「강천성악(降天聲樂)」은 동양적인 민족예술을 바탕으로 하여 작곡한 것으로 우리 민속음악을 서양음악 기법으로 작곡해서 세계에 선양하는 좋은 방법이라 믿으며 욕심 같아서는 좀 더 한국 고유의 리듬이나 멜로디를 짙게 다루었으면 좋았겠다. 셋째 곡목, 안익태 편곡의 바흐 작곡 토카타와 푸가는 안익태씨 작곡기법의 바로미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세계적인 작곡가로서의 그는 이 곡에서 관현악기법의 묘기를 충분히 들려주었다고 본다.

끝으로 베토벤 작곡 교향곡 제5번「운명」은 베토벤이 가장 원숙한 시절에 작곡한 것으로 우리나라 청중들도 너무나 잘 아는 곡목임에 여러모로 관심과 기대가 컸다 하겠다. 정렬과 극적표현을 잘 발휘한 만족한 연주였다고 보며 익숙한 솜씨로 지휘에 따르는 교향악단원 여러분도 시종일관 자아에 도취됨이 없이 올바른 베토벤을 재현했다고 본다. 간혹 연주 도중 지휘자의 지휘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통솔키(이끌기) 위해 신경질적인 표정이나 지휘 장면이 있기는 했으나 지휘자로서의 확고한 통솔력과 정력, 그리고 음악의 재현을 본받을 바 크다고 본다.

바이올린의 신기(神技)
크라이슬러의 별세

1875년 2월 2일 비엔나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 19세기 말기와 20세기 초의 바이올린 신기로 온 세계인으로부터 사랑과 동경을 받아오던 크라이슬러가 향년 88세로 올해 1월 29일 미국 콜럼비아 장로교 메디컬센터 병실에서 별세했다. 사인은 노령에 따른 심장마비였다니 인생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며「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선현의 말과 같이 그는 죽고 없어도 그가 남긴 많은 작품과 바이올린 음악은 오래오래 남아있게 될 것이다. 크라이슬러는 바이올린에 뛰어난 기교를 가졌을 뿐 아니라 작곡에도 뛰어난 작품들을 남겨 놓았고 더욱 대중들 가슴에 깊이 파고드는 음악을 많이 남겨놓은 것이다.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곡은 물론 실내악곡, 오페레타 등이 있으며 대중을 위한 무곡 등도 있다. 그가 연주한 레코드로 우리는 늘 그의 바이올린을 들을 수 있으니 더욱 뜻깊었던 것으로는 지금부터 39년 전 우리나라 서울에 와서 공연한 바 있다는 점이다. 우리 양악의 요람기였던 그 당시의

수상

어느 병사의 죽음

현석(玄石)

삶의 악착스런 미련이 입가에 감돌던 병사의 가슴위에 이제 깨끗한 한 폭의 태극기가 식어져 가는 심장의 피를 덮고 아깝게 숨진 젊음의 한과 조국통일의 숙원을 간직한 채 숨지던 날.....

햇살이 비치는 병원에는 어두운 침묵이 감돌고 누구하나 애통함 없는 죽음 앞에는 푸른 전우의 제복이 어른거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내가 입원한지 2일째의 일이었다.

하나, 둘, 나무다리, 콘크리트의 팔 그리고 기동할 수 있는 환자들은 그 곁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가고 말았어.....』

하나, 둘, 허탈한 말투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러운 흐느낌이 아니다. 분명 그것은 어떤 분노와 울분에 떨리는 음향들이었다.

잠잠했다.

야릇한 공포에만 떨고 있던 나에게도 공공의식의 거센 폭풍은 심장의 피를 솟구치게 했다.

나는 굳어진 그의 팔을 잡았다.

차다!

아무 움직임도 없다.

젊음과 죽음에 대한 분노의 피가 금세 나에게도 파글파글 끓어 넘쳤다.

그의 열연이 생각키에도 장한 일이다.

영화

임선영(林線瑛)

초대작(超大作) 벤허

우리나라에는 두 번째로 소개되는 70밀리 대형영화로 루 윌레스 장군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칼 단버크가 각색, 윌리엄 와일러가 감독했는데 영화사상 볼만한 가치가 있는 대작이다.

총제작비 1,500만불, 동원인원 15,000명-도대체 믿기지 않는 이 거대한 숫자를 미 MGM영화사는 이 매머드 영화에다 투기적 출자를 하여 벤허를 완성한 것이다.

정확한 상영시간 3시간 32분에다 가난한 자, 돈 많은 자, 잔혹한 자, 친절한 자, 사랑하는 자, 미운 자, 흉폭한 자, 노예로 고생하는 귀공자의 인생을 선명하게 수록했다.

애기는 1세기 초 로마의 지배로 탄압을 받고 있던 예루살렘에 이 고장 출신이나 이제는 로마의 충실한 지휘관이 된 메살라(스티븐 보이드 분)가 새로 부임돼 오면서 시작된다.

메살라와 예루살렘의 귀공자 벤허(찰튼 헤스턴 분)와는 과거에 절친했던 친구로 15년만에 기쁨의 상봉을 하게 되나 자기민족의 비운에는 아랑곳 않는 입신출세주의자 메살라와 유태민족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벤허와는 벌써 융합치 못한 감정이 대립되고 있었다. 여기서 로마의 충성을 거부한 벤허는 메살라의 흉폭한 모함으로 노예선으로 추방되어 인간 이하의 고초를 겪게 되고 그의 어머니와 누이동생은 문둥병에 걸려 나병환자들이 사는 계곡으로 추방된다. 노예선에서 우연히 로마군 사령관을 사경에서 구출한 은공으로 벤허는 다시 평민으로 되돌아와서 통쾌한 복수를 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문둥병을 고치게 된다는 것인데 윌리엄 와일러 감독은 이 종교취(宗教臭) 풍기는 복수모험담을 통하여 인간의 고뇌와 인류애를 그려나가면서 요소마다 적당한 신파를 배합하여 대중상대의 오락물을 만들었다.

개막 전에 약 5분간 서곡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성화의 애기가 프롤로그로 나온 뒤 타이틀 백이 나오는데 MGM사의 사자(獅子) 레오3세가 전혀 짖지도 않고 고개도 안 움직이는 것이 타 MGM사 작품과 다르다.

이 영화의 적정인 전차경주 장면은 관객을 흥분과 긴장으로 이끌어 들이는데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그 많은 돈과 인원이 동원된 모양이다. 이 알맹이 장면만 보면 이 영화에서 볼 것은 다 본 것이 된다.

『아파트의 열쇠를 빌려 줍니다』
서민사회의 이면을 예리한 코미디 터치로 그려나간 인간희극

윈 태생의 빌리 와일더 감독은 여기서 3등 시민의 비애와 환희를 섬세하게 연출했다.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등 6종목에 걸쳐 수상한 이 흑백 시네마 스코프도 대작 벤허와 맞서는 작품인데 벤허가 외형적이며 물질적인데 중점을 두고 만든 영화라면 이 영화는 적나라한 인간 대 인간의 생생한 표현을 그린 작품이라 하겠다.

3만 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뉴욕의 대 보험회사의 3등 사원 쟉 레몬은 묘한 부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업이란 아파트의 자기 방 열쇠를 사회와 가정의 눈을 피하여 안전(?)하게 밀회의 정사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상사인 4명의 과장에게 빌려주는 것인데 이 공(?)으로 그는 꿈에도 바랄 수 없었던 간부급으로 승진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자기가 은근히 사랑하던 엘리베이터 걸인 샤리 막레인이 바로 쟉 레몬 자기 방에서 상사인 인사부장과 밀회를 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 울분과 비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쇼크를 받은 레몬은 모처럼 승진한 높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데 이러한 레몬의 용단으로 진실한 애정을 느낀 막레인은 레몬의 품에 안긴다. 이리하여 이 두 명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신세지만 진실한 애정을 찾았으니 해피엔드가 된다. 그러나 얄팍한 현실사회를 보고 난 뒤끝이라 우울한 여운을 남겨주는 예술영화다.

「잃어버린 주말」,「선셋 대로」,

「제17포로수용소」, 「뜨거운 것이 좋아」 등으로 인간사회의 취한 이면을 대담하게 그린다는 정평을 받은 빌리 와일더 감독은 구질구질한 독신자의 아파트, 그리고 미국 판 대포집을 무대로 웃음 속에 넘쳐 흐르는 페이소스를 연출했다.
 쟉 레몬, 샤리 말레인이 모두 구김 없는 연기를 보여주는데 이 두 배우는 모두 아카데미 주연후보에 올라서 최종까지 예측을 불허했으나 아깝게도 쟉 레몬은 엘마 칸트리의 「버트 랑카스타」에게 패하고 샤리 막레인은 「버터휠드 8」의 리즈 테일러에게 패했던 것이다.

정완재(鄭完在)

방송

방송의 신기운(新氣運)

 국영텔레비전 KBS TV가 새해 들어 정규방송을 시작하고 국제 방송국이 남산 중턱의 방송센터로 이사를 하면서 국영방송 KBS는 눈부신 발전의 일보(一步)를 내짚었다. KBS의 방송기구가 확대 정비 강화되어 방송청이 서게 될 것이라고 하며 서울중앙방송의 제1방송(KA)와 제2방송(SA), 국제방송(CA) 그리고 텔레비전(CK)이 상호연관성 있는 입체방송이 방송프로 개시와 함께 본격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1962년은 방송황금의 해가 될 것이다. 여기서 KBS의 확장설계도를 살펴보기로 하자.

☆TV방송

 남산 정상에 높이 70미터의 텔레비전 송전탑을 가진 KBS 텔레비전 송신소에서는 서울 근방 서비스 에리어의 시청자를 위해 매일 4-5시간 초단파를 TV채널 9로 송신하고 있는데 이 송신탑은 불과 70미터밖에 안되나 자연적으로 유리한 송신조건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송신탑은 남산의 높이까지 계산한다면 높이 326미터의 송신탑과 동등한 것이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송신탑이 되는 것이다. (파리 에펠탑의 높이는 300미터)

☆SA의 교육방송

 서울 국제방송국이 남산으로 이전하게 되어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스튜디오를 CA에 임시이전하고 휴업에 들어간 SA가 3월 1일부터는 도회인(都會人)을 상대로 한 교양프로만을 가지고 등장하리라고 하는데 특히 음악분야의 방송에는 완벽한 편성을 꾀하고 있다. 문학, 음악, 영화, 미술, 출판, 무용, 연극 등 예술문화의 움직임을 항상 파악할 수 있는 「SA살롱」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학계의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어 나가는 「시사대담」 등 수준이 높은 프로가 생기어 지식증의 마음의 양분을 방송할 것이다. 음악프로로서는 과거에 나가던 프로 외에 「현대음악의 밤」 「코러스 코너」 「상송 앨범」 「재즈타임」이 탄생할 것이며 「SA시네마」와 같은 색다른 영화 해설프로, 「무대중계」 「명작극장」 따위의 새로운 연애프로의 신설도 시도되고 있다.

☆개편될 KA「골든 아워」

KA의 골든아워가 대폭적으로 개편되어 보다 국민과 직결되는 방송프로로 편성될 것이다. 농촌을 대상으로 한 위안 프로가 강화될 것이며 방송 연륜이 깊은 「직장음악」프로가 앞으로는 기획 프로로 바뀌어 연속낭독, 촌극, 대중가요, 국민가요, 가요 등으로 엮어서 직장인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대공(對共) 및 승공(勝共)선전활동이 강화되며 특히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활발한 실천을 위하여 뒷받침으로 각 부분별 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르는 반기별(半期別) 진도와 그 정확한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현지 보도가 전개될 것이다.

정자천(鄭自天)

◇문명에는 그 예술양식이 고풍의 유치한 단계로부터 자유로운 풍부한 표현을 가지는 단계로 발전하는 균일적인 발전연쇄가 존재한다. 그 발전연쇄는 먼저 건축과 조각, 회화, 문학, 음악, 기술, 학문-마지막으로 「부(富)」가 출현한다. -플랜더스 페트리-

을 헤엄치고 있었다. 두 번 다시없었던 진지한 자기의논이기도 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열지어 서있는 인간대열의 어느 중간 위치에서 추월 할 수도 낙오 할 수도 없는 생명에 대해서 끝내 아무런 결론도 얻지도 못한 채 한꺼풀 하이얀 이불에 담겨 살아있는 환상을 남겨놓고 한 폭 들것에 실려 나가고 만 것이다.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나는 한스 마르틴 슈테에링의 마지막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사병으로서 죽는 것은 다른 운명이 약속된 생애의 전단적(專斷的)인 마지막이 아니고 오히려 한 생애의 완전한 귀결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죽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그 운명이며 전우들에 있어서는 하나의 시련이다. 죽음은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사이의 그 한계에서 만난다. 그리하여 죽음의 문제는 신의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문 뒤에 무엇이 있는가 알기 위해 문을 탐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군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우리들이 우리의 죽은 자들의 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그리 대수롭지 않을 거라고 내가 단언 할 때 너는 나를 이해해 줄 것인가?
 사자(死者)들은 우리들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므로 우리들의 생각은 사자들이 있는 데까지 이른다. 사자들이 우리들과 더불어 함께 있다는 말은 허구가 아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사자들이 우리들과 즐겨 머물러 있어줄 것이다. -하스 마르틴 슈테에링-

(필자·공군병장)

계단(階段) 잃은 9년

화(畵)·문(文) 천경자(千鏡子)

 그러니까, 9년전 이었던가……
 어느 해 여름, 낮에 나는 마루에 누워서 둥둥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무슨 영문도 없이 마당한 구석에 서 있는 감나무에 바람이 일더니 잎이 와삭와삭 소리를 내며 서로 부비며 떨어졌다. 가지에는 달랑달랑 풋감들이 보였다.
「하나 둘……」
 나는 부질없이 그 감을 세어 갔는데 감은 아홉 개 이상 보이지 않았다. 나는 9년 후라는 미래를 점치는 듯이 생각하며 내 나이에다 풋감의 수 아홉을 보태보니 아득한 서른일곱 살이 되었다. 그때가 오면 나는 이러이러한 가치에서 이러이러하게 살 것이며, 또 내 작품에도 어떤 비약이 올 것이 아닐까 하고.
 아무도 모를 미소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가슴을 신 심호흡으로 억제하며 다시 그 둥둥 떠가는 구름을 보았었다.
 그랬었는데ㅡ어쩌다 오늘 이 글을 쓰려하니 그 풋감을 세던 해에 아득한 미래가 바로 이 새해에 내 나이 서른일곱, 그런데 나는 풋감을 세던 그해 꿈꾸던 그대로 되었나.
 아니 다른 것은 다 그만 두고라도 내 작품이? 아니야 그렇지 않다. 속으로 그려보려고도 하다가 문득 꽤 철이 든 사람처럼 인생이란 아무 장치도 없는 텅빈 무대에서 객석엔 보아 주는 관객도 없는 어둠 속에서 그 무엇(?)을 찾아내려는 욕망과 스스로 즐기려는 고독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 하고 죽을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좇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럴 걸 생각해 본다.

동란 중 경북 자인(慈仁) 한 모퉁이에서 천막 몇 개로 출발한 항공병학교는 10여년을 자라오는 동안 한국 유수의 현대식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관을 망라하여 공군의 관문, 보라매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거니와 동 항공병학교 신병대에서는 지난 2월로 신병 100기를 맞는 경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하는 동 현지 탐방 보고이다.

군의 관문
-장장 신병 100기를 맞는-

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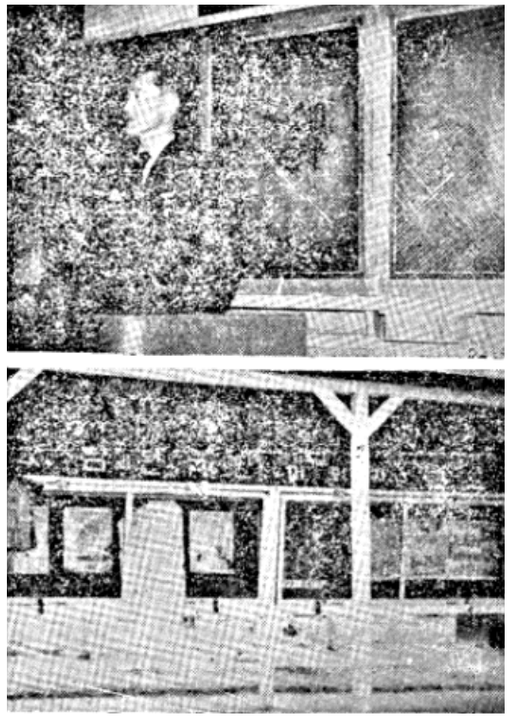
푸른 유니폼의 대가족 공군장병들에게 항상 구수한 화제 거리를 제공하고 아련한 추억을 더듬게 하는 곳을 대어 보라면 누구나 공군사관학교와 기교단 항공병학교를 지적하기에 인색치 않을 것이다.
그중의 하나인 기술 교육단 항공병 학교-.
이 곳은 동교 작전교육과장 한 소령의 말대로 공군의 관문으로서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곳』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도 있겠지만 전국 각지에서 모여오는 입교자들의 성분이 그들의 입고 오는 옷가지 종류만큼이나 다양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군인, 특히 공군의 일원으로 만드는 일이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닌 것이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자유분방한 사회의 넓은 천지를 마음껏 활보하던 이들에게 공동운명체로서의 『조국』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가르치며 국토방위의 사명감을 줌으로서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조차 능히 버릴 수 있는 정병(精兵)을 만들어내는 일은 기계적인 교육과정의 전개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교육되고 있는 사항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장차 공군장병의 기본적 자세를 형성함으로써 군의 전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군사훈련이 주 임무
장병 따라 과정도 여러 가지

항교(航校)는 그 주 임무인 기본군사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세 개의 대대를 가지고 있다. 신병대, 후보생대, 교육대가 그것이다.
그중 신병대는 기술병과정의 훈련장교, 특과장교 등 제과정의 훈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대는 각종 후보생에 대한 학과를 담당하고 있다. 항교가 담당하는 여러 교육과정 중 기본군사훈련부분만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각종장교 과정.....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입교 후 16주의 훈련이 끝나면 각각 공군 소위로 임관된다. 연래 격증하는 지원자로 인하여 지원자는 항상 20대 1 이상의 치열한 경쟁시험을 돌파해야 한다.
2. 특과장교 과정.....군목, 법무관, 군의관을 양성키 위한 교육과정으로 각각 소정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입교할 수 있으며 8주간의 교육 후 중위로 임관된다.
3. 준사관 과정.....고급하사관 중에서 선발되어 8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준위로 임관된다. 정비, 통신 등 특수 기술부분이 많다.
4. 하사관 과정.....고등학교 이상 의 학력을 요구하며 직업군인으로서 고급하사관에 복무하게 된다. 교육기간은 12주.
5. 기술병 과정.....중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8주, 교육이 끝나면 공군2등병이 된다. 선발시험은 평균 5대 1이다.

단계적 훈련제도는 정병(精兵)을 기약하고

처음 입교자는 기술병, 후보생은 누구나 미리 계획된 훈육계획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지도된다. 즉
1. 기본단계.....처음 가입교에서 약 1주간의 기간으로 민간사회에서부터 처음 입교한 후보생으로 하여금 병영생활의 원칙과 그 대강을 교수(敎授)한다.
2. 실천단계.....철저한 병영생활의



사진설명 : 상 <교장의 지휘관 시간>
군인이 가져야 할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하 <신병대 게시판>
뒤에 「참된 군인이 되자」라는 스토간이 보인다.

공

이행을 통하여 군인정신을 체득하고 엄정한 군기를 몸에 익히며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기른다.

3. 검토 및 교정단계..... 익숙하고 있는 병영생활을 기초로 협동정신과 투지력을 양성하고 위생관념을 높인다.
4. 종합정리 단계.....지금까지의 교육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총 정리하는 최후의 단계이다.
이러한 각 단계는 보다 효과적인 훈육을 위하여 더욱 세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단계 식 교육은 선진 각국의 신병 교육과정을 비교 검토하여 그 장점을 우리 군의 고유한 임무와 한국인의 특질을 고려하여 책정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후보생들은 각 단계를 거치는 동안 하나의 표본적 생활양식을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만은 꼭 알아야
다채롭기도 한 교과의 내용

입교자들은 수료시까지 매주 40시간의 학과 교육을 받는다. 동 교육에 의하여 후보생들은 항공 상식, 공군사 등 공군장병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과 의사전달법 회의토론 등 과학적 사고방식에 의한 문제해결의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상당한 시간의 야외훈련을 통하여 제식 훈련에서 종합 전투훈련에 이르는 광범한 전투 훈련으로 전투능력을 배양하고 매주 6시간 이상의 체련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함으로서 균형 있는 신체의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이것은 수십 개의 내실 및 야외교장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그 중 시청각 교육을 위한 실내 교장과 종합대련장, 각개전투장 등 3만평에 달하는 야외 훈련장은 이채로운 것이다.

전통 있는 자치제도
자율정신을 함양

후보생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행동하게 함으로서 책임감을 길러 스스로 군기를 확립하고 고도의 명예심을 배양케 하기 위하여 후보생 자치회가 입교 4주후에 조직된다.

이는 타군에 비하여 월등한 지식수준을 지니고 있는 후보생들로 하여금 군대가 합입하기 쉬운 타율적인매너리즘을 탈피하고 새로운 선의 군인, 곧 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습성을 기르기 위해 특별히 장려되고 있는 것으로 날로 그 성과는 증대되어 가고 있다. 동 자치회는 후보생 중에서 비밀선거에 의하여 피선된 회장 부회장에 의하여 통할되고 그 휘하에 자율적 군기와 독자적 사업의 양면을 담당하는 명예위원회와 사업부가 있다. 따라서 후보생들은 수료시에는 거의 모든 과업을 자치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새로운 교육이론 도입

최선의 교육방안을 모색

동교의 교육에 부대되는 제반 사항을 효과적이고 신속히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동교가 조직하고 있는 교육운영위원회는 동교의 교육전반을 항상 검토평가하며 새로운 교육이론을 도입하여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막는「독장척인 방법」의 모색에 의한「최선의 교육」을 위해 쉬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

언행정화계획(言行淨化計劃)도 추진

이상에 말한 것 이 외에 항교는 교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즉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관 연성(練成) 교육은 저명한 외래강사를 통해 새로운 학풍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며 정기적인 교수연구 발표회는 교수법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타 군의 교육시설을 교대로 견학함으로서 그 장점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탈선하기 쉬운 장병의 순화를 위하여 언행정화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식사와 잠자리는 오히려 과분
모범 후보생에는 포상도 하고

그리고 교육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교는 후보생의 복지와 건강문제에 특별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 수시로 국내외의 각종 영화가 상영되고 다채로운 음악 감상회 및 오락회, 장기놀이 등이 열리고 있으며 심신의 휴양을 위하여 외출과 휴가가 시기를 고려하여 실시된다. 면회 서신연락은 입교 4주 후면 지정된 시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주보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교 중 성적이 우수한 모범후보생에게는 휴가, 외출을 포함한 각종 포상이 주어지며 매월 선발되는「모범내무반」은 특별한 은전을 받게 된다.

목욕 이발은 교내의 충분한 시설을 통하여 수시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인근의 유성온천은 훈련과 휴양을 겸한 적호의 도장(道場)이 되고 있다. 각종 과학적 설비를 비치하고 있는 의무시설은 후보생들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으며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예방과 치료 어느 쪽이나 완벽을 기하고 있다.

또한 입교자들이 근심의 초점이 되는 식사와 잠자리는 오히려 과분한 정도라고 후보생들 자신이 말하고 있다.

후보생들의 살림방인 내무반은 난방장치(스팀)가 완비되고 수세식 변소와 샤워장 목욕탕이 딸려 있는 현대식 2층 건물로 채광과 환기에 각별히 유의되어 설계된 것이라 한다. 한 내무반에 10명씩을 수용하게 되어있는 동 내무반은 가족적이고 단란한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다.

축복받은 100기 신병
군인 앞서 인간 수업(修業)

이상과 같은 환경 하에서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교육훈련에 임하고 있는 각종 후보생 중 신병 100기의 명예를 지니고 있는 기술병(신병 후보생을 이렇게 부른다)들은 교장 김성배(金聖培) 대령의 말대로「무엇보다 장차 군이 각 개인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을 기르고 또한 신병대장 백현석(白鉉錫) 소령의 신념이요 지론인「우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 곧 인간이 되고, 그 다음 자기의 신분을 아는 군인이 되고 그 다음에 공군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훈화에 간난 없이 격려되면서 교육훈련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발랄한 21세의 젊음을 중추로 소년의 역(域)을 멀리 못 벗어난 18세에서 27세에 달하는 노장들이 흉허물 없이 한데 어울려 전우의 정을 나누고 있는 이들은 거의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대학졸업자와 중퇴자는 총수의 거의 반수를 차지한다.

두 명의 제주도 출신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모여온 이들의 입대 전 직업은 학생이 절대 다수이고 회사원, 공무원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중에는 연예계의 베테랑도 있고 최신 과학적 분석에 의하여 미래를 점친다는 관상가도 있다. 따라서 휴식시간이나 오락시간이면 저마다의 특기를 자랑하는「폭소의 파티」가 권위와 명예를 걸고 벌어지곤 하는 것이다.

순종황제가 자기의 큰 할아버지라고 하는 왕족 이종(李淙) 기술병은 입교한 후의 생활을 요약하여「모든 것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나 훌륭하다. 군대생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완전히 수정되었다.

(51페이지로 계속)

<빛을 남긴 무인(武人)>

김유신 장군의 위훈(偉勳)

이현희(李炫熙)

1

우리나라 무훈사상 영원히 잊지 못할 단 하나의 위대한 장군이 있으니 그가 곧 신라 3국통일의 훈이었던 김유신 장군(595-673)인 것이다. 장군은 다만 신라 3국통일의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해서 그 이름이 후세에 전하여 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도 장군은 최초로 민족적 통일을 이 땅에서 가졌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무게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족 통일의 성업(聖業)을 이룩한 김유신 장군에게는 남다른 노력과 부단한 연마와 훈련이 뒷받침해 주었다는 것이다.

장군은 신라 진평왕(眞平王) 19년(595) 그의 부친 서현(舒玄)과 모친 만명(萬明) 사이에 황성(嗶聲)을 터뜨렸던 것이다. 김장군의 부친 서현도 유명한 장군으로 신라의 셋째 관등인 소판(蘇判)이란 직위까지 얻어 대양주도독(大梁州都督)으로 한때 군사 지휘권을 휘두르고 고구려와 백제의 땅을 쳐서 영토 확장에 전심하였던 용명 장군이었다. 그의 조부도 유명한 무인이었다. 이와 같은 무가(武家)의 집안에서 태어난 김유신 장군은 어려서부터 장군다운 품격이 몸에 흐르고 있었다.

유신장군은 원래 김해 가야국(伽倻國)의 시조인 김수로왕(金首露王)을 조상으로 하였으며 그 9세손인 구형왕(仇衡王)은 그의 증조부 되는 분이다. 이분도 무예와 칼 쓰기를 잘하여 당대의 이름을 떨친 분이다. 이와 같이 김장군의 집안은 모두가 씩씩한 군인 정신을 이어받고 내려온 군인가족이기도 한 것이다. 유신 장군이 장군으로서의 자질을 타고 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신라 진흥왕으로 부터 진평왕에 이르는 몇 십년 동안은 신라로서는 가장 수난기에 처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3국 중에서 신라는 고립화되어 있었으므로 홀로 과감한 투쟁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고구려나 백제는 자기들대로 한반도 위에서 각기 자기네 세력 부식을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맺고 결혼 정책까지도 서로 상의하였기에 두 나라 사이는 원만하였으나 양국은 서로 다른 생각을

있어서 급기야는 동맹도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리하여 신라는 일찍부터 왜국(倭國)과도 왕래를 하였으나 그보다는 중국(당나라)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었다.

김유신의 유(臾)자는 경신(庚辰)년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경(庚)자와 비슷하게 하기 위하여 유자를 썼다고 한다. 그의 모친과 부친과는 상당히 금실이 좋았는데 처음엔 웃어른들이 상당히 반대하였으나 본인과 본인들 간엔 더없는 열렬한 사랑이 맺어져서, 결국 결혼하게 되어 유신 같은 훌륭한 인재를 얻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헌걸차게 자라기 시작한 소년 유신은 어려서부터 동리 아이들 간에 왕 노릇을 하였고 여러 어린이들 사이에 추앙되는 바가 되어 벌써부터 사람다운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기운차게 자라난 김유신이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소년 화랑에 추대되어 여기서 심신을 연마하고 칼 쓰기 창던지기 등 무예를 배우고 한자 등 학문도 배워 지용(智勇)을 겸비케 하였으며 이를 위해 밤낮으로 딴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유신의 무리를 가리켜 용화향도(龍華香徒)라고 하여 그 무리는 상당수에 달했으며 김유신 장군은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마음껏 심신을 단련하였다.

유신장군이 17세 되던 진평왕 33년(611) 늦은 봄 그는 뜻한바 있어 혈혈단신으로 중악(中岳)의 석굴로 들어가 입산수도하여 우선 정신을 안정시키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구상하고 고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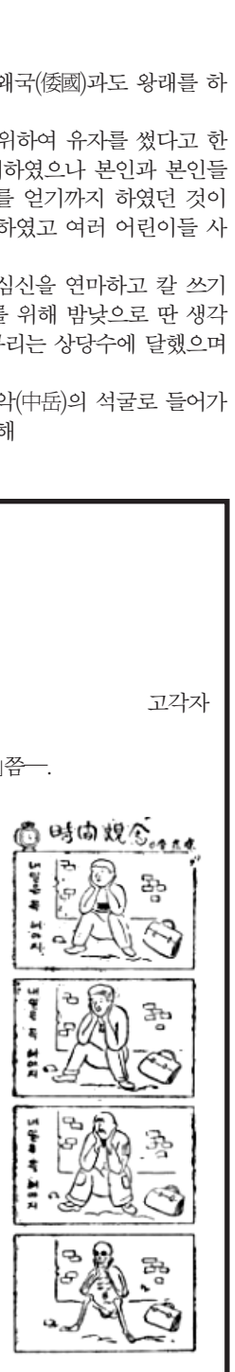
속 담 춘 추

★시간의 고직(庫直)이 (시간관념)

고각자

가령 시간관념을 강조하는 주간이라도 설정된다면 이러한 표어를 내걸고 싶다.
「무찌르자 시간낭비 추방하자 코리언 타임」「받들자. 일촌광음 모시자 시간관념」쯥—.

한국시장의 에누리도 해외에 수출할 만큼이나 과잉생산이지마는 시간을 에누리하는 데는 정말 질색이다. 5·16후로는 이 혼혈아(코리언 타임)도 점차 꼬리를 감추어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그 길 다란 꼬리가 때때로 발끝에 밟히는 사례가 없지 않다.



그래도 우리 선조들은 시간을 아낄 줄 알아서 여러 가지 시간관념을 담은 격담(格談) 속담이 많았다. 「시간은 돈이다」하는 식의 서구인과는 달리 시간의 빠름을 표시하므로 서 시간을 아끼는 관념을 북 돋우웠다. 「인생 일장춘몽」은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마는 세월의 빠름을 말해주기도 한다. 「학도야 학도야 청년 학도야 벽상의 괘종을 들어보시오 한번 가고 두 번 가고 다시 못오니」하는 노래는 아직도 50년대 사람이라면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다시 못 오는 종소리, 그것은 다시 못 찾는 시간이다. <Time is money>라고 하는 영국에는 <Time waits for no man>(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던가 <Loss time is never found>(잃어버린 시간은 다시는 못 찾는다)라던가 <Time passes like the wind>(시간은 바람처럼 지나간다)하여 시간의 귀중함을 직접적이고 보다 적실하게 표시하고 있다.

「서산에 지는 해는 진시황도 못 잡는다」 진시황은 중국 사람이었지마는 그의 만능적인 권력을 세월의 흐름에 멋있게 인용한 것은 한국 사람이다. 「소년 늙기는 쉽고 학문 닦기는 어렵 도다」 이것은 주희(朱熹)의 시다. 그는 「그러니 어찌 일촌의 광음인들 허비할까 보냐」하였다.

옛날 어느 곳에 만석거부(萬石巨富)가 있었다. 그의 고방(庫房)에는 없는 것이 없었지만 그가 늙어 감을 막는 약만은 없었다. 70노경에 이른 그는 어느날 고방지기에게 「나는 이렇게 늙었건만 그 고방에 불로초가 없음은 탄(嘆)스럽구나」하였다. 이때 고방지기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세월에는 고지기가 없답니다」

낼 수 있었다. 그가 신라 3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하게 된 것도 실로 입산수도 할 때 얻은 생각 가운데 하나가 아닌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몸을 깨끗이 닦고 무릎을 꿇고 산신령께 기도하였다. 아무쪼록 고구려나 백제가 우리나라(신라)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과 유신장군에게도 전쟁터에서 잘 싸울 수 있는 묘한 군사비법을 가르쳐달라고 애원 기도하였다. 그리하였더니 눈앞에 산신이 나타나 어린 몸으로 삼국통일의 대지(大志)를 품은 것이 가상하다고하고 전술 비법을 낱낱이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산신의 말대로 의롭지 못한 싸움에는 일체 전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유신 장군은 중악 석굴때의 남모를 수양을 하기 위하여 다시 보검을 지니고 연박산(咽薄山)으로 입산수도하여 다시금 신선께 비는 염원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면서 꾸준히 무술 연마에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날이 갈수록 유신의 무법은 신묘해지고 깜짝 놀랄 만치 급작이 변해 갔다. 이즈음 신라 안에서는 물론 고구려 백제에까지 유신장군의 명성은 자자했으며 선망에 지나쳐 질투 시기하여 나중엔 죽여 버리겠다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낭도 속에 백석(白石)이란 자가 유신을 배반하고 고구려에 내부하려다가 발각되어 죽은 일은 그 좋은 예이다.

2

가정교육이 누구보다도 엄한 유신은 항상 모친의 좋은 훈계를 늘 듣고

★멍석 위에서 헤엄치기 배운다. (탁상공론)

서생원(鼠生員)들이 회동하여 멋있는 입안을 짜내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다는 명안이었다.

지상에서 용병을 논하는 사람치고 명장 아닌 사람이 없고, 없는 사람일수록 말만은 풍요하다. 그래서 「지상병담(紙上兵談)」이라는 격언이 생겼고 「없는 후(厚)애비보다 있는 짜때래비」라는 속담이 생겨났겠지. 쌀 한 되도 못 가진 가난뱅이의 「말의 동정」보다는 한 홉의 쌀을 베풀어주는 구두쇠가 낫다는 것이다. 「모래 위에 고루거각(高樓巨閣)」(사상누각(砂上樓閣) 「멍석 위에서 헤엄치기 배운다」. 모두가 탁상공론을 말하는 속담이다.

중원은 바다가 멀고 황하도 깊다. 그래서 해산물과 물고기는 엄청나게 비싸서 해삼이나 잉어는 인삼, 녹용보다 귀하다. 가난한 아버지는 잉어가 많다는 못을 목표로 아들과 함께 멍석을 깔아놓고 헤엄치기 연습을 시작했다. 석 달 열흘을 연습한 아버지는 용약(勇躍) 아들을 앞세우고 잉어 잡이 못을 향했다.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이 잉어망태를 짊어지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 이튿날 집에 돌아오는 것은 잉어 망태가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은 부자의 시체였다니…….

탁상공론이란 아무리 근사해도 화중지병(畵中之餠)이요 화중미인(화중미인)이다. 실지로 적용할 수 없는 이론은 아무리 그럴싸해도 서생원들의 수론(首論)밖에는 못된다. "Painted flowers have no scent" 화화(畵花)에는 향기가 없고 "Bread is better than the song of birds"새 소리가 아름답다한들 빵보다 실질적은 못된다. 화중지병이 탁상공론과 자매지간이라면 빛 좋은 개살구와는 사촌 격이고 업무의 능률화 업무의 과학화와는 견원지간이라 할까.

시체에 매질하는 격이기는 하지만 한 시절 우리나라에는 공무원(空務員)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공론(空論)으로 공무(공무)를 보고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이었다. 민원서류가 민원서루(民怨書淚)가 되고 공복(公僕)이 곤봉(棍棒)이 되었다. 그렇자니까 공공업무의 관리란 공염불이 될 수밖에—.

경험 지나 적어도 과학적인 실천이 없는 입안은 아무래도 탁상공론으로 빠지기가 쉽다. 「입으로는 태산(泰山)도 메고 온 다」 단지 믿는 사람이 없을 뿐이다. 「산에 있는 호랑이의 가죽 흥정」에 누가 나설 것이냐. "Dont sell the bear skin before you have caught the bear" 잡지 않는 곰의 가죽은 팔 수 없는 것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적당주의)

코에 걸면 코걸이, 팔에 걸면 팔찌, 목에 걸면 목걸이 그러나 이것이 그 어느 대의 국가보안법이라면 목걸이가 아니라 교수형이 되기도 하고….

팥이 콩이 될 수도 있고 콩이 팥이 될 수도 있고 녹두로 메주를 쓸 수도 있고—사통오달 저 전지전능, 적당주의라는 이름의 만병 통치제, 가가호호 남녀노소 너도 나도 적당주의—. 그러나 이 만병통약이 부정과 부패와 나태와 타락, 온갖 악균을 배양하는 온상이었음은 이미 실험제이다.

적당주의가 하나의 이즘으로서 대두한 과정을 연구하고픈 분이 있다면 리버티 파아티—정치10년사를 탐독하면 족할 것이다. 그 10년은 적당주의의 봄이 지상 최대로 계속했던 시대였으니까.

첫째, 이 이즘은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다. 나라를 망치는 힘이다. 가령 다량의 이 균을 어떠한 나라에 뿌린다면, 그리고 그 나라 정부가 적절하고 급속한 방어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 국민은 전멸의 비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때 10년 동안 이 이즘은 과찬이 아니라 사통오달, 전지전능하여 사형수도 거리를 활보케 했는가 하면 죽은 사람이 대통령을 뽑아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 이즘은 대개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1. 안 되는 일이 없고 되는 일도 없다.
2. 금송아지도 만들어 내고 흙송아지도 만들어낸다.

있었다. 일거일동 유신의 행동을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던 중 유신이 술파는 계집 천관의 집에 가끔 들러 술을 먹고 놀더니 나중에는 그곳에서 하룻밤까지 따뜻한 그녀의 품에서 자고 옴으로 그의 모친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그런 곳에 드나들지 말고 열심히 공명(公名)을 얻을 때까지 연마하고 또 연마하라는 엄중한 꾸지람을 듣고 모친 앞에서 다시 가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다. 그러던 어떤 날 벗들과 교주(交酒)하고 오는 중 거나한 그는 마상에서 잠시 졸았다. 말은 딴 날과 같이 술만 먹으면 기생 천관에게 가는 버릇이 있어 그 집으로 인도하였다. 천관의 집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잘못 온 것을 깨닫고 당장 찼던 칼을 뽑아 말을 쳐 죽이고 자기는 천관을 보지도 않고 그대로 집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고 하는 한 가지 일화를 통하여 우리는 그의 강철 같은 의지력과 맹수로서의 도수(度數)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무인다운 씩씩한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난 증거였다.

3

화랑에서 크게 자란 유신장군이 서른 다섯살 되던 진평왕 51년(629) 8월이었다. 왕은 이찬 임영리(任永里), 파진찬 용춘(龍春), 소판 대인(大因) 및 유신의 부친 서현 등 여러 장수에게 지금의 청주인 고구려의 낭비성을 치게 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오히려 고구려의 용감한 전투에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었다. 전세가 이와 같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자

---

3. 무형 무색 무취, 동물성 광물성 식물성을 다 가졌다.
4. 불가근(不可近) 불가원(不可遠)이다.
5. 신축이 자유자재.
6. 기호는 국물이다.
7.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8. 전염과 만연도는 호열자의 360배.

적당주의의 속성은 적당히 이쯤 해두고
「과장님 요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고 과원이 묻자,
「이럭저럭 적당히 살아가네. 그래 자네는 어떻게 사나?」
「저도 이럭저럭 적당히 살고 있죠.」
한다. 이래서는 피장군 아장군 피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리무중이다. 적당주의는 모두가 안개 속에서 밭갈이하듯 어물어물 분명치 않다.

우리는 과거에 이 이즘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국민들이니 새삼스러이 여기서 왈가왈부함은 사족 지담 이요. 국가재건 민족개조를 위하여 가가호호 남녀노소 너도 나도 「박멸하자 적당주의」. 우리가 잘 살수 있는 길은 오직 실천 하는데에 있다. 네덜란드의 속담 "Beter eens in den hemel dan tienmaal aan de deur" 천국의 입구에 열번을 선들 무엇 하랴 단 한번이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니 빼고 금니 박는다
(허례허식)

온 돈 주고 반 머리 깎고 비단 팔아 삼베적삼 입고 문전옥답 팔아서 정자 짓고, 두부 먹고 이 쑤시고 멋쟁이 얼어 죽기까지는 그래도 좋은데……

몸(정조)주고 금반지 구친(구친) 팔아 쌍가마쯤 되면 패가 망신이오 나라 망친다.

5활변 내어 사돈 청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관환 상제다. 이 때문에 가산을 탕진한 사례가 많다. 우리 민족에는 이 같은 허례허식에 대한 속담이 많은 것을 보아도 한국 사람에게는 허례허식이 많음을 입증한다 할 수 있다.

유사출가(유사출가)라는 말도 있다. 선조의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겨둔 논을 팔아서 시집을 간다는 뜻인데 보기 좋은 혼례식을 올리기 위해서 조상의 무덤을 판다는 것이다. 형식주의의 노예요 허영심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남의 눈과 자기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이니 이보다 더 비 실리적이오. 비 실익적인 노릇이란 없다. 하루의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100일을 낭비해야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굶는 것이다.

"The belly is not filled with fair words" 말이 아무리 아름다운들 배는 부르지 않고 "Bread is better than the song of birds" 새 노래가 허기를 면케 해주지는 않는다. 실리적이고 실익적인 서구인들의 생활관은 "Money is the key that opens all door"돈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격담을 몸에 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황금만능이나 배금사상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가난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일이다. 「빈(貧)하면 둔(鈍)한다」「빈자 단지(短知)」「빈자 천(賤)」이란 말이 있고 「말(馬은) 마르면 털이 길어지고 빈자는 성(姓)도 없다」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돈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이지마는 그렇다고 "All is not gold that gliters" 번쩍인다고 모두가 황금은 아니다」하여 이(利)에 눈이 어두워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당서(唐書) 태종기(太宗記)에

유신장군은 당주로서 출전하기 위하여 그의 부친에게 싸움터에 나가 적을 무찌르고자 한다는 말을 남기고 비호같이 적진으로 뛰어들어 적장의 목을 베고 혹은 군기 같은 것을 빼앗아 왔다. 이에 신라 군사가 다시 사기를 얻어 일제히 유신장군이 지휘하는 대열 속에 끼어 적 5천 여명을 죽이고 근 1천 여명의 적군을 생포하여 왔다. 이리하여 고구려의 낭비성은 힘쓰지 못하고 신라에 항복하고 말았으니 유신장군은 처녀 출전으로 큰 수확과 전공은 영구히 빛나고 있는 것이다.

선덕여왕 21년(642) 백제군이 대야성(=합천)을 공격함에 신라는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웠으나 방어하지 못하고 백제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백제는 고구려와 연합하여 당항성(=안산)을 쳐 당나라와의 교통로를 끊으려 하였다. 대야성을 지키고 있던 신라의 장군 품석(品釋)이 죽고 성을 빼앗기니 그는 김춘추(김춘추니 태종무열왕)의 사위로서 백제 장군 윤충의 계교에 속아 목숨까지 잃었던 것이다. 김춘추는 그의 사위뿐 아니라 딸 고타소(古陀炤)까지 잃어 그의 상심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이리하여 이를 원수 갚기 위하여 고구려와 손을 잡기로 작정하고 그 자신이 고구려로 갔다. 그러나 고구려는 자기네대로 신라에게 고구려의 옛 땅 죽령 이북의 한강 땅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김춘추가 듣지 아니하니 고구려는 그를 돌려보내지 않고 억류시켰다. 육순이 되어도 환국하지 않은 김춘추를 기다리다 못해 유신장군은 고구려로 쳐들어가고자 하였다. 이 소식을 덕창으로 부터 전해들은 고구려는 그냥 김춘추를 돌려보냈다. 김유신의 누이동생 문희(文姬)는 우연한 인연으로 김춘추의 부인이 되었고 (삼국사기 참조) 김춘추의 딸 지소(知炤)는 김유신의 부인이 되었으니 두 사람과의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집안끼리가 되었다.

김춘추 환국에 이어 김유신은 대급하여 압양주 군주가 되었으며 선덕여왕 13년(644)에는 상장군이 되어 그의 지위도 확고부동하게 되었다. 유신은 다시 백제를 쳐서 가혜성, 성열성

할복장주(割腹藏珠)라는 얘기가 있다. 가호(賈胡)라는 자가 서역에서 미주(美珠)를 얻어 배를 째고 그 미주를 배속에 감추었다는 것으로 재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우(愚)—.

그야, 생니 빼고 금니 해박 든 논 팔아 사돈 청하든 자유이지마는 다음과 같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까봐 걱정이 없지도 않습니다.

허례허식 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1조 본법은 국민의 허례허식을 금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좌기(左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법 제3조에 의한 처벌의 적용을 받는다.

제1항, 질환 또는 불구자가 그것을 고치기 위한 수술을 제외하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용모를 내과적 또는 외과적으로 변조하는 자 및 시의약자(施醫藥者). (예컨대 흑발홍염, 눈 코 정형수술, 손톱 염색, 자녀 3 이하를 가진 부부의 산아제한수술, 수신(瘦身) 장신수술 등.)

제2항, 타인의 눈을 자극하는 행위 및 필요 이외 또는 필요이상의 지출을 하는 자.(예컨대 내복 안 입은 멋쟁이, 여자의 유방부 노출 일체의 허례허식의 행위.

제3조 처벌

제2조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벌한다. (예컨대 흑발홍염은 삭발하고 코를 높이는 자는 그 코를 3촌 이상으로 높여 주며 눈에 쌍꺼풀을 넣는 자는 4꺼풀을 넣어 준다. 허례허식을 위해 낭비한 자로부터는 그 낭비액의 10배를 벌금으로 징수하되 징수한 벌금은 국가재건을 위해 사용 한다 등.)

후랑크린은 말했다.

"He wil be obligedto sell necessary things who buys needless things" 불필요(불급)한 것을 사면 필요한 것을 팔아야 한다—고.

「빚(借金)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과 같이 "Borrowing makes sorrowing" 차금(借金)은 차비(借悲)다. "All empty bag cant stand up right" 빈 포대는 세워지지 않는다. 검소하고 절약해서 먼저 생활의 안정을 이룩하자 "Without economy none can berich and with itfet can be poor" 「검소 없는 곳에 백만장자 없고 절약하는 가난뱅이 없다」. 일본의 속담에도 있다. 「부지런한 자를 뒤쫓는 빈귀(貧鬼)는 없다」고—.

공산주의와 그를 신봉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적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적을 무찌르자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적부터 무찌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코리언 타임, 탁상공론, 적당주의, 허례허식은 우리가 우리 배 속에 지니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적들인 것이다.

매리포성 등 여러 성을 차례로 빼앗아 약진하는 신라의 형세를 더욱 굳게 하였다. 선덕여왕 다음 진덕 여왕이 즉위했으나 재위 7년 만에 훙거하자 김유신은 김춘추를 추대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니 이가 곧 태종 무열왕인 것이다.

진덕여왕 3년(649) 8월 백제의 장군 은상(은상)이 석토성 등 7성을 함락시킴에 유신은 죽기(죽지), 진춘(진춘), 천존(천존), 등과 같이 이를 맞아 도살성에서 거의 다 파멸시키고 또다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4

태종 무열왕(김춘추)은 반도를 통일할 웅지를 품고 일찍부터 교섭하여 오던 당나라와 손잡고 청병(請兵)하였다. 이에 당나라 고종은 장군 소정방(蘇定方)에 13만 군대를 주어 우선 백제를 치도록 하고 금강 입구로부터 쳐들어가 부여성을 함락시키도록 하고 김유신 장군은 육로로 5만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황산 벌판에서 백제의 계백장군과 싸워 며칠간 격전 끝에 무난히 돌파하여 육해로로 백제를 완전히 멸망시켰다. 이에 3국 통일의 웅지는 우선 제1차적으로 성공을 본 셈이다. 당의 힘을 빌어 백제를 멸하였으나 당나라는 오히려 백제 땅에 도독부를 설치하고 자기네들이 백제를 차지하려 함으로 신라는 이에 반대하고 싸우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아직 3국을 완전 통일하지 못했으므로 그냥 두고 다시 고구려를 치도록 하였다.

문무왕 8년(668) 당나라는 이적(이적)을 보내고 고구려를 치도록 하였으며 신라에서도 군사들이 나와 주기를 요구했다. 이에 문무왕은 흠순(흠순=유신의 동생) 김인문(김인문) 등 여러 장수를 보내 고구려를 멸하러 가는 장렬한 군대대열 속에 끼도록 하였다. 이때 여러 장수들은 김유신 장군도 함께 출정하여 3국통일의 성업을 완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때 김유신 장군은 이미 나이도 많고 또 병중이라서 유신은 임금을 모시고 국내 일을 손수 맡아 잘 처리해 주었다. 문무왕도 김유신을 제일가는 장수로 알고 있는 대로 잘 대우해 주었다. 노신 김장군은 너무도 황은이 망극함에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었다고 한다. 지소부인은 그의 부인이며 유명한 화랑 원술(원술)은 김장군의 둘째 아들이다.

김유신 장군은 더욱 나이를 먹어갈수록 노련해지고 거의 완전에 가까운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다. 그에게서 위트와 재치가 없다면 그의 생명은 벌써 다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는 부단한 연마와 전술 법을 많이 연구하여 그 연구에 의해서 모든 군사학을 이용하고 또 그의 적응해서 일을 처리해나간 군략가이기도 하다. 그의 존재는 그가 죽을 때까지 국내외로 없어서는 아니 될 인물로 흠모되고 추앙되는 몸이었다.

이리하여 나당연합군은 백제와 고구려를 무찌르고 신라는 삼국통일을 최초로 이 반도 위에서 이룩하게 하여 단일 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를 갖게 하였다. 당나라는 삼국을 통일하게 되자 물욕이 생겨 우리나라 땅에 도호부를 세우고 은근히 세력 부식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음으로 신라는 이를 당장에 이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잘 살수 있도록 국토를 통일하였다.

김유신 장군은 호탕할 때는 한없이 호탕하나 또 민감하고 다정할 때는 살을 녹이듯이 친절하고 훌륭한 인간미를 가지고 있던 문무가 겸전해 있는 위대한 영웅이었다. 그의 지위가 그와 같이 높아지면서도 한 번도 거만하거나 오만한 적이 한 번도 없이 오직 공손과 친절로서 나라에 봉사하고 벗 사이에 신의와 우애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만년에 가서 병이 들어 죽음에 이르러서도 임금을 존경하고 백성의 살길을 열어 주기에 온갖 정열을 다 쏟았다. 문무왕이 손수 김장군의 병을 위로하러 왔을 때 병석에 있던 김장군은 임금을 잡고 왕은 언제나 소인을 멀리하고 군자를 가까이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임금을 충심으로 섬겼는가를 대강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와병중 이던 김유신은 문무왕 13년(673) 7월 1일 73세를 일기로 서거했으니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애석히 여기고 며칠씩이나 계속해서 눈물을 지었다고 한다. 그는 일생의 공로를 참작하여 지금까지 없었던 태대각간(太大角干) 또는 태대서발한(太大舒發翰) 등의 최고직을 주니 이는 전무후무한 일이며 수묘군(守墓軍)까지 주었다. 나중에는 흥무대왕(興武大王)이라는 봉왕까지 주어 그를 최고급으로 대접했음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의 묘는 현재 사적 37호로 지정되어 경북 경주읍 충효리에 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것이 김유신 장군의 묘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그의 시비는 다른 기회로 밀고 좌우간 김유신 장군의 일생은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지고 있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퀴즈클럽』해답

[문제 1] 마찬가지로 100분.

[문제 2] 1000환. 좀 더 정확히는 800환하고 아리랑 담배 한 갑의 원가.

[문제 3] 그림을 보시면은 명백.

[문제 4] 해답은 알밉게도 root 1.

[문제 5] 자기 어머니.

한국의 산야와 산림녹화

푸른 산은 국가재건의 근원이다

당국의 집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 임야면적은 675만 7천 정보를 헤아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무가 자라고 있는 성림지는 394만 6천보(50%)이고 나머지 281만 정보 중 17만3천4백77만 정보의 폐지를 빼놓은 263만 7천2백여 정보가 모두 벌거숭이 미성림 지인 것이다.

그런데 이 미성림 지의 임상별 내용을 보면 사방사업을 해야 할 면적이 52만4천4백36정보이고 인공조림을 해야 할 면적이 80만8천4백49정보, 그리고 나머지 130만4천3백70정보가 천연조림을 할 수 있는 면적이다.

이렇듯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벌거숭이산이 총 임야면적의 약 4할을 차지하고 있어 해마다 수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귀중한 농토를 비롯하여 가옥 가축 수리 시설 등이 막대한 피해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심한 실정으로 「산림록화」사업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해방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6년간을 두고 계속 산림녹화사업을 강력히 실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산은 푸르러지지 않고 황폐되어만 가는가? 그 원인을 풀어보기로 한다.

나무를 계속하여 심는데도 산이 푸르러지지 않는 까닭은 심은 나무가 잘살지 못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손으로 무참하게 베어져 버렸거나의 두 가지 큰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는 재난으로 소멸된 것이 있는 때문인 것이다. 사실상 지난날 우리들은 해마다 많은 나무를 심어오긴 했으나 나무를 심은 다음에 이것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는 너무나 등한했던 것이다.

묘목이 상했건 말았건 심은 다음에 살고 죽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덮어놓고 심어만 놓았던 것이다. 그러니 제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산이 푸르러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물론 묘목을 심을 때에도 정성껏 심어야 되지만 심은 다음에 사후관리를 잘해주어야만 나무는 제대로 자란다. 지금까지의 예로 보면 심은 나무의 절반이상이 사후관리의 불실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하니 지난날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성의를 가지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만 「산림녹화」를 성공시키는 일일 것이다.

다음으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나무를 베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방에 불을 지펴야 하고 또 매일 밥을 끓여야 하기 때문에 나무를 베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에 필요한 연료의 수량은 1천6백만 톤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1정보당 연료 생산량을 11톤으로 보더라도 150만 정보의 연료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료소비량을 메꿀 수 있는 기성림은 불과 6분의 1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니 지금까지 도벌이나 남벌이 얼마나 성행되어 왔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금년에도 정부는 24억8천만환이란 방대한 예산으로 범국민적인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연료림 용림목(用林木)을 중점적으로 조성하는 것 이외에 사방사업, 파종 사업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44페이지에서 계속)

훌륭한 교관과 교장, 그리고 깨끗한 생활분위기는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의 세계를 열어 주었고 단체생활을 기쁨을 맛보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문리대를 다니다가 입대했다는 이기술병이 신분이 밝혀졌을 때 일부 측에서는 그에게 비록 교관이라 하더라도 반말을 하지 말라는 진정조차 있었다는 애교가 있었다고 한다.

99기로 입대하여 훈련에 있어 일일지장(一日之長)을 자랑하는 외국어대학교 출신 이수장(李水長) 기술병(이은상(李殷相)씨의 자제)은 「지난 한달 동안 배운 것이 인생의 한해를 배운 것보다 더 많다.」고 말하고 「웃으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군대에서 잊을 수 없는 전우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도 부수입(?)의 하나라」고 하면서 자기가 안식교도이기 때문에 많은 난관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신앙을 존중하는 여러 상관님들의 이해와 격려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가 양보
하여 집총훈련에 솔선하고 있다.」고 술회하고 100기 생중에도 자기와 같은 안식교도가 두 명이나 더 있다고 자못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다.

수료하면 공군의 막내둥이
그러나 떳떳한 자유의 첨병

지성적인, 그러나 결코 나약할 수 없는 군인으로의 길을 부지런히 걷고 있는 이들 기술병 100기들은 2주간의 교육이 끝나면 어엿한 이등병으로 자랑스런 공군대가족의 막내둥이로 탄생하여 각각 소질과 희망과 전공에 따라 각기 다른 특기교육을 받은 후 자유세계의 첨병으로 극동의 하늘을 지키는 떳떳한 하늘의 용사가 될 것이다.

『폭음도 우렁차게 흰 구름 뚫고 ……원수의 무리를 쫓아 하늘 끝까지 ……』

그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합창하는 군가의 일절처럼.

(이문규중위 기(記)

<민주주의 원리세미나>

개인적 자유

김낙봉

1.양심의 자유

우리가 자유를 논함에 있어 재삼 강조하여야 될 것은 일체의 자유의 근거나 핵심은 양심의 자유에 있다는 사실이다. 양심의 자유가 있음으로서만 우리들은 선악을 판단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좇는 창조적인 인간다운 도덕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와 아울러 도덕생활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회전체의 질서나 복지와 양립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권을 욕구하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기본적 자유권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인생의 목적인 도덕생활의 완수에 있는 것이다.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필수불가결의 수단으로서 기본적 자유권 없이는 우리들은 도덕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양심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생명이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양심의 절대요건은 기본적 자유권을 보편적인 도덕법으로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며 이것이 양심의 내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도덕법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가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고 양심 자신이 발견한 자기존재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도덕법의 보편성을 확인하는 것이 양심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그와 같은 도덕법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는 부정하는 주의를 주장하는 양심이 보편화된다면 그것을 사회를 무질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자기부정적 거짓 양심이 될 것이다.

공산주의는 확실히 도덕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봉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올바른 의미의 양심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은 물자의 생산방법이 궁극적으로 인간성이 도덕까지도 포함하는 일체를 결정한다고 하는 따위의 양심의 실재를 부정하는 유물사관을 맹신함으로서 양심을 상실한 광인적 심리형태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들의 악마주의나 도덕적 허무주의가 발전하게 마련이다. 우리들이 공산주의 및 공산주의자들에 대하 가정 전율을 금치 못하는 것은 바로 이점인 것이다.

여기서 양심이 자기부정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존재조건인 기본적인 자유권을 보편적인 도덕법으로서 필연적으로 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 사회는 이를 도덕법의 권위를 확인하는 유일한 사회이기 때문에 참된 의미의 양심의 자유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양심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진리도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는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과학적 문화적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교육의 첫째 목표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다시 말하면 기본적 자유권과과 아울러 사회의 존속을 욕구하는 양심함양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양심을 적극적으로 배양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 사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란 일반적으로 불법이거나 불합리한 일체의 물리적 압력으로부터 개인 신체의 해방을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법률상의 정당한 이유와 수단에 의하지 않고 체포 감금 그 밖에 자기 뜻에 반하는 일체의 육체상의 강제 또는 구속을 받지 않는 개인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신체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를 향유하는 기본요건이 되며 이 같은 뜻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인적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까닭으로 협의적으로 이권이라고 하면 의례히 신체의 자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인간은 아무리 정신적 존재라고 하더라도 육체라고 하는 그릇을 떠난 정신이나 인격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신체의 자유 없이 다른 일체의 자유를 보전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시민적 자유는 먼저 신체의 자유부터 구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이성에 살려고 하는 즉 자유를 얻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된다면 다른 자유도 따라서 신장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가 다소라도 위협을 받고 불안정하다면 다른 모든 자유는 필연적으로 위축되고 개인의 존엄도 있을 수가 없다.

가령 경관이나 헌병이 자기 또는 상사의 전단적(專斷的) 의지에 좇아 어떤 혐의를 구실로 언제나 자유롭게 사람을 사람들의 신병을 구속하고 고문 또는 부당한 장기구류로 무실(無實)의 자유를 강요하며 때로는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러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신체나 생명의 자유를 지킬만한 충분한 구제수단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와 같은 경우에 아무리 언론의 자유다 결사의 자유나 하고 떠들어댄단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던지 순난자(殉難者)로

자처하고 생명을 내던질 각오가 없는 한 그러한 자유를 행사할 수 없을 것을 명백하다. 그런고로 독재자는 언제나 먼저 국민으로부터 신체 자유의 안전을 빼앗고 공포정치를 펴는 것이다. 이 안전만 빼앗으면 다른 일체의 자유는 자연 와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체자유의 안전이 위협을 받으면 민주정치의 기관도 쉽사리 독재정치의 수족으로 될 뿐이다. 그와 같은 사례는 허다하거니와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가 얼마나 기본적인 자유권인가를 알 수 있으면 동시에 이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 이익 이냐하는 것도 수긍될 수 있는 것이다.

영국은 근대적 자유와 민주정치의 발상지라고 한다. 어째서 영국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나 정치적 자유가 가장 오래 전부터 그리고 비교적 확실하게 진전되어 왔느냐 하면 그 하나의 요인은 신체의 자유의 안전이 가장 오래전부터 비교적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의 관습법은 영국 국민들이 옛날부터 선조대대로 자기들의 권리를 위해서 재판소에서 항쟁한 결과로서 생겨난 것이다. 그것은 영국재판소가 관습적으로 채용하여 운용하기에 이른 판례법인데 이 관습법상의 명확한 권리로서 15세기경에는 이미 재판소가 인신보호권장을 발행하는 관습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영국 국민들의 이 관습법상의 권리를 다소 보강하여
제정법으로서 확인된 것이 오늘날 영국헌법법규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1679년 인신보호법(Habes Corpus Act)이며 경험에 비추어 이것을 어느 정도 확충한 것이 1816년의 수정법인 것이다.

여기서 이들 법규를 해설하지는 않겠으나 영국에서는 이러한 법으로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법률로서 가능한 최대한의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예로는 관습법을 각기 자국의 법 제정의 기초로 승계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관습법계통 국가에 있어서의 신체의 자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들도 영국 국민들과 같이 인신보호영장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의 효과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만약 국민에게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의 정신이 없다면 제아무리 완비된 법일지라도 짓밟히고 그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권의 존중이 도덕법으로서 국민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기서도 역시 근본 문제다.

3.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아울러 중요한 개인적 자유를 이루는 것은 언론의 자유일 것이다. 어째서 중요하냐 하면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체의 자유를 위시한 일체의 자유를 옹호하며 이것을 가치 있게 하는 기본적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언론의 사회적 법률적 윤리적 의의를 밝히고 그 가치를 검토한 위에 자유의 남용 및 방위문제를 논하기로 하자.

언론의 자유는 사회적으로는 권력자나 다수자의 의견 또는 일반에게 수락된 표준이나 관습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반대해서 자기 판단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만약 언론의 자유가 그저 단순히 다수자의 의견에 따를 뿐인 자유라면 그와 같은 자유는 파시즘이나 나치즘 밑에서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자유라고는 말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란 설사 다수자의 의견일지라도 이것을 공공연히 비판하고 더욱이 그들이 백안시하고 또는 비난하는 의견일지라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소수자 또는 피치자의 권리를 의미하며 이러한 권리의 유무가 그 사회에 과연 언론의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란 법률적으로는 약간 다른 의미도 갖는 것으로서 먼저 이 점에 관해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 국가를 대상으로 고찰해보기로 한다.

영국이나 미국의 법률가들에 있어 언론의 자유란 주로 정부 또는 관헌이 어떤 사람의 언론이던 발표 이전에 미리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다시 말하면 사전검열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언론이 행해진 뒤에 언론을 한 자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뜻은 아니다. 다른 모든 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론에 의해서도 공안을 해치는 것은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한다. 언론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의 자유는 이와 같이 일반법규의 효력을 삭감 내지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며 언론의 자유는 일반법규 이외의 특별법규를 가지고 언론관계자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보호나 특권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동시에 언론을 특히 제한하는 특별한 법규로서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할 수 없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 말한 것은 요컨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과 동시에 명백히 법에 저촉하지 않고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는 법치주의의 일반원칙이 언론에 적용됨을 말하는 것이다. 명확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되지 단지 범법의 위험 또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결코 처벌도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이 영미법의 보편적이 원칙이다. 언론보도의 특허제도, 사전검열 그 밖의 예방수단은 이 원칙에 저촉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언론인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또는 일반법규로부터의 그들의 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따위도 법적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영미법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요컨대 언론에 관한 국가의 모든 책무가 다른 모든 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론을 폭력에서 수호함과 동시에 언로에 기인 하는

모든 비훼(誹毁)를 처벌하는 것뿐으로 국가는 언론의 지도 또는 통제에 전혀 관계하지 않고 따라서 언론에 관하여 특별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논리적으로 볼 때는 각자의 이성을 충분히 표현하는 권리를 말한다. 언어는 인간 이성의 소산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성을 지닌 사람만이 말을 하고 쓸 수 있는 동물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모름지기 이성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언어적 표현은 인간 이성 력의 표현이다. 언론의 자유란 이렇게 이성을 충분히 표현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것을 부정하는 언론의 억압은 각자에게 충분한 이성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생활을 말한다. 가장 인간적인 도덕생활은 인간적 특성(이성과 동정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억압은 인간에게 극히 부자연하고 비인간적이며 인간 이하의 생활(의욕(意慾) 또는 폭력이 지배하는 생활)의 강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언론의 억압이 폭력의 산모인 소이(所以)가 여기에 있다. 인류역사는 언론의 억압이 항상 폭력이나 그의 변형인 음모 그 밖에 유언비어의 횡행을 초래하여 세상을 어둡게 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언론자유의 가치는 존 스츄아드 밀이 그의 「자유론」 가운데서 자세히 말하고 있다. 그보다도 오히려 이 가치의 증명을 위해서 쓰여 졌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고래로 이 가치는 진보의 이론과 불가분관계에 있다.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에 접근하며 보다 진리에 인도를 받으며 생활하는 것으로서 인간생활의 가치는 더한층 증진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가치의 증진운동을 진보라고 부르며 진보가 계속적으로 실현되는 상태나 성장이며 발전이다. 만약 인류가 각자의 행복을 위한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진리에 사는 한층 고도한 문화에 도달하려면 각인(各人)은 다른 어떠한 신념이던 비판하며 더욱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사상을 주장하고 더욱 부럽게 생각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자유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개인 자유야말로 진보에 대한 불가결의 보장이다.

인류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보면 과거에 오류로서 배척되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위대한 진리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적지 않다. 그와 동시에 과거에 진리로 삼았던 학설도 오늘날에 와서는 오류라고 판명되고 있는 거의 또한 적지 않다. 진리는 어떻게 발견되며 오류는 어떻게 제거되느냐 하면 그것은 상반 상이한 사상 상호간의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판받는 경쟁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경쟁에 의해서 오류를 원만하게 차차 배제하는 힘든 동작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서 인간은 보다 높은 진리와 문화에 점차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언론의 자유는 진보에 불가결의 수단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없이는 학문이나 정치 그밖에 분야에 있어서도 진보는 없다. 진보를 멈추게 하려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다. 그것을 억압하면 그 순간부터 정체가 일어나며 퇴보가 시작될 것이다. 참으로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므로 해서 민주주의사회는 진리와 진보의 사회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요컨대 최소한 다음 네 가지 전제위에 성립된다, 그 하나는 인간생활의 가치는 보다 많은 진리에 인도되어 생활하는 것으로서 증대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 둘째는 진리에 도달하는 유일의 길은 결국에 가서 『공개시장에서의 의견의 자유경쟁』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셋째는 의견은 사람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인은 다른 사람에도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조건 밑에 생각한 바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는 이 서로간의 관용과 상이한 의견의 비교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의견이 잔존하여 그것이 일반에게 수락되어 이른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諸)전제는 언론의 자유가 남용되지 않는 한 모두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언론의 자유는 인간생활에 있어 위대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언론자유의 남용은 언론의 자유를 이성의 표현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용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사실을 관측하는데 있어서나 관측한 사실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나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순수한 목적 이외의 일체의 의욕이나 감정의 개입을 배제하고 다만 이성적 판단에 따르지 않는 한 진리는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설사 법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들에게 그러한 진리탐구의 정신이 없고 우리들의 언설이 무지, 반감, 편견 또는 사리 따위의 의욕이나 감정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라고 하면 제아무리 따지고 들어가도 진리는 발견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외형만 그럴듯한 언론의 자유다. 어디까지나 이성이 지배하는데 복종하는 공명정대한 자유의 참된 정신이 있음으로서만 언론의 자유도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성우위의 양심적이며 합리적인 그러한 정신만이 언론자유에 있어서 그 참된 의의를 뒷받침 할 수 있다.

그런데 인류의 경험에 의하면 사람은 실제에 있어서 합리적인 설득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권도 실제에 있어서는 진리탐구를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흔히 사리사욕을 관철하기 위해서 또는 광신적 독단설을 선전하기 위해서 혹은 공익을 해치고 질서를 문란 시키기 위해서 남용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남용에 관련해서 일어나는 곤란한 문제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이냐 하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한계를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너무나 관용적으로 언로의 자유를 무제한 으로

방임한다면 민주주의 그 자체의 전복을 위해서 민주주의 관용성이 역용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엄격하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민주주의 자신이 자기를 부정하는 위협을 수반하여 단순한 언론의 남용보다도 오히려 큰 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이와 같은 딜레마의 가장 현저한 예는 오늘날 공산주의에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산주의를 본격적으로 비판할 의도는 없으나 우리가 공산주의에 관해서 최소한도로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그들이 마르크스나 레닌의 독단적 교리를 절대무류(絶對無謬)의 진리라 하여 광신적으로 믿으며 또한 믿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둘째 그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상실하여 진리를 진리로서 자유로이 인식할 능력을 박탈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는데 이상 말한바와 같은 결과로서 공산주의자들은 저이들 이외의 모든 입장을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부정하며 적대시하는 절대주의, 불관용 주의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만으로도 공산주의의 정신이 민주주의 정신과 아주 정반대의 입장에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사랑 또는 큰 사회에 있어서 사랑의 표현인 관용을 그 기조정신의 하나로 삼고 있다. 확실히 관용은 민주주의 사회의 생존과 원활한 운용을 확보하는데 있어 필수요건이다. 그러한 뜻에서 우리들은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관용의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해둘 필요가 있다.

어떠한 사물에도 자기존재의 법칙은 있으며 이 법칙에 따름으로 해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칙이라는 것은 자기 부정적, 자기 모순적이 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관용은 자기 절멸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불관용을 관용하는 것은 관용에 대해서는 자멸을 기하는 자기부정의 모순된 행위다.

그리고 불관용 주의를 억압하는 것은 결코 불관용한 행위는 아닌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가 자기존재의 필수조건을 잘 자각하여 이 조건에 따라서 행동하는 즉 다시 말하면 관용을 돕기 위한 관용 그 자체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다. 불관용 주의를 억압함으로서 자유사회의 도덕법은 비로소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가 공산주의와 같은 불관용 주의를 관용하는 자기모순을 저질렀을 때 유약한 독일 자유사회가 나치스 손에 의해서 말살된 것처럼 완전히 자기생명을 절단당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고작 폭력이나 음모로 해서 무질서하고 혼란한 사회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의 비극의 하나는 실로 이러한 자기모순의 자살행위를 범하고 있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이상의 원칙론을 오늘날 민주주의사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일부 민주주의국가가 공산당을 합법적 정당으로서 인정하는 것은 그 민주주사회가 그대로 자살행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사회 있어서 불관용주의 조직화(공산당)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확실히 자기모순의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사회가 자유사회로서 존속하자면 공산당을 합법화하는 것은 자기 모순의 행위이며 이러한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세계에 있어서 많은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자각하고 또한 인식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언론에 자유에 관해서 일어나는 보다 일반적인 문제는 언론의 자유를 공산주의자들처럼 자유사회 파괴를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지는 않지만 사실을 왜곡하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용하는 것이다. 허의의 매약(賣藥)광고 같은 것이 그 한 예이다. 이와 같은 허위선전광고나 사실과 배치되는 비방을 취체(取締)하는 것은 정당한 언론자유를 보호함에 있어 당연한 조처이며 어느 누구도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은 또 다른 면에서도 일어난다. 사람들의 의견은 대개 주어지는 정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현대에 있어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신분, 잡지 라디오 등)이 점점 독점되는 경향에 있다. 그 결과는 일반 시민은 자기의 의견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실제의 역할은 적극적인 발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위 언론인이 제공하는 정보나 오보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구제책의 하나는 언론기구의 과도한 집중이나 독점을 배제하고 편집권의 독립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것에 세론이 잘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언론자유의 남용에 대한 가장 발본 적 구제책은 민중자신의 지성이나 덕성을 향상시키고 양심을 함양할 도리밖에 없다. 왜냐하면 민주정치 하에서 국민은 결국 스스로 참되게 욕구하는 것만큼의 자유밖에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다만 법의 강제만으로는 아무리 엄중히 규정했다 하더라도 언론자유나 그밖에 기본적 자유권을 충분히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에 관해서 법으로 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우리들은 굳이 위법수단에 호소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타인의 언론을 압박하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그뿐 아니라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언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라디오 스위치를 끌 수가 있다. 자유에 대한 법적 보장은 궁극에 있어 국민이 자기에게 부과한 억제에 불과한 것이니 도덕법의 관념이 국민각자의 가슴속에 보편적으로 함양되는 이외에 자유에 대한 궁극적 보장은 결코 발견될 수 없는 것이다.

공산주의 세미나 ①

공산주의와 종교

조오지 W. 크로닌 이동현 역술

1. 공산주의국가에도 종교가 있는가?

그의 유물론적 세계관에 의하여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종교는 공산주의적 세계를 방해하는 유심적 사고의 집산지라 하여 이를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하고 이의 타도운동을 공공연히 감행해온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의 내부에는 과연 그들의 의도한 대로 한 사람의 종교인도 없는가?

아니다. 종교적 신앙을 약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집요한 노력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공산주의하의 국민들을 놓치지 않고 있다. 수백 수천만의 불교도, 회교도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은 의연 공산주의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공산주의자들의 간단없는 억압으로 인하여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체계가 파괴되고 교회의 힘이 크게 손상되어 외관상 거의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예외 없이 무신론적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압력과 위협을 받고 있으며, 1918년 이래 수천의 사찰, 수도회, 수녀 목사, 회교승 들이 강제노동수용소로 가거나 처형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심성의 근저에서부터 솟아나오고 있는 초월자, 창조자에의 신앙은 이러한 억압이나 감시에 의해 살아 질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있는 곳에 신앙이 있고, 신앙이 있는 곳에 종교가 있다. 때로 신앙은 그에 대한 박해로 인해 더 충실해지고 또 성장하는 것이다.

2. 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가?

일단 권력을 장악한 공산주의자들은『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신의 것은 신에게 돌린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거부한다. 이것은 물론 그의 잘못된 철학에 의한 것이다.

그들은 다만 하나의 권위 즉 공산주의 내지 공산당에 대한 의문 없는 복종과 충성만을 요구하는 것이다.

종교가 모든 다른 권위에 대한 초월자의 신적 권위를 고수하는 한 공산당은 종교의 파멸을 위해 그의 전력을 다할 것이다.

3.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공격한 이래 공산치하의 인민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공산주의자들은 물론 공산주의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의연히 초월자들에 대한 신앙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어느 공산국가를 막론하고 전 인구에 비하여 극히 소수인 것이고 그들 중에도 극히 소수만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실천함으로서 그들 국가의 운명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절대 다수의 공산주의자들은 당에 대한 충성만이 권력이나 당에 올라가는 단 하나의 길임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다.

4. 공산주의들이 믿으라고 하는 어떤 종교가 있는가?

물론 없다. 종교란 일반적으로 하나님 또는 어떤 신에 대한 경배나 숭배로 정의된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가 되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즉 신의 존재를 거부하라는 것이다. 더구나 모든 공산당원은 단순히 신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종교를 말살하기 위한 실제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그들 지도자들로부터 명령받고 있다.

반종교적이라는 면에서 공산주의들은 하나의 광신적 교도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를 신앙이상으로 믿는 그들은 회의를 모르는 분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도그마티즘(독단주의),그리고 이렇게 전적인 회의주의의 결핍은 종종 자유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참된 종교인들을 무색케 한다. 크리스찬 자신들도 이렇게 회의를 모르는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유물주의에 대한 잘못된 신앙 –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고질이다. 기독교에 있어서 인간의 회의가 항상 문제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정신적 자유가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5. 소련에는 성당 또는 교회나 사원이 있는가? 또 어떤 종교의식이 있는가?

소련에는 경배자들에게 개방되고 있는 성당, 교회, 사원 그리고 절 등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것은 볼셰비키 혁명 이전부터 있던 것으로서 그나마도 몇 개 안된다. 이들이 이것들을 아직까지 남겨놓은 것은 소련에도 신상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혁명 뒤에 건설된 도시들에겐 예외 없이 이러한 교회가 없다. 예컨대 인구 20만의『마그니트골스크』나『스타리니스크』12만의『카라간다』에는 교회라는 그림자도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최근 일부도시에서 종교적 의식에 대해 어느 정도 완화한 듯하다. 그러나 지방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며 설사 도시민들이라 하더라도 종교적 열의를 보려는 사람은 비밀경찰에 의한 감시를 기꺼이 받을 각오를 먼저 해야 한다.「미신유포」니「반국가행위」로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6. 공산주의자들 어떤 종교를 미워하나?

공산주의를 지상의 원리로 믿기를 거부하는 모든 종교는 공산주의의 박해대상이 된다.

발틱국가나 동구위성국가에 있어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 신교, 그리스정교회들이 주로 반 종교투쟁의 목표로 되고 있으나 중앙아시아나 극동지방에 있어서는 이러한 종교적 박해의 희생물 가운데 회교도와 불교도,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포함된다.

7. 공산주의자들은 종교인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공산국가에서 종교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신앙고백으로 인하여 실제로 체포 또는 박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감시의 대상이 된다. 또한 좋은 급료나 대우를 받는 자리는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외국선교사들이 야만적 박해를 받은바 있는 공산중국에서는 종교인을 가장하여 반혁명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구실로 토착종교집단원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반종교운동에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라는 지시는 항상 강력하게 공산당원들에게 내려지고 있다.

공산주의체제의 지배하에 있는 유럽 국가들에 있어서의 이러한 반종교운동은 결국 가장 잔인한 행동의 하나로서 일반의 조롱과 조소 그리고 빈축을 사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실제로 1936년의 소련헌법은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즉「인민에 대하여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련방에 있어서의 교회는 국가와 학교로부터 분리되고 종교적 의식거행의 자유와 반종교적 선전의 자유는 전 인민에 대하여 인정됨(124조)」또한 중공도 그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공동강령 제5조에서 종교 신앙의 자유를 확인하고 있고 동독도 그 형식상의 헌법에서 무려 8개 조항에 걸친(41-48조) 미사여구로 종교의 자유를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헌법상의 보장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것이다. 종교적 자유를 취급한 이러한 구절에 대한 공식적 해석은 언제나「금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8. 어떠한 법적 응징이 성직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채택된 이래 교회의 성직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적응징이라 외견상 없다. 그러나 의연 반종교운동을 그치지 않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한층 악질적인 방법으로 이들 성직자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일컬어「반국가행위」를 했다느니「제국주의자들의 스파이」라는 것이 그들이 발명해낸 편리한 박해이유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구금되거나 처형된 성직자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1956년 위성국가의 정권들이 정치범을 일부 석방했을 때에도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은 아직 감옥 안에 있거나 집에 연금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는 한편 젊은 세대들을 종교로부터 분리시키기기 위하여 갖은 술책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들이 이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소위 종교적인 늙은 세대가 어서 죽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라나는 젊은 세대가「물질주의적 인간」이 될 것이라는 오산에서 교회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참아내고 있는 것이다.

9.공산주의자들은 성직자의 임명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모든 공산정권은 그의 영토 내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예를 들면 1950년의 법령에 따라서 체코 공산당의 지부인 지방(구역)인민위원회의 교회부의 수중에 그 지방의 종교적 생활과 교회에 관한 일에 대한 전적인 지배권이 주어져 있다.

교회 부는 교회재산을 관리하고 재정문제에 간섭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일하는 모든 성직자 및 고용인에 대한 봉급을 지불하고 그 등급을 사정하고 휴가를 통제하고 상여금을 통할한다.

또한 성직자의 임명에 대하여도 결정적인 권한을 갖는다.

물론 형식상 성직자는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부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임명에는 반드시 정부-즉 공산당-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는 결원을 보충할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에 임명동의서를 정부에 보내지 않으면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임명하고 마는 것이다.

10. 공산주의는 결국 종교를 말살할 수 있을 것인가?

종교는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든 공산주의의 팽창에 대한 강력한 방파제가 있으며 인류의 양심을 지키는 보루가 되고 있다.

역사는 아무리 조직적이고 강력한 무신론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오랜 견딘 일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종래의 국방 경비법은 미군의 Military Law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불명확한 용어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규율 등 허다한 미비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군형법의 제정이 시급히 요청되어 오던 바 지난 1월 16일에 새 군형 법안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 통과되어 동월 20일에 공포와 더불어 시행을 보게 되었다.

<법률>

군형법 해설 ①

김인환

1.개설

(1) 군형법이 제정되기까지

군형법이 시행되기까지는 1948년 7월 당시의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에 적용하기 위하여 공포된 군정법령인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각 군에 적용되었다. 공군에 있어서는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독립하게 되자 1950년 1월 20일 국방부훈령 제6호『공군형사법임시조치에 관한 잠정규정』에 의하여 공군에도 국방 경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므로 써 공군에도 국방경비법이 적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종래의 국방 경비법은 미군 Military Law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불명확한 용어가 허다할 뿐 아니라 개괄법의 규정 등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이 있어 이러한 미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군형법 및 군법회의법의 제정이 요청되어 오던 바 1962년 1월 1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군형법안이 의결 통과되어 동년 1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보게 되었으며 군법회의법도 동일에 공포되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을 보게 된 것이다.

⑵군형법의 특징

1. 국군법은 일반형법에 대한 특별형법으로서 군대사회에 적용할 것을 그 고유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법 피적용자가 본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일반형법에 우선하여 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본법에 규정된 이외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일반형벌법규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군형법은 군 고유의 목적인 전시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의 안정과 군기유지에 필요한 것이면 일반형벌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도 죄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군형법은 전쟁이라는 비상사태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형에 있어서 극형에 처할 것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형이 가중되고 있다.

2.군형법은 종래의 군정형법인 국방 경비법 및 해안경비법중의 실체규정에 대치되는 것으로 양자를 일원화한 통일법전으로서 육해공군에 공통히 적용되는 것이다.

3.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에 있어서는 죄형 법정주의등의 견지에서 위헌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법률상의 문제가 있었으나 새로운 군형법과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군법회의법의 제정으로 이 문제들은 해결되었다고 하겠다.

⑶군형법의 구성 및 내용

군형법은 1편 총칙, 2편 각칙과 부칙으로서 전문 100조로 구성되고 있으며 총칙은 군형법 전반에 걸치는 원칙적 규정을 각칙은 각종의 범죄를 규정하였으며 부칙은 시행기일과 법의 적용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면의 제약도 있으므로 이하 군형법의 각 본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깊은 이론적인 해석을 피하고 군형법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돕는데 그치려 한다.

2.총칙

(1) 피적용자(제1조)

1.군인

여기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을 말한다.

2.군속

3.군적을 가진 군소속기관의 학생생도와 간부후보생

4.소집 중에 있는 예비역군인

5.군사훈련을 받은 재영중(在營中)인 학생

6.기타 내외국인

위와 같은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군형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하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라도 예외적으로 ①요새지 군항지역 기타 또는 진영내에서 적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적에게 누설하는 죄(제13조 3항), ②유해 음식물공급죄(제42조), ③초병에 대한 폭행협박죄(제54조), ④초병에 대한 집단폭행협박죄(제55조), ⑤초병에 대한 특수폭행협박죄(제56조), ⑥초병에 대한 집단특수폭행협박죄(제57조), ⑦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죄(제58조), ⑧초병살해와 예비음모죄(제59조), ⑨초소침범죄(제78조), ⑩포로간수자의 포로도주죄(제87조) 및 동미수죄(제91조) ⑪포로도주원조죄(제89조)

및 동미수죄(제91조), ⑫포로탈취죄(제89조) 및 동미수죄(제91조) ⑬도주포로비호죄(제90조) 및 동미수죄(제91조)를 범한 자는 내국인이거나 외국인이거나를 막론하고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⑵본법에서의 용어의 정의(제2조)

1.상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자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명령복종관계 없는 자간에서 상계급자와 상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2.지휘관

중대장이상의 군부대의 장과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3.초병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수지수해(守地守海) 또는 수공(水空)에 배치된 자를 말한다. 공군에 있어서 초계 비행자나 요격관제사가 근무에 배치된 때에는 수공에 배치된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4.부대

군대 군의 수위 및 학교와 전시 또는 사변시에 있어서 이에 준하는 특수시설을 말한다.

5.적전(敵前)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그 내습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

6.전시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거나 대적행위를 취한 때로부터 당해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한 휴전협정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사변

전시에 준하는 동란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

⑶사형집행(제3조)

사형은 소속군참모총장 또는 군법회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⑷타법적용예(제4조)

군형법의 피 적용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군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타일반 형벌법규를 적용한다.

3. 각칙

⑴반란의 죄

1.반란죄(제5조)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는 것이다.

반란죄를 형법의 내란죄의 특별 죄라고 하는 설이 있으나 판례는 반란죄를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관헌에 반항하여 다중적 폭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내란죄와 같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을 것에 한하지 않고 기타의 공분(公憤)이나 사분(私憤)으로 범한 경우도 포함하며 그 목적에는 불구하고 군인이라는 신분과 범죄의 목적에 있어서 내란죄와는 구성을 달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특별 죄라고 해(解)하고 있다. 군인의 신분이 없는 자가 자금 병기 탄약 등을 공여하여 군인의 반란행위를 방조한 때에는 반란죄의 공범으로 처벌됨은 물론이다.

본죄의 처벌은 그 관여의 태양에 따라 ①수괴는 사형②모의에 의거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와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③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수괴」라 함은 다발인(多拔人)을 지휘, 통솔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반드시 1인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 반란의 발의자 또는 주모자에 한하지 않는다. 또 폭동의 현장에 임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 「모의참여자」라 함은 수괴참상담상대로서 반란의 계획에 종사한 자를 말하며 「지휘자」라 함은 반란에 가담한 전부 또는 일부의 반도의 지휘를 담당한 자를 말한다. 「부화뇌동자」와 「폭동관여자」는 집단에 있어서 특별한 책임 있는 지위에 서지 않고 다만 직접으로 폭동에 노동참가하여 그 세를 확장, 증대케 한 자를 말한다.

본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며 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본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처벌한다. 단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동맹국에 대한 행위도 본죄를 구성한다.

2.반란목적의 군용물 탈취죄(제6조)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탈취하는 것이다. 본죄는 이러한 목적을 지니고 물건을 탈취하기만 하면 기수에 달하고 반드시 목적의 달성여부는 불문한다.

처벌은 전기 반란죄에서와 같다.

미수범과 예비,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처벌하며 동맹국에 대한 행위도 본죄를 구성한다.

3.반란불보고죄(제9조)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기타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처벌은 2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타의 가중되어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동맹국에 대한 경우도 본죄가 성립한다.

(차호 계속)

구석구석 살펴보자
붉은 마수 노리는 곳
간첩자수기간
표 어

<과학>

TV원리와 현황

한기빈

지난 1월5일부터 매일 다섯시간 씩 방송을 시작한 KBS-TV(HLCK)의 개국과 아울러 공보부에 수상기를 도입 보급하게 되자 요새 너도나도 텔레비전 붐으로 한창이다.

약 30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이 TV가 실지로 외국에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2차대전 후며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56년 5월이었다. 그 당시 0·1KW의 출력으로 상업방송을 하던 이 HLKZ-TV는 1959년 2월에 화재로 인해 시설을 소실당하고 그 동한 하루 30분씩 방송을 계속해왔던 것이다. 이번 출력 2.5KW로써 본격적인 출발을 한 KBS-TV와 더불어 일반의 TV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비추어 여기에 TV에 대한 원리를 기술적인 면을 피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TV란 한마디로 해서 전화나 라디오가 먼 곳의 소리를 전달해주는 것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장면을 소리와 함께 다른 곳에서 들으며 볼 수 있는 전기적인 장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라디오가 방송국에서 음파를 「마이크로폰」을 거쳐 전기적인 신호가 되어 이것을 전파로 공중에 발사하면 수신기로 받아서 「스피커」를 통하여 전기적인 신호가 음파로 재생되듯이 TV도 그 송수상계통을 살펴보면 어떤 움직이는 장면 즉 방송국내에서 연출하거나 현장을 중계하거나 또는 어떤 영상필름을 돌리거나 간에 그 장면 장면을 빛에서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광전 장치를 통해 영상신호로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전파로 공중에 발사하면 이 전파를 받아서 전기적 신호를 빛으로 바꾸는 전광장치(브라운관)를 통해 그 장면을 다른 곳에서 같은 시간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상과 동시에 들리는 소리는 라디오와 같은 방법으로 송신되지만 보통의 AM(진폭변조)방식이 아니고 FM(주파수변동)방식을 사용한다. 즉 TV는 영상만을 받는 장치와 라디오가 함께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TV의 영상만에 대해 설명을 하기로 한다.

우리가 매일 보는 신문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많은 점들이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많은 점의 어떤 것은 그 직경이 크고 또 어떤 것은 직경이 아주 작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다. 직경이 큰 점들이 모여 있는 곳은 검게 보이고 작은 점들이 있는 곳은 희게 보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훌륭한 사진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 한사람이 갖고 있는 사진을 또 다른 한사람에게 직접 보내지 않고 그와 같은 사진을 하나 만들고 싶을 때 두 사람이 서로 전화 또는 다른 방법으로 연결이 된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똑같지는 않아도 그와 비슷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먼저 보내려는 사진을 세로와 가로로 많은 선을 그어서 그 사진을 많은 작은 정방형으로 구분해놓고 그 사진을 받으려는 사람은 백지에 위에서와 같이 선을 그어서 많은 정방형을 만들어 놓는다. 이 두 사람은 사전에 빛의 명암 또는 색채에 대하여 부호 또는 이름을 붙여서 어떤 부호는 어느 정도의 밝기 또는 어떤 색을 뜻한다는 약속을 해놓고 사진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부호의 통지에 따라 칠한 준비를 갖춘다.

사진을 보내려는 사람은 아까 구분해 놓은 정방형들 중에서 맨 위쪽의 왼쪽칸 부터 차례로 오른 쪽으로 따라 정방형들 하나하나에 대한 부호를 받을 사람에게 연락하면 사진을 받을 사람은 그 부호에 해당하는 칠을 역시 맨 위쪽의 왼쪽 칸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로 칠해 나간다. 이리하여 맨 윗줄이 다 끝나면 그 밑줄의 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칠해 나간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정방형의 칠이 끝나면 보내려는 사진과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사진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사진을 가능한 한 세분한다면 양편의 사진이 아주 같아 질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사진을 직접 보낸 일 없이 같은 사진을 전달할 수 있다는 알았다. 이와 비슷한 원리에 의하여 전기적인 방법으로 사진을 보내는 방법에 우리나라에서도 몇 해 전에 개통을 본 바 있는 전송사진(Frame)이라는 것이 있다. 주로 시간을 다투는 「뉴스」용 사진의 전달 또는 기상관측에 필요한 기상도의 교환 또는 전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TV란 먼저 말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화면을 전달하는 것이나, 지금 말한 전송사진과는 문제가 다르다. 즉 전송사진에 있어서는 화면 하나를 전달하는데 약간의 시간 예를 들어 수분에서 2,30분 걸려도 무방하나 TV에서는 움직이는 화면 즉 영상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영상을 전달하나?

우리는 영화의 원리를 잘 알고 있다. 영화란 사람의 눈이 가진 특성의 하나인 잔상작용을 이용한 것이다. 즉 1초 동안에 조금씩 다른 장면을 어떤 수 이상 비쳐주면 우리는 움직이는 장면으로 보게 된다.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면 장수는 12.5이냐 이것으로는 장면이 바뀔 때 껌벅거리는 것 때문에 현재 상영하는 영화에 있어서는 24로 되어 있다. 즉 1초간에 24매의 조금씩 다른 화면을 봄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움직이는 장면으로 보게 된다.

TV란 앞서 말한 전송사진과 지금 말한 영화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지한 한 장면을 그리기 위해 수많은 광점의 명암도를 마치 「타이프라이터」를 칠 때처럼 맨 위쪽 왼편에서부터 순서대로 오른편으로 간 다음 다시 그 아래 줄 왼편으로 돌아와서 오른편으로 그려 나간다. 이렇게 이루어진 장면을 1초간에 2,30매 보내야 비로소 움직이는 영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좌로부터 우로 광점을 쫓아가는 과정을 주사(走査)라고 하여 좌단에서 우단까지의 하나의 선을 주사선, 그리고 하나의 주사선을 다 그린 다음 다시 왼쪽 아래편으로 고속도로 돌아오는 것을 귀선(歸線)이라고 하며 이 귀선은 화면 구성상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방해가 됨으로 이것은 없애 버리는데 이를 귀선소거라고 한다. 주사는 옆으로 가는 수평주사와 수평주사를 그리며 아래로 내려가는 수직주사로 구분된다. 이 주사방식에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비월주사방식이다. 또한 TV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송신과 수신의 동작이 시간적으로 일치해야만 송신하는 영상이 지체 없이 수상기에 나타날 것이다. 즉 송수신 양편이 시간적으로 똑같이 주사를 행해야만 영상이 제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를 동기(同期)라고 하며 송신되는 전파 속에는 이 동기신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TV가 선명하게 보이려면 주사선이 많아야 하며 또한 매초간의 상(Frame)수 또한 영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는 525개의 주사선과 30매의 상수를 쓰고 있으나 나라에 따라 그 수가 약간씩 다르다. 각국의 주사선수와 상수를 보면 주사선수에 있어서 영국이 405, 프랑스가 818, 기타 유럽 대륙에서는 625이고 상수에 있어서는 25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TV는 일초 간에 25~30매의 상을 보내야 하고 이 하나 하나의 상을 보내는데도 무수한 광점의 전기적 신호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사용되는 무선주파수는 필연적으로 주파수가 높은 초단파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 초단파의 성질은 보통 중파나 단파와는 달리 광선의 성질과 비슷해서 직사(直射)밖에 안 된다. 즉 반사가 거의 없고 전파가 똑바로 뻗어나가는 것이다. 고로 소위 가시선상의 범위 내에만 전파가 전달되고 산이 가로놓였다든가 또는 지평선 너머로는 전파가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TV를 수상할 수 있는 범위란 50~60「마일」밖에 안 되고 그 범위 외의 지역에서 중계소 없이는 수상할 수 없는 것이 TV의 불이익한 결함이라 하겠다.

현재 TV의 대부분이 흑백 TV이지만 외국에서는 천연색 TV 방송도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천연색을 2원색 또는 3원색으로 분해하여 송상하고 수상은 눈이 잔상작용에 의하여 원색을 합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상으로 TV에 대한 원리를 대략 설명했다고 보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외국의 TV현황에 대해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앞서고 있는 미국은 방송국 약 580개국에 수상기가 5천6백대, 영국은 방송국 20여 개국취상기대수가 1천1백 만대, 프랑스가 근 50개국에 수상기가 2백여 만대, 그리고 서독은 방송국이 백여 개국에 수상기가 5백 만대 보급되어 있다.

한편 녹음기와 같은 자기적 방법에 의해 영상을 녹상(錄像)하는 녹상기(Video Tape Recorder)의 출현으로 「프로그램」제작 및 복사가 매우 간편해졌으며 또 경제적이므로 날로 발전해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도 현재 약 2만대의 수상기가 보급되어 있고 앞으로 곧 1만3천대가 더 들어오면 3만대를 상회할 것임으로 TV계의 앞날에 기대되는 바 크다 할 것이다.

TV와 가정

TV는 다시없는 여러 가지 의 즐거움을 가정에 공급해 주고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의 가정에 있어서 필요한 시간을 빼앗아가는 폐단이 있다. 이를테면 주부들은 가사의 시간을, 아이들은 공부시간, 수면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같은 점은 미국이나 영국등 TV가 보급 된지 오래된 나라에서도 계속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TV를 통한 교육은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공업학술연구, 그리고 실험광경을 통한 교육에는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의학에 있어서도 우수한 교수의 모범수술 장면등을 확대 영사하면 많은 학생이 가정에 견학하는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공군 예비역 장병을 찾아서 ②

그 후의 생활

‖「KNA」 차형태(車炯泰)씨의 경우‖

<차형태씨>

하늘을 날고자하는 고래로부터 인류의 꿈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실현을 보게 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늘을 나는 유인 항공기가 실제 전쟁수단으로서 전쟁에 이용되기에 이르렀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부터는 항공기가 상업교통수단으로서 널리 이용되게 되었으며 오늘날 전 세계를 커버하는 상업항공교통망은 고도로 발달된 통신수단과 함께 지구표면의 면적을 좁혀 놓았고 몇 세기전의 우리의 조상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일 수개월 혹은 수년간에 걸쳐서 여행하던 것을 오늘날의 인류는 불과 수 시간 내에 안전하게 여행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선진국의 그것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항공기들을 도입하고 대한국민항공사(KNA)가 설립되었으며 서울과 대구, 부산, 광주, 제주도 및 강릉 등을 연결하는 국내항로를 취항하는 동사(同社)의 사발여객기는 연간 6만여 명의 승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실어 날고 있는 것이며 상업전선에서 활약하는 공군예비역장병 탐방계획의 일환으로서 KNA에서 기관정비사로서 근로하는 차형태씨를 여의도공항에 있는 동씨의 근무처로 찾았다.

다음의 글은 차형태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1931년 11월 10일에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 있는 선린상업중학교를 거쳐 공군에 입대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인 1952년도 다 저물어가는 12월이었다. 항공병학교에서 신병교육과정을 마친 나는 1953년 4월부터 제1훈련비행단의 정비보급전대에서 처음으로 항공기관정비사로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 워낙이 군대의 모든 규율에 익숙지 못한 신병생활이란 고된데다가 항공기 정비라는 힘든 분야에 근무하게 된 것을 무척 원망했다. 더욱이 중학교시절에도 과학에 별 흥미를 느껴보지 못한 나였던 만큼 학과에 대해서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 군인이었으며 과외(課外)의 적극적인 연구는 하지 않더라도 배워주는 학과만은 충실히 습득했다. 그 당시는 교육의 진도가 어찌도 빨랐던지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나로서는 학과에 뒤지지 않기에 무척 고생했다. 그러나 회고하면 그것이 나에게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고 기술인으로서의 나의 생활의 첫출발이었던 것이다.

한국공군에 C-46 수송기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부터 나는 제1차 Flight Engineer 교육요원으로서 선발되어 조종사들과 함께 미군으로부터 비행훈련 및 정비교육을 받았다. 6개월의 교육기간을 통하여 오전에는 학과 교육을 받았고 오후에는 비행훈련을 받았으며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는 5공수전대에 배속되어 지상 및 기상정비사로서 근무했다. 기상정비사로서 근무하면서 나는 해외출장으로 오키나와에도 갔었으며 1957년 9월 15일 전역할 때까지의 비행시간이 8백여 시간이나 되었다. 전역 후 KNA에 근무하면서부터는 군 복무시 기술습득의 기회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사실상 민간기업체는 그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한국의 현 실정으로는 군과 같은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기술교육시설을 갖출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머지 않는 장래에 한국의 민간항공계에도 제트여객기가 도입된다면 그때는 현재 제트항공기의 정비를 하며 경험을 쌓고 공군에서 배출되는 기술자들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역시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는 다른 특기에 종사하는 동료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는 동안에 일어나서 추운 겨울의 밤이 미처 밝기도 전에 「라인」에 나가서 작업하며 여러 가지 불평도 가져보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그러한 생활이 없었던들 전역 후의 내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그 당시 교육을 받으면서 만든 노트는 지금도 대단히 긴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가령 작업 중 험로에 부닥치면 그때 만들어 두었던 노트를 참고로 하며 그럴 때마다 「왜 교육을 받을 때보다 더 열심히 배우지 않았던가?」하고 뼈저리게 느끼곤 한다.

군에 복무하는 가운데도 정비사라는 고된 직무가 전혀 고생스럽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선진국의 공군에 비해 여러 가지 불비(不備)한 조건에서 동질적인 작업을 하자니 험로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상이 있어서 이륙치 못하던 항공기를 심혈을 기울여 정비하고 그러한 항공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의 정비사의 환희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 정비 분야에 종사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전역 후 1959년 10월 1일부터 KNA에 입사하여 기관정비사로서 근무해온 차형태씨는 다시 신병으로서 군에 입대한다면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슴지 않고 정비에 종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고 기술을 연마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발동기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계속하므로 써 보다 더 훌륭한 기술자가 되어보고 싶다는 장래의 포부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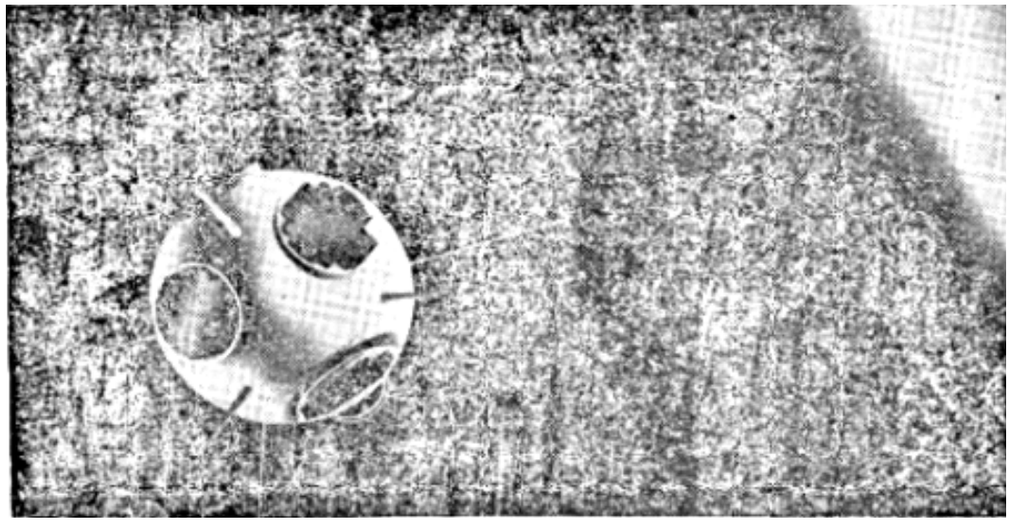
처음 KNA에 입사 당시 월봉은 3만6천환이던 것이 지금은 6만환으로 올랐으며 자기의 기술이 향상되고 경험이 쌓여지는 데도 봉급이 계속하여 오를 것이라고 한다.

재작년 1월에 친지의 중개로 상명여고 출신의 재원인 금년 24세의 박병숙(朴炳淑)씨와 결혼하였으며 슬하에는 작년에 낳은 귀염둥이 첫딸이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며 기자는 씨의 가정에 변함없는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했다.

〈민재익(閔載翼) 기(記)〉

사진:KNA동료들과 일하고 있는 차형태씨(○인)



평화순찰 중인 우주카메라

평화순찰중인 우주카메라

로버트.S.스트러더

공산주의자들은 일찍이 세계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공중개발감시안〉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끊임없이 군비를 확장함으로써 자유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고성능의 고공용 카메라를 인공위성에 적재하여 소련과 중공 상공의 통과를 포함한 극궤도를 선회케 함으로써,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1960년 5월에 U-2기의 소련상공 비행이 취소된 직후, 당시 미국방장관은 상원 외교 분과위원회에서 경이적인 진술을 했다.

즉 4년에 걸친 일련의 소련상공 감시비행을 통하여, 고공에서 촬영된 수천 매의 사진으로부터 미국은 비행장, 항공기, 미사일 실험 및 훈련, 핵무기저장, 잠수함, 원폭제조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토마스.E.게이츠〉씨가 말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다른 소스에서 수집된 정보와 결합되어 소련의 군무에 관한 명확한 관찰을 이룩했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었다.

경탄할 만한 고고도용 카메라의 위력이 철의 장막을 깊숙이 꿰뚫고 들어가 일찍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유세계의 방위를 위하여 필요 부결한 것〉이라고 일컬은, 정보를 탐지하는 활동에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우수한 성과를 올렸던 것이다.

이 공중사진은 단지 기습공격에 대한 전략적인 경보수단을 대비시킨 것만은 아니었다. 즉 고공카메라가 미국의 폭격기와 미사일을 위해 지도상의 좌표와 사정에 관한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면서 스푸트니크1호가 발사되었던 스탈린그라드 동남방의 거대한 미사일 실험장 〈카푸친.야〉와 소련판 케이프 커네버럴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아랄 해 동방 80마일 지점의 〈티우라.탐〉등과 같은 소련의 군사시설을 정확히 조준하여 촬영했다는 사실을 흐루시초프가 가정하게 된 이후로 이 사진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강력한 전쟁제지수단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U-2기비행의 취소는 하나의 불길한 사태를 야기 시켰다.

소련의 미사일과 우조과학이 장족의 진보를 거듭하고 있던 바로 그 당시에 미국은 그의 가장 우수한 정보수집기구(공중카메라)의 사용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그 역할을 대행할 것인가?

특히 유인U-2기가 일찍이 20마일이내의 상공에서 수행했던 임무를 지구 수백 마일 상공의 궤도상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행하기 위한 자동카메라가 제작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미 국방성은 싸모스계획(인공위생 및 미사일관측시스템)에 수백만 불의 자금과 그 가능성을 시사한 여러 분야의 전국적인 공학기술을 투입하고 있다.

지금도 복잡한 자동 촬영 장치를 적재한 4100파운드의 〈싸모스〉II 호가 300여마일의 고공으로 하루에 7회씩 소련을 통과하면서, 근 1년 가까이 극궤도를 선회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진보된 작전용 모델을 위하여 작업은 급속도로 진보되고 있다. 〈싸모스〉제작의 주정부업체는 U-2기를 설계한바 있는 〈록히드.에어크래프트〉사다. 거의 매일같이 사복을 한 공군장교들이 완성되는 부속품들을 잠궈 놓기 위해서 〈록히드X아이텍X이스트맨 코댁X퍼어킨.엘머X에어러젯트.제네럴X제너널.일랙트릭〉사 등의 공장에 집조(集燥)하게 대기하고 있다

부속품들은 표식 없는 트럭에 급히 실려서 신형제작에 종사하는 과학자와 장교들만이 알고 있는 시험소로 운반된다. 〈싸모스〉계획은 공중조준과 조종에 관한 광범한 난문(難問)을 내포하고 있는데, 역시 기구의 핵심은 거창한 카메라에 있다.

공중에 떠 있는 자동카메라의 개념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공군의 〈선각자〉들이 그의 실질적인 연구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무모한 꿈처럼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우수했던 정찰카메라는 초심거리 48인치(렌즈에서 부터 필름까지의 거리가 48인치인)의 렌즈를 사용했다.

이 카메라는 60,000피트, 혹은 11마일 상공을 비행하면서 사방 2마일의 지구를 촬영할 수 있었는데 그 사진은 직경 2피트정도의 작은 물체까지도 나타내었다.

초심거리가 클수록 보다 작은 세부까지 촬영할 수 있지만, 대형렌즈를 제작하는 문제는 많은 난관에 가득차 있다. 예를 들면, 광선의 굴절성도 고고공(高高空)에서는 변화한다. 기압이나 기온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선명한 초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합렌즈의 각 요소가 각종변화에 적절히 부응되어야만 한다.

정확한 조준도 역시 난제의 하나였다. 비행기는 안전한 기대(機臺)가 못되는데, 렌즈의 확대율이 크면 클수록 카메라의 동요를 제지해야 할 필요성도 증대한다.

공중카메라는 일반 적을 〈자이로스코프〉에 의해서 수평이 유지된 대에 제치(製置)되는데 48인치 이상의 대형카메라는 다루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당시〈오하이오〉주〈데이톤〉의 〈라이트 기계제작소〉책임자이던 조지.W.고다드 준장은 일찍이 하버드대학의 〈제임스.베이커〉박사, 보스톤 대학의 〈던켄.맥도날드〉박사, 그리고 자기 참모인 〈암롬.캇츠〉박사 등 광학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최거리 사진술에 관한 일련의 신속한 진보의 빛을 보였다.

그들은 쌍안경의 〈중첩광학〉의 원리를 이용한 공중카메라렌즈를 개발했다.

이 기구는 광선을 길고 곧은 원통 속으로 유치(誘致)하는 대신, 광선을 주위에 반사경이 부착된 사각형의 모형 속으로 반사시켰다. 그 결과, 이 기구는 카메라 자체의 길이를 증대시키지 않고서도 렌즈의 초점거리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선수에 뒤이어, 고다드 장군일원은 성능이 우월하고 치밀한 100인치 형 공중카메라를 개발했다.

〈아이택〉회사의 워싱턴 사무실에서 고다드 장군은 1949년에 100인치 카메라로 촬영한 98인치의 사진 한 장을 보여 주었다.

그 사진은 깃발을 들고 있는 케리〈골프하는 사람의 심부름 꾼.역자 주〉의 모습과 더불어 〈휘트.워어드〉골프경기장의 한 골프공 구멍 주변을 찍은 것이었다.

그런데 구멍 주변에 골프공 두 개가 있는 것까지 보였다.

『8마일 상공에서 찍은 건데도 참 훌륭하죠, 하지만 그건 12년 전 것입니다.

최근의 진보상황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선생은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예전 상태에서 답보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장군은 말했다.

이제까지 알려진 가장 우수한 카메라는 500인치(근40피트)의 초점거리와 직경 2피트의 대물렌즈를 구비한 〈퍼킨.엘머와 로티〉위성 미사일 추적기다.

이 카메라는 수백 마일 상공을 선회하고 있는 인공위성의 사진을 지상에서 훌륭히 촬영했다.

당국의 침묵은 〈싸모스〉II 호 카메라의 제원(諸元)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업지는 〈싸모스〉II 호 카메라가 40피트 이상의 초점거리를 가지고서 300마일 고공에서, 12인치의 물체를 그 배경과 대조하여 능히 분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보한 적이 있었다.

공중사진술을 위한 유일한 필요조건은 이동보정이다.

〈싸모스〉II 호는 최소한 17,000마일의 시속으로 항행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에서 촬영된 사진이 어떻게 하면 희미해지지 않을 것인가?

기술자들은 〈포토.휜이쉬〉카메라(경마에서 승패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사진을 찍는 카메라)의 원리를 이용한 경마추적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다.

즉 광전지에 의해서 조종되는 모터가 이동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속도로써, 한조각의 필름을 가느다란 틈사이로 해서 카메라 안으로 끌어 들이는 것이다.

펜타곤(국방성)에는 경마추적 카메라에 관한 항공학적 견해에 의해서 제작된 유명한 사진 두 장이 철해져 있다.

한 장은 공군사병 넷이서 카드놀이를 벌리고 있는 활주로의 3,000피트 상공을 비행하던 비행기에서 찍은 것이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카드 한 장을 들고 있는데, 스페이드 하나가 명확하고 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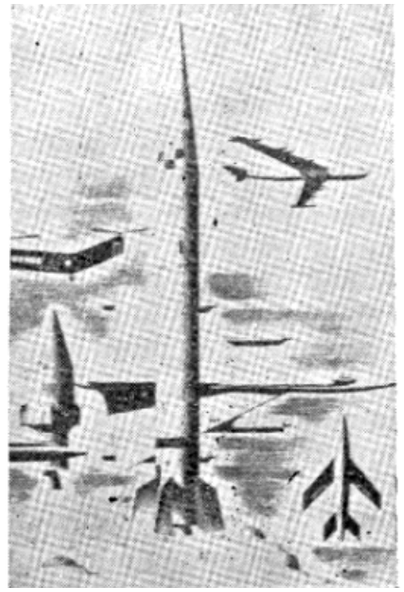
다른 한 장은 반대방향으로 먼젓번 비행기의 상공을 날던 비행기가 찍은 것이었다. 그런데 시속 1,000마일의 중첩된 속도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은 아래 비행기날개의 못들을 낱낱이 나타내었다.

하지만 작전용의 <싸모스>카메라는 보다 정밀해야 된다. <싸모스>는 남북 간의 극궤도로 매일 지구를 15회나 선회한다.
그런데 밑에 잇는 지구도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고 있는 고로 (적도상에서 초속1,500피트)측면과 전면의 두 방향에서 이동보정이 필요하게 된다.
아마 <싸모스>II 호는 셔터가 열릴 순간 상하좌우로 흔들려지는 카메라 속에 고속도필름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촬영된 지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싸모스>카메라는 견줄 데 없는 정확성을 필요로 한다. 인공위성이 도는 고도에서는 항상 별을 볼 수 있으므로, <싸모스>는 소형보조 카메라로 바로 상공에 있는 별을 동시에 촬영함으로써 각 지표촬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공중첩보는 가시광도하의 사진술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깜깜한 야간에도 목표물을 보이게 하는 적외선 촬영 술도 상당히 발전되었다. 두꺼운 운층(雲層)을 투과하여 지표를 정확히 촬영하기 위한 레이더 사진술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육군통신대에서는 정찰텔레비전을 전장감시카메라와 함께 무인비행기에 적재하여 실험한바 있었다.
아마 이러한 카메라들은 앞으로 나타날 인공위생에 적합할 것이다.
또한 <싸모스>의 자매라 할 수 있는 일종의 진보된 시험용 첩보위성이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그것은 <미다스>IV 호(미사일방어경보 시스템)다.
공군당국은 지난 10월 21일에 <미다스>가 고공의 극궤도에 진입하여, 매 2시간 50분마다 지구를 선회하면서 소련과 중공의 광범한 지역을 자세히 촬영할 수 있게 되자, 기쁨의 환성을 올렸다.
<미다스>의 감도가 강한 적외선탐지장치는 2,100마일 상공에서도 자동경보기에 의해서 미사일 발사의 격렬한 열과 후면의 섬광을 순식간에 식별할 수가 있다.
공중사진의 지상반송은 <티로스>III 호(텔레비전 및 적외선시찰위생)에 의해서 매일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티로스>III 호는 <싸모스>와 <미다스>의 폭풍을 사냥하는 4촌이라 하겠다.
<티로스>III 호는 적도 남북 방 48도의 궤도로 지구를 선회할 때, 기구에 장치된 2대의 광각카메라와 텔레비전 장비로 450마일 상공에서 구름의 형태를 촬영한다.
그 중 몇 매는 곧 주사되어서 전송된다.
나머지는 자기테이프에 수록되었다가 지시에 따라 지상의 관제소로 전송된다. <티로스>가 찍은 사진은 필요를 느끼는 모든 국가에 아무 제한 없이 공급되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원하고 있다.
지난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회의에 100개국에서 모인 기상학자들이 참석하여 <티로스>자료에 기초를 두고 있는 지구를 둘러싼 기상 망에 대한 연구계획을 수립하였다.
<티로스>사진은 너무 적어서 군사 활동의 명료한 상황은 검출할 수 없으며, 또 무선전송과정에서 어찌되었던 간에 질적 손실을 본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노출된 필름 자체를 지상으로 내려 보내기 위한 방법이 지금 모색 중에 있다. <디스커버리>호 실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 이 실험에서는 비행기를 마치 비구(飛球)를 갖는 외야수처럼 태평양 해상주변을 추적시켜서, 위성에서 배출된 캡슐을 건지게 하였다.
발전을 거듭하면 할수록 실험도 많아진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년 이내에 <싸모스>와 <미다스>는 모두 정규적인 지구순찰에 취역하게 되어, <미다스>는 적의 미사일발사를 감시할 것이고 <싸모스>는 전쟁물자와 군대의 중요한 증강을 경계할 것이다.
이상의 각 위성은, 4개 혹은 4개 이상의 위성으로 개성(槪成)된 하나의 시스템으로써 작용하고, 극궤도를 선회하면서 항상 전 지구를 감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하여 현재의 적 미사일 발사 15분 경보는 앞으로 2배의 힘을 낼 것이다.
공중 감시구를 발전시키려는 이 사업에는 막대한 금액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즉 <싸모스>개발사업 하나만 에도 지나간 3년 반에 걸쳐서 30억불의 경비가 소요되었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바야흐로 전 세계를 휘덮고 있는 절박한 긴급상태가, 중요한 기습공격을 기도하고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단순한 증거자료로써 해소될 수 있고, 아울러 세계 각국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신념에 의하여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1955년 <공중개발감시>계획을 위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소련이 그들의 스푸트니크나 보스토크를 미국영토 상공으로 띄우는데 미국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인공위성을 평화순찰 시키는데, 소련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작년 8월 5일 오전10시 55분, 선회중이던 보스토크 2호가 바로 워싱턴 상공을 통과했을 당시 그것은 사람, 헤르만.S.티토프 뿐만 아니라 카메라도 적재하고 있었다.)
소련은 이 공중감시기구를 <염탐군>이라고 신랄하게 논급했다.
그러나 이 개발사업의 공군책임자인 <로스코.C.월슨>중장은
『<싸모스>와 <미다스>는 수동적인 기구들이다. 즉 이들은 침공의 위협을 야기시키지 않는다. 마치 도난경보기처럼 이른바 위범자(違犯者)만을 위협할 뿐이다.』
라고 언급했다.
만고에 인간의 지혜가 비록 시간적으로 먼 일일지는 몰라도 이용에 적응될 수 있는 공중 감시구를 설계하려는 창작력과 맞설 수 있다면, 협동적인 전 세계 군비의 감시와 지구의 개방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첩보위성은 단추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의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학재 역)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의 위협에 당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간의 군비경쟁은 치열해저만 왔으며 핵탄두를 상대진영 깊숙이 어디라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이 쌍방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는 오늘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는 측에게 세력의 균형은 결정적으로 유리하게끔 기울어지게 되었다. 이에 미국에서는 수년전부터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의 연구를 위해 수십억 불에 달하는 비용을 소비해 왔으며 바야흐로 최초의 미사일 요격용 마시일인 「나이크-쥬스」미사일의 실험을 보게 되었다.

<편집자>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서……

오늘날 미국은 소련이 감행 할 런지도 모르는 중거리탄도탄(ICBM)에 의한 전면적인 핵 공격의 위협 앞에 무방비의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며 미국의 현재의 유일한 방위수단은 폭격기 및 미사일에 의한 보복인 것이다. 이것이 즉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말하는 미국의 전쟁 방지력 이라는 것으로서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서 소련이 공격할 엄두로 내지를 못할 것이라는 신념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소련이 효과적인 미사일용 미사일을 보유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세력의 균형이 결정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미사일방위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효과」이다. 최근 6년간 국방성에서는 과학소설에 나오는 듯 한 여러 가지 착상을 연구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착상 중에는 초특급의 강력한 무선전파에 의한 침입탄두의 소각, 미사일 침입경로에 입자에 의한 구름을 형성하므로 서 마찰에 의한 탄두의 파괴, 미사일을 적재한 위성을 발사하므로 서 침입미사일의 격추, 그리고 탄두를 파괴하는 자기장벽의 형성 등이 있다. 이러한 착상의 연구 실험을 위하여 30여 억불이나 소비되었으나 결과는 별로 신통치 않다. 그와 동시에 미국은 대미사일용 미사일인 육군의 「나이트-쥬스」에 10억불이상을 투자해 왔다. 「쥬스」는 침입탄두를 탐지하고 탄두의 비행의 최종 3분간에 파괴하도록 만들어졌다. 즉 미사일이 백마일 혹은

200마일의 거리 또는 상공에 도달했을 때 이를 파괴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펜타곤의 국방성 및 하원에서 「쥬스」는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다.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ICBM에 대한 유일한 방위수단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효과는 제한된 것으로서 지나치게 비용이 고가(高價)하다고 말한다. 다행히도 「쥬스」를 실제로 ICBM에 대해서 실험하는 말년에는 많은 논쟁점이 해결될 것이다. 18종에 달하는 「아트라스」ICBM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서남태평양으로 발사될 것이며 콰자데인에 있는 9억불에 달하는 지하미사일기지에서 발사되는 「쥬스」가 이를 요격할 것이다.
「쥬스」의 기능은 거의 레이더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점이 바로 기술적으로 「쥬스」가 지니는 치명적인 결함인 것이다. 「쥬스」의 레이더는 1000마일이 넘는 거리에 있어서도 정밀하게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레이더의 최대유효작용거리는 400에서 500마일에 달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느리게 나는 거대한 기체의 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쥬스」의 레이더는 매 시간 1700마일 나는 8피트의 탄두를 탐지해야 하는 것이다.
육군 및 「나이크」미사일의 제작회사인 웨스턴전기회사의 기술자들은 그들이 현재 유효한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쥬스」기구의 여러 가지 기본 장치가 최근 3년간에 미사일기지에서 시행된 사전실험에서 유효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서 육군에서는 이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된 것이며 콰자레인에 장치되고 있는 거대한 기구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비평에는 오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쥬스」의 주요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여보기로 한다.
탐지레이더 탐지레이더는 반경 1천마일이 넘는 넓은 영역의 하늘을 탐색한다. 또한 탐지레이더는 침입하는 미사일들을 탐색하고 이들의 위치 및 각도를 동시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야구장의 내야만한 크기의 송신기는 5억 와트 이상의 전력으로서 작동한다. (동 송신기가 강한 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므로 송신기가 회전하도록 설치된 시설주위에 65피트 높이의 무선주파를 막는 벽을 세워서 인원 및 근처에 있는 장비를 전자방사의 피해로부터 보호한다)
레이더 수신기는 마치 「이글루」(에스키모의 집)처럼 생겼다. 직경이 80트나 되는 반구로서 금속선과 혼합한 플라스틱으로서 되어 있다. (단 하나의 안테나를 만드는데 42트럭분의 플라스틱이 소요된다. 송신기 및 수신기는 거대한 계산기 및 자료 분석 장치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치들은 24초 내에 침입하는 미사일의 정확한 상황을 탐지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탐지된 상황은 즉각적으로 다른 레이더에 옮겨진다.
분석레이더 분석레이더는 아직도 시험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대규모 공격을 받을 때 침입해 오는 진짜미사일과 가짜 미사일을 불과 몇 초 내에 분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원리는 마치 감자를 골라낼 때처럼 레이더가 포촉한 상황을 여러 개의 계산기에 통과시키는 것이다.
목표추적레이더 침입해 오는 미사일이 확인되고 위치가 판명되면 이러한 자료들은 「쥬스」미사일 기지의 추적 레이더로 옮겨진다. 이렇게 되면 동 추적레이더는 어느 하나의 미사일을 포촉하고는 동 미상일의 속도 및 위치를 수천분의 1초마다 파악하며 다른 하나의 계산기는 동 미사일의 요격을 위한 「쥬스」미사일을 자동적으로 발사한다. 또한 동 계산기는 넷째 번 레이더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며 넷째 번 레이더는 발사된 「쥬스」미사일을 요격지점까지 유도한다. 「쥬스」장치에 사용되는 계산기보다 무려 2천 여배나 신속하며 1초 내에 2만 진산의 계산을 한다.
미사일 「쥬스」의 다른 모든 장치들에 비해 「쥬스」미사일은 지극히 간편한 것이다. 고체연료추진의 3단계 로케트로서 전장이 43⅓피트이다. 첫 단계는 사실상 거대한 다이너마이트 봉인 것이다. 이것은 불과 5초 내지 6초간에 연소되며 50만 파운드의 폭발력을 발생케 해서 미사일을 상공 3만 피트에 달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둘째단계의 로케트가 점화되고 곧 이어서 셋째단계가 점화되어서 미사일은 고도 100마일 이상에 달하게 된다. (「쥬스」는 시속 7천마일로 비행하도록 제작되었으며 대기권을 통과할 때 마찰에 의하여 소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특수한 플라스틱이 입혀졌다.)셋째단계에는 날개처럼 생긴 적은 분사구가 네 개 달려 있으며 여기서 분사되는 뜨거운 가스에 의하여 동 미사일이 조종된다. 또한 셋째단계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모터가 장치되어 있으며 이것에 의하여 50마일내지 100마일을 비행한다.
탐지레이더가 최초로 침입하는 미사일을 탐지하여 이를 요격하기까지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3분이다. 이러한 시간 내에 수백만의 계산이 행해지는 「쥬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정지시키는 것뿐이며 또한 작동을 정지시키는 것도 아무 때나 간단히 단추만 누르면 되는 것이다.
「쥬스」미사일은 「탄환에 의한 탄환의 요격」과 같이 머리위에 있는 것을 요격하도록 만들어 진 것은 아니며 「쥬스」미사일의 셋째단계는 비교적 적은 핵폭탄을 적재한 것으로서 이것은 침입하는 미사일의 진로에서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침입하는 미사일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못쓰게 된다. 어떠한 경로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는 비밀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나 이점이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쥬스」에 의해서 침입미사일을 요격할 경우 우리의 머리 위에서의 몇 개의 핵폭발이 불가피한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육군 당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이러한 경우의 핵폭발의 규모가 적을 뿐 아니라 이러한 폭발이 상당한 고공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낙진이 매우 적으며 특히 적의 고성능 미사일이 투하되어 받는 피해에 비교하면 문제도 되지 않을 정도인 것이다.」

「쥬스」에 의한 방위기구를 본격적으로 시설하는 계획은 비용 때문에 아직도 확고하게 채택되지 않고 있으면 시설하는 수에 따라서 그 비용은 막대할 것이다. 미국의 방위를 담당하는 NORAD(북미방공사령부)의 사령관인 「쿠터」장군은 「쥬스」계획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초 「쥬스」계획의 입안 시에는 150여 억불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서 현재는 80억불로 추산되고 있다.
「쿠터」장군의 계획에서 의하면 대도시, 미국의 ICBM 폭격기기지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60%가 방위되는 것이다. 또 다른 계획에 의하면 대도시들은 제외한 ICBM 및 폭격기기지의 방위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비용은 훨씬 줄어진다.
비용문제 및 기술적인 의문 때문에 「쥬스」계획의 채택은 아직 미결 중에 있다. 육군당국에서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에게 동 「쥬스」 미사일을 태평양상에서 실제로 실험하기 3년 전인 1959년에는 생산을 개시하도록 요청했으나 동 계획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소요한다는 이유로 각하시켰던 것이다.
그러던 중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말기에 육군의 연구발전 민간인 책임자인 모오스 박사가 「쥬스」특별연구위원회를 조직했다. 동 위원회에는 국방성의 연구관리 책임자인 요크박사 및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과학고문인 키스차코프스키 박사의 보좌관등이 포함되었으며 동위원회는 「쥬스」의 생산가능성 및 필요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활동했다. 동위원회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의 해결을 확인했으며 특히 소련이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에 관한 연구를 한다고 확고히 주장하는 최신정보를 인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동위원회는 「쥬스」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즉각 생산할 것을 건의했다. 제한된 범위 내의 생산비용은 17억불이 소요되는 것이다. 그러나 건의를 실천에 옮기기 전에 아이젠하워대통의 임기가 만료되게 되었으며 따라서 동 건의는 케네디행정부에 인계되었다. 「쥬스」계획은 다시 케네디대통령의 과학수석자문인 위스너 박사가 지휘하는 기술단에 의하여 검토되었으며 작년 봄에 케네디행정부는 「쥬스」미사일의 효과가 실제 실험되어 입증될 때까지 「쥬스」의 생산을 연기할 것을 결정했다.
작년 가을, 소련이 대기권 핵실험을 재개했을 때 소련이 다른 병기들과 함께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의 탄두를 실험했을 것이라는 증거가 나타났다. 또한 소련의 국방상인 마리노브스키는 소련이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을 보유했다고 공언한 것이다.
「쥬스」계획을 지지하는 하원 및 국민의 압력이 증가했으며 케네디행정부는 또다시 「쥬스」미사일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생산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결정은 실제 실험이 있은 후에 행하여질 것이다.
「쥬스」미사일의 생산여부는 금년 말에 태평양상에서 동 미사일의 성능을 실제로 실험하므로서 결정될 것이다. (빨리 결정된다면 「쥬스」미사일 기지가 1965년에 본격적으로 시설될 것이다)「쥬스」미사일의 실험은 반덴버그 기지에서 「아트라스」미사일이 발사되고 반년 간 내에 과자레인에서 쥬스 미사일이 발사되므로 서 실시될 것이며 이때 「쥬스」미사일의 성능이 실제로 증명될 것이고 이의 생산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쥬스」미사일이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효과적으로 방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때 판명될 것이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가 성공적인 경우 비용이 백억불에 달하는 거대한 계획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기욱 역)

자유와 전통과 인간
-라스카말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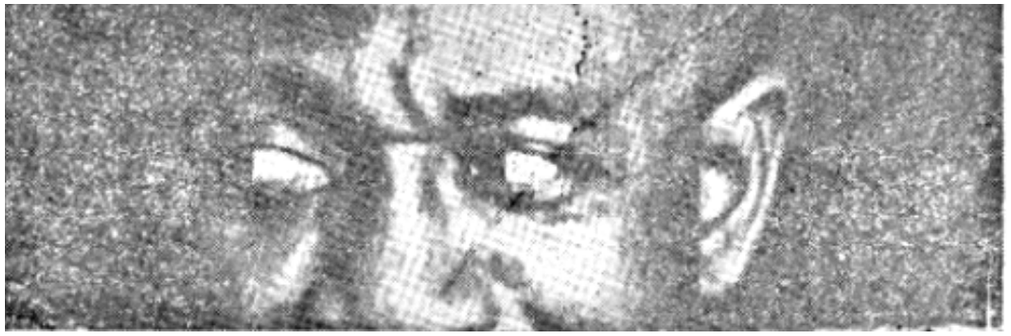
내가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하나의 높은 목적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이 만든 규칙에 복종할 때 나는 참되게 자유인 것이다. 이 자유가 나의 참된 선이며 그 규칙에 복종하는 가운데에 나는 나의 자유를 발견한다. 왜냐하면 이 같은 목적이 없다면 나는 안내자 없는 해상의 표류자이기 때문이다.
참된 자유이기 위해서는 나는 맹목적인 행동의 명령에 따름이 아니라 나의 참된 자아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데에 나의 자유의 제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적 전통의 모든 혁명적 국면에 있어서 흥미 있는 현상은 실제로 수행된 특권의 확장이 이 확장을 만들어낸 형식적 기반 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였을 때 그들이 실망하기 쉽다는 것이다.
성립시초부터 국가는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목적에 대한 수단이었다. 한정되고 개별적이며 확인된 개인은 그 자신의 권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단지 그가 소속하는 국가에 봉사하는 단위는 아닌 것이다. 즉, 국가의 권력이 목적이 아니며 개인의 이익이 국가의 권력에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투쟁을 위한 준비비가 국민의 복지를 희생하므로 서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상태를 조출(造出)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앉아서 그 준비에 분망(奔忙)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계의 평화세력을 결집하므로 써 현재의 전쟁에의 흐름을 막는 최대의 노력을 발휘할 것인가? 럿셀씨는 절망에 기초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나는 희망에 기초해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현명한 정책은 항상 경험에 대한 반성의 소산이다. 경험의 보고가 금지된 곳에는 현명한 정책이 수립될 자료가 봉쇄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성원이 국가의 행동을 편파한 것으로 확신함에 이르면 그는 국가의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온 종래의 의무감을 가지지 않게 된다. 이 순간은 언제나 혁명시대에 선행하는 비판기의 시초인 것이다.

범죄예방(犯罪豫防)의 길을 찾아서

정부재산 절취 범들의 경우를 중심으로

『글쎄 뒷일은 염려 말고 기지정문까지만 끌고 나오슈
. 자 그럼 이따 자정에 내가 정문으로 가리다.』
K병장은 다소 망설이기도 했으나 막상 남씨(南氏)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자, 오히려 용기를 얻어 마음을 정했다. 일단 일을 벌리고 나니 한결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같은 감을 느끼면서 K병장은 부대로 향해 발길을 옮겼다.
발걸음마저 가벼운 것 같다.
지난번 제대자 환송 회식 때 진 외상값 때문에 한동안 쪼들려 오던 것을 이제 깨끗이 갚을 수 있을 것을 생각하니 저절로 흐뭇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경비헌병>이라는 자신의 신분이 한층 대견스럽게도 느껴졌다.
담배를 꺼내서 피어 물었다.
길게 내뿜은 담배연기가 별이 총총한 밤하늘 속으로 길게 빨려 들어갔다.
이번일은 감쪽같이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밤에 같이 경비근물 할 제 일(一)조 조원들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L병장은 이미 며칠 전부터 같이 꾸며온 사이니까 두말없이 발 벗고 나설 것이다. Y병장도 잘만 구슬리면 통할 것 같다. 부조장(副組長) R하사가 조금 마을 거슬리긴 하지만, 회식 때 같이 참석 했으니까 우겨대면 그도 어쩔 수 없으리라.
그러고 보니 일은 무척 순조로울 것만 같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二)만환도 못되는 외상값 때문에 지금까지 골치를 앓아온 자신이 너무도 어리석은 것 같다.
K병장은 빙긋 웃을 먹으며 다 타버린 꽁초를 멀리 퉁겨 버렸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영문을 지나자 경비 중이던 동료 헌병이 씽끗 웃어 보였다.
자정이 넘어도 아무 소식이 없다. K병장은 차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담배를 연거푸 세 개나 빨아 족쳤다.
그러자 새벽 한시가 조금 못되어 기지정문을 경비 중이던 L병장이 찾아 왔다.
『K병장, 시내에서 남씨라는 분이 면회 왔어. 한밤중에 웬일이지?』
정신이 번쩍 들었다. K병장은 우선 담배를 한 개 꺼내서 L병장에게 권했다. 그리고는 으스대면서 입을 열었다.
『야 우리 전에 애기 하던거 있지? 그거 아주 오늘밤에 해 치우자!그래서 남씨를 오라구 한 거야』
L병장은 무슨 애긴지 곧 알아 챌 수 있었다.
『자식 나한테 연락도 않고 벌써 일을 벌려 놨구나, 하하하……』
L병장이 서슴지 않고 동의의 뜻을 나타내자 K병장은 한층 신이 났다.
『자, 그럼 난 정문으로 갈 테니 넌 R하사를 꼬셔. 서둘려야 한다』
K병장은 이렇게 수근 대면서 L병장은 이렇게 수근 대면서 L병장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정문 쪽으로 달려갔다.
L병장은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K병장의 뒷모습을 훑으면서 아무래도 자기보다는 담이 큰 놈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자 L병장은 뒷일에는 자기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다짐했다.
후래쉬로 발밑을 비쳐가면서 R하사한테로 갔다. 그리고 찾아온 뜻을 애기하자 R하사를 기겁을 했다.
『너 큰일 날 소릴 하는 구나.』
R하사가 이렇게 겁먹은 소리를 하자 L병장은 이상스럽게 우쭐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아 떨거 없어요. 감쪽같이 해낼 테니까』
『용기를 내시오, 지난 번 회식 때 떨어진 술값을 이젠 갚아줘야 할 게 아니요. 젊은 놈 몇이서 이(二)만환도 못되는 술값을 아직도 못 갚는다는 것 우리들 위신에 관한 문젭니다.』
R하사의 성격을 잘 아는 L병장은 이런 경우에야말로 공갈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만 둘 테니까 부조장님이 딴 방법으로 돈을 만드슈』
R하사는 자못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그럼 내가 조장 H하사한테 상의해보지.』
L병장은 그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조금 뒤에 R하사가 돌아 왔다.
『뭐라고 그래요?』
『들키는 날이면 큰일 나지만 어떻게 잘들 해 보라구 하더군.』
이 대답에 L병장은 빙긋이 미소를 띄었다.
『그럼, 일은 나 하구 K병장하구 둘이서 할 테니깐 그 대신 조장님하구 부조장님은 우리들 근무처에 가서 잠깐 대리근무나 서 주슈, 그리구 술값 갚고 남거던 우리 오붓하게 다시 한잔 폽시다.』
L병장은 급히 말끝을 맺고서 밖으로 튀어 나왔다.
고요한 여름밤이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K병장과 L병장은 비상대기중인 GMC를 몰고 정문으로 달렸다.
L병장은 능숙하게 차를 모는 K병장을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다보았다. 기지정문에 이르자 남씨가 미리 준비해온 십사(十四)개의 스페어 깡을 재빨리 주어 실었다. 그리고는 차를 항공유지반으로 몰았다.
낮에는 비행기의 폭음에 쌓여 그처럼 시끄럽던 기지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이름 모를 풀벌레의 울음소리만이 청승맞게 들려 왔다.
항공유지반에 다다르자 Y병장이 유지반의 차량대기소를 경비하고 있었다.
『정지, 누구얏!』
『쉿, 임마 나야 나……』
초소옆에 숨어서 소리를 지르던 Y병장이 목소리를 알아채고는 한밤중에 차까지 끌고서 왠일이냐고 묻는다.
『임마 왜는 왜야 잔소릴 말고 기름이나 좀 빼자』
전에 먹은 술값 때문이라고 하자 Y병장도 나처한 빛을 띄었다.
『병신아 떨 것 없어. 걸려봤자 영창 일년이야 사내자식이면 영창구경도 한번쯤 해봐야 해.』
K병장은 석달 전에 정부재산에 대한 비행으로 경영창 십오(十五)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나온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떠버렸다.
L병장은 GMC위에서 스페아 깡을 주어 내렸다. 덜컹덜컹 소리가 나자.
『이새끼야 좀 조용히 해.』하고 K병장이 소리를 질렀다.
『하하, 너두 겁은 나는 모양이구 하나 하하…….』
L병장은 왜 그런지 통쾌한 느낌이 들어 한바탕 호탕하게 웃어버렸다. 그리고 옆에 있는 JP-사(四)유지차량에서 고무호스를 뽑아 싣고 온 스페아 깡에다 댔다. 빈 스페아 깡이 하나하나 JP-사(四)유로 가득가득 넘쳐 오르자 이상한 흥분감이 번져 올랐다.
『이만하면 오(五)만환은 문제없지?』
십사(十四)개의 스페아 깡에 모두 百四十 가론의 기름이 가득 채웠다.
L병장은 K병장과 함께 스페아 깡 칠(七)개를 GMC위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항공유지반 내무반 서쪽 풀밭에 숨겨놓았다. 하도 풀이 길게 자라서 감쪽같이 술길 수가 있었다.
둘은 다시 차에 올라타고 정문을 향했다. 정무에 이르자 R하사가 겁에 질린 낯빛으로 초소에서 뛰어 나왔고 그 밖에서는 남씨가 역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정문을 지나 면회소 앞 빈터에 차를 세우고 스페아 깡을 내려서 남씨에게 인도 했다.
남씨가 어둠속으로 살아지다 K병장과 L병장은 서로 마주쳐다보면서 쓰디쓴 웃음을 지었다.
이상이 범죄경위(犯罪經緯)다.
이로서 K병장과 L병장, 그리고 R하사와 H하사는 국방경비법(國防警備法) 제40조와 특례법 제2조 제일 호 및 형법 제3조 위반(정부재산절취죄)으로 전 급료 몰수 및 징역 1년6월의 판결을 받았고, H하사만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한하여 1년으로 감형되었으며, Y병장은 국방 경비법 제40조와 특례법 제2조 제1호 및 형법 제32조 위반으로(정부재산 절취방조죄) 역시 전 급료 몰수 및 징역 8월의 판결을 받았다.
범죄는 복잡한 동기와 환경 하에서 다양성을 띄우고 발생되는 고로 완전한 방범 책을 강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방범 책을 찾아봄으로써 본건과 유사한 형태의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건방지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고찰함으로써 범죄예방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기범죄의 동기는 제대자 회식비마련 및 유흥비 조달에 있었다.
그러므로 우선 첫째로 사병들의 생활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영내에 충분한 오락시설이 구비되어 있다면 구태여 그들은 외출을 해서 돈을 쓰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영내오락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외출군기를 확립하여 외출 시 막대한 금전의 소비를 방지하고 아울러 민간인의 유혹을 배제토록 노력해야 하겠다.
둘째로는 정신교육에 보다 중점을 두어 건전하고 검소한 생활태도를 개발하고 준법정신을 앙양(昂揚)하는 한편 방범의식을 고취시켜 범죄 내지 부정행위의 유혹을 배척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인격을 함육(涵育)시켜야 하겠다.
위의 경우에서 허례허식에 치우쳤던 제대자 환송회식이 없었던들 범죄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R하사나 Y병장의 정신이 조금만 강했던들 본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부하에 대한 지휘관의 감독책임이 중요하다.
부하를 감독한다는 것은 결코 부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고로 지휘관은 부하에 대한 사생활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기적인 감독은 물론, 항상 그들에 대한 평소의 감독 및 교육에 게을러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부대경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위의 경우에서 유지의 관리가 그처럼 소홀했다는 것은 실로 유감지사(遺憾之事)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K병장과 같이 소행이 불량한 자에게 경비책임을 맡겼다는 것은 지휘관의 커다란 과실이 아닐 수 없다.
이상과 같은 대책이 확립된다면 앞으로 위의 경우와 같은 유사범죄는 충분히 예방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김동훈)



소련 의 간첩망

—젊은이를 노리는 공산주의자들—

죤 에드가 후버

전 세계적화를 꿈꾸는 공산주의자들은 끊임없이 간첩을 자유진영의 곳곳에 침투시키면서 그들의 야망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유기적인 세포조직망으로서 자유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붉은 간첩들의 암약상을 폭한 미국연부수사국장 죤`에드가`후버씨의 수기를 소개함으로서 방첩관념을 보다 굳게 다짐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소련의 전 세계에 걸친 스파이망은 세계적화를 기도하는 공산주의계획의 중요하고도 불가결한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 스파이활동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공산주의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노리며 무엇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성전으로 삼고 있는 「소련공산당사」는 힘에 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공산주의국가는 평화적 수단으로는 수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거칠 도리밖에는 없으며 이 혁명을 통해서 독재주의가 수립되어 모든 저항을 물리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한다.

레닌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교리를 실천에 적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의 적용을 통해서 볼셰비키는 1917년에 러시아에서 정권을 잡고 다시 레닌 지도하에 독재정권을 확립하여 그것으로서 모든 저항을 조직적으로 숙청해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공은 레닌으로 하여금 연후에 「부르주아국가를 프롤레타리아 국가로 바꾸는 것은 힘에 의한 혁명 없이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게 만든 것이다.

스탈린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랐다. 1919년 9월에 결당된 이후 미국공산당도 소련에 있어 스탈린 시대의 전기를 통해서 모스크바와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었다. 초기에 미국공산당 수뇌는 공공연히 제법 자만스럽게 소련에 대한 충성과 지지를 공언하고 있었다. 1949년에 미국공산당의 내막이 폭로되고 그 두목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법정에서는 미국공산당이 힘과 폭력으로서 미합중국정부를 전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서 입증되었다.

동 공산당의 정책이나 활동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다. 현재의
당 수뇌도 초기의 그들과 같이 소련공산당의 지도에 복종하고 있다.

때때로 생각이나 난 듯이 소련의 흐루시쵸프는 소련이 타국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소련은 공산당이라는 제5열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각국 공산당은 모두가 완전히 소련의 조종과 지배를 받고 있으며 소련의 세계적화의 꿈을 지지하고 이들 각 구 공산당에 내리는 지령을 통해서 소련은 세계적화의 꿈을 지지하고 이것을 도울 것을 맹서하고 있다. 이들 각국 공산당에 내리는 지령을 통해서 소련은 세계적화의 야망을 향해서 부단한 전진을 계속하여 다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에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

1940년대 초기에 FBI(미연방수사국)는 수도 워싱턴에 있는 주미소련 대사관원인 봐시리 사비린 3등서기관의 행동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었다. 사비린 서기관은 1941년 12월25일 미국에 입국하였다. 그는 아내인 엘리자베스와 아들 페테로를 동반하고 왔다. 수사결과 사비린 서기관은 오랫동안 소련의 중요한 첩보기관 원이었음이 판명되었다. 그는 이미 1934년에서 1937년에 걸쳐서 에드워드 조세브 허버트라는 위명으로 위조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잠입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FBI가 수사를 개시하게 된 단서는 1934년 봄 사비린이 헐리우드의 영화제작자 보리스 모라스와 연결을 취하고 있는 것을 평소 은밀히 미행 중이던 FBI 수사관이 발견한데서 비롯한다. 모라스의 동정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1947년 7월 FBI는 비밀리에 직접 본인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해보니 사비린의 의뢰로 소련을 위해서 간첩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자백하였다. 그리고 이 자백을 계기로 하여 FBI의 지령으로 그대로 2중 간첩으로서 소련을 위해서 일하는 체 가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해서 미묘한 스파이전은 시작되었다.

그 결과 미국에 있어서 사비린계의 간첩망을 손아귀에 넣은 연방수사국은 1957년 1월 25일 간첩활동 모의의 용의자로 잣크 소불과 마이라 소블부처 및 자끌 알밤을 뉴욕에서 체포하기에 이르렀으며 다시 수사를 전개하고 취조한 결과 다른 스파이망 및 협력자들의 일제 체포가 행해졌다.

그런데 수첩자(首諜者)격인 쟈크 소불은 1941년에 리투아니아로부터 피난민으로서 미국에 입국하여 1947년에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있었다. 시민권을 얻기 전인 1944년에는 다른 소련 간첩과 더불어 은신술책으로 회사를 조직하였다. 보리스 모라스악기주식회사가 그것으로 사무소를 뉴욕과 로스엔젤레스에 두고 있었다.

1943년 12월 사비린이 모라스를 알프렡 R 스탄과 그의 처 마사에게 소개함으로서 스탄이 13만불을 모라스의 회사에 투자해서 중역이 되어가지고 『장사』를 공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조처는 1944년 초에 완성되었다. 그 다음 얼마 후에 사비린은 모라스에게 자기는 미국을 떠나지만 뒷일은 뉴욕에 있는 자크 소불에게 부탁하였으니 앞으로는 그 사나이가 모라스와 스탄의 상관이라고 하면서 소불을 소개하였다.

소불은 미국 및 유럽에 있는 소련 간첩활동에 눈을 번득여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정부 직원을 스파이 협력자로 만드는 일이라던가 군사장비, 보급품 등에 관한 정보수집을 총괄하고 있었다. 그리고(본인의 자백에 의하면) 미국에 저장되어 있던 원폭의 수, 원폭제조능력을 탐지하였을 뿐 아니라 원폭을 저장해두는 벙커의 사진도 입수하였다고 한다.

자크 소불과 같은 리투아니아 출신으로 남편의 스파이활동을 도운 그의 아내 마이라는 1957년 1월 25일 FBI 수사원에 체포된 후 1957년 2월 4일 외국인 등록령 그밖에 스파이활동에 관한 용의사실 중 소위 평시간첩활동금지령에 관한 2건의 위반에 관해서만 유죄 판결이 내렸다(동령 위반의 최고형은 금고10년)

1957년 8월 9일 처 마이라는 금고 5년의 판결을 받고 연방형무소로 보내졌다. 이어서 1957년 10월 8일 남편 자크 소불은 금고 7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때 마이라의 형기는 4년으로 감형되었다.)

※역자 주 - 이것으로 당시 미국을 들끓게 한 스파이사건도 소불에 관한 한 일단락을 지은 것으로 보였지만 이 소불사건이 1960년 말에 다시 신문지상을 장식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형제가 서로 골육상쟁하는 그야말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후버장관의 수기에 나오는 자크 소불이 스파이사건에 연좌되었으면서 7년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끝인 배후에는 당연히 정상작량(情狀酌量)-당국에의 협력-의 의미가 공공연의 사실로서 감추어져 있었다고까지 미국의 여러 신문은 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960년11월 뉴 욕주 록크랜드 주병원에 근무하는 로바트 소블렌박사(정신병 전문)가 근무처로부터 당국에 연행되어 가서 취조결과 11월 29일에 기소되었는데 용의는 전시 스파이활동과 타 관련비합법활동이었다. 이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끈 것은 소블렌박사가 실은 자크 소불의 실형(實兄)이며- 더구나 수개월로 박두한 공판에 최초의 검사 측 증인으로서 그의 용의를 폭로할 자가 다른 사람 아닌 동생인 소불이라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소불렌은 불치의 병인 혈액암(만성임파선 백혈병)으로 여명(餘命)이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한층 단순한 스파이사건 이상의 의미를 자아냈다. 그러나 당국으로서는 이미 잡은 증거에서 소불렌이 그 옛날 소련비밀경찰두목 베리야에 의해서 1940년경 소불렌일가 13명의 도미허가의 조건부로 스파이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소불렌의 입에서 미국에 있어서의 소련간첩망의 핵심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 - 그의 진술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서는 어디까지 이 사건의 발전할지 쉽사리 예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변호인단의 병 증상을 이유로 한 공판 연기책도 없어진 6월 20일 드디어 공판이 열렸다. 뉴욕시 맨하탄 구 유엔본부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연방지역재판소는 당일 만원을 이루었다. 60세라는 연령보다 더욱 늙어 보이는 소불렌은 피고석에 몸을 축 늘어트린 채 앉아 있다가 이따금씩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일어나서는 허리를 피는 시늉을 하였다(신병으로 해서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모양- 그러나 재판에 출두할 수 없다고 법원은 결정하였다.)

전후 미국에서 있었던 저 로젠버그 부처의 원자력 스파이사건 공판 때와 같은 소란을 법정 주위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공판 제1일은 중대재판인 까닭으로 해서 검찰이나 변호인 측이다 150명의 후보자로부터 선출되는 배심원 자격심사에 시간이 걸렸는데 20명 이상이 간첩에 대한 편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또 다른 6명(1명은 부인)은 사형반대론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한사람은 사형대찬성자라는 지목을 받아 기피되었다.

한편 검찰 측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들어 전에 공산권에 여행한 적이 있는 자는 배심을 사양해 달라고 요구해서 결국 1934년에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을 여행하였다는 부인 한사람만이 기피를 받아 – 드디어 당일은 공판을 개시하지 못하였는데 배심 선임하나만 하더라도 이 사건의 규모를 알만 하였다.

동생의 증언

그리고 21일부터는 휘레 광장에 솟아있는 연방재판소 1층의 넓은 법정은 연일 신문기자와 방청자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당베리 연방형무소에서 복역 중인 자크 소불이 검찰 측이 요구한 최초의 증인으로 출정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3일 오전의 법정은 이상한 흥분 속에 싸였다.

증언대에 눈썹이 짙으며 콧날이 서고 대머리가 저서 형 소불렌과 쌍동아(雙童兒)처럼 닮은 소불이 나타나 증언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증언을 통해서 말하기를『나는 1940년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결코「훈련받은 간첩」으로 온 것은 아니었다. 다만 형과 더불어 소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와 같은 요구에 응하고 나서도 밤낮으로 양심의 가책으로 고민하였으며 몇 번이고 집어치우려고 마음먹었다. 사비린 서기관까지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다. 소련의 간첩망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소련인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형도 같았다.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 미국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다. 그러나 소련인은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면 어디서나 누구라도 죽일 수 있다. 다만 나의 신념에 아직 변화는 없다. 그러나 언제나 소련인에 대해서는 의혹을 지니고 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보다는 적어도 소련인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년쯤 형기를 마치고 출옥하더라도 올 것이올 것으로 각오하고 있다. 주의는 하겠으나 그러나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 무렵부터 증인은 점점 흥분이 심해 갔으며 주임변호사인 죠셉 부리루가 반대신문에 열을 올렸다. 소불이 자기 형은 지난 20년간에 걸쳐 OSS(전략첩보국) 등에서 군사기밀을 탐지해서 모스크바로 보내고 있었다고 증언하자 변호사가 증인의 정신감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통해서 1957년 소불이 간첩행위를 자백하였을 때 정신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1958년에는 볼트와 너트를 집어 삼켜 자살을 기도한 사실도 있지 않은가? 이러한 사실은 형에 관하여 악의와 오해에 찬 고발을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집요하게 궁박하였다.

이와 같은 궁박을 소불은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하기를 물론 그 당시 흥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잠 한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것이「자기나 형이 한 짓들을 생각하고 이러한 미국 땅에 살면서 왜 이런 짓을 하였는가?」를 반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변호사는 다시 형 소불렌 박사는「국가기밀」을 입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은 트로츠기주의자 그 밖에 현 소련정권에 반대하는 소련인 으로서 미국에 도피해 와 있는 자들의 동정을 소련에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변호사의 격렬한 추궁

이와 같은 갑론을박이 공판을 거듭할 때마다 계속되어 29일에는 드디어 변호사의 궁박에 소불이 정신발작을 일으켜 변호사의 질문은 자기를 함정에 빠트리려고 하는 것이며 그가 노리고 있는 것은 자기를 거짓말쟁이, 도발자, 그리고 육친의 형을 잡아먹으려는 악당으로 만들려는 것이지만 그 같은 꾀임수에는 안 넘어간다고 소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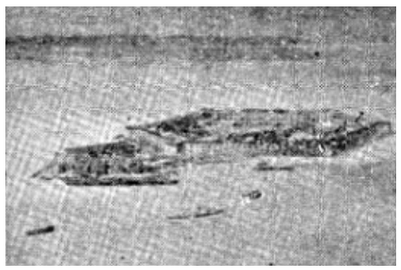
증인(소불)은 다시 말하였다. 소련은 1941년 리투아니아에서 유수한 부호였던 부친에게 13만5천불을 캐나다로 지출하는 것을 허가하였는데 이것은 자기 두 형제의 스파이활동에 좋은 은신책이 되었으며 이 돈으로 1947년까지 일가가 생활해왔으며 그 돈으로 소련을 위한 간첩행위를 해왔다고 말하였다.

변호사측은 이 말에 대하여 소련에 보낸 정보는 국가기밀이 아니지 않았느냐고 스파이로서의 중형을 피할 구실을 만들려고 하였다. 이에 증인은 트로츠키주의자에 관한 정보를 모스크바로 보낸 것을 시인하였으나 그것만으로도 소련 첩보원을 통해서 한다면

<세계경이순례>⑧

제퍼슨 요새

리처드 하리바튼



(사진은「제퍼슨」요새 전경)

남군 사령관 리 장군이 북군사령관 그랜트장군에게 항복하므로 서 미국의 남북전쟁이 종막을 고한지 5일째 되던 날 즉 1865년 4월 14일 밤, 그 당시 미국대통령 링컨이 워싱턴에 있는 어느 극장에서 관극 중 존 윌크스 부스라는 남부출신 배우가 남군 패배에 원한을 품고 링컨대통령이 앉아 있는 자리로 달려들어 권총을 발사함으로서 두서너 시간 만에 링컨대통령은 이 세상을 떠났다.

부스는 이러한 끔찍한 죄를 범한 범행 장소에서 무대로 뛰어내렸으나 뛰어내릴 때 귀빈석 밑으로 걸려 있던 국기에 박차가 걸리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 무대로 그대로 떨어져서 발을 삐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대통령 쪽으로 정신이 쏠려 있는 틈을 타서 절뚝거리며 무대 뒷문으로 빠져 나가 대기시켜 놓은 마차를 타고 어둠속으로 도망쳐 버렸다.

그로부터 다섯시간 쯤 지난 뒤 부스와 그의 동료는 발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의사를 찾아다니던 끝에 남메릴랜드에 사는 사므엘 맛드를 찾아갔다. 맛드는 대통령 암살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그의 발을 치료해준 다음 날이 밝기까지 집에서 쉬어가도록 하였다. 부스 일당은 다음날

아침 변성명(變姓名)을 하고 치료비를 지불한 다음 그곳을 떠났던 것이다.

그러나 의사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맛드는 불운하게도 부스의 친구이며 암살음모에 가담한 일당이라는 혐의로 체포되어 워싱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맛드는 법정에서 이 음모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분노에 이성을 잃은 법정은 맛드에게 징역형을 언도하였다.

이와 같이 해서 맛드가 들어간 형무소에 재퍼슨 요새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 사실을 알자 아무래도 이곳에서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제퍼슨요새는 미국에 있는 어느 형무소보다도 평판이 나빴던 것이다. 이 감옥으로 말하면 단지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864년 미국정부는 외침을 막기 위해서 해안선을 더욱 강화하고자 플로리다 주 남단에서 192키로, 서방 멕시코만에 있는 드라이 틀토우가 군도(群島) 중 한 곳에 요새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 요새는 멕시코만에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감시 장악 하려고 군 당국에서 계획한 것인데 이곳을 미국의 지부랄탈로 만들려고 은밀히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음료수도 없을 뿐 아니라 파도에 씻긴 산호초 이외는 건축을 하는데 소요되는 재료가 아무 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해로로 2천8백키로나 격해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모든 것을 운반해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인 손으로 된 건축물 가운데서는 가장 엉성한 것이 되어 버렸다. - 그것은 왜냐하면 금철이나 콘크리트를 쓰지 않고 벽돌과 돌만으로 만든 때문이다.

제퍼슨요새는 육각형으로 길이가 300미터, 넓이 6백알 되는 마당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세워진 것이다. 요새의 성벽은 높이가 15미터인데 해면과 직각으로 세워져서 바닷물이 들이닥치는 것을 막고 적의 접근을 방비하기 위해서 전 성벽에 걸쳐 9미터 간격의 방파제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로 물을 잡아넣어 도랑을 만들었다. 이 요새를 세우는데 5천만 개의 벽돌이 들었으며 이것을 전부 필라델피아에서 해로를 운반해왔다. 더욱이 이곳을 요새화하기 위해서 4백문의 대포가 배치되었다. 그런데 미국군부의 수많은 계획 가운데서 이 요새만큼 노동과 물자가 대량으로 요구되고 막대한 비용-벽돌 한 개에 1불이 들었다- 이 든 예는 이제까지 없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이처럼 어리석은 일을 한 예도 없었다. 그나마 얼마 안가서 설계기사들은 요새 주위의 수역이 너무나 얕기 때문에 선박이 사정거리 내로 근접할 수 가 없음으로 요새로서의 이용가치가 전무함을 알았기 때문에 정부는 별수 없이 이것을 남북전쟁 중에 군용형무소로서 사용하였다. 그 후 1870년 이래 이 거대하고도 황폐한 건물은 누구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이곳에서 죽어간 수많은 수인들의 망령과 해조들의 휴식소로 내버려졌었다.

그러나 제퍼슨요새를 저버리게 된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외적이라든가 전쟁 같은 것이 아니고 모기라는 배신자 때문이었다. 이 작은 악마는 물 웅덩이에서

미국에서는 충분한 간첩행위가 아닌가? 라고 오히려 거꾸로 스파이였던 소불 자신이 역설하는 진기한 장면까지 연출되었다.

새로운 증인

5일에는 최근 「에펠탑을 판 사나이」라는 책을 출판한 작가 후로이드.C.밀라가 출정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이 20년간 소련의 에이전트였다고 말하면서 전쟁 중 소불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더불어 소련을 위해서 간첩활동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젊은 리챠드.C캐이시 연방검사나 데빗드.R.하이드 배석검사의 질문에 그는 국제간첩 동료들이 사이는 자기 이름이 미카엘.코루토 아니면 그저 바루라는 이름으로 통했으며 1945년에는 삼이라는 간첩과 만났는데 후에 삼이 소불이라는 것을 알았고 다음해 삼의 종형이라는 사나이와 같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증언을 듣고 검사는 「그 사나이가 이 법정에 있는가?」라고 질문하니 증인은 소불렌 박사를 가리키면서 「이사람 입니다」라고 말하자 소부렌은 목을 움츠렸다. 검사는 다시 질문 형식으로 밀라의 경력을 배심원에 피로(披露)하였다는데 검사질문에 의한 밀라의 증언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밀라는 당시 뉴욕의 어느 신문사 특파원이 되려고 하였는데 그것은 한 개 위장을 하기 위해서였으며 소부렌과는 6개월간 한 달에 한번 씩 만났는데 그때마다 한 페이지에 수록한 보고서를 잡지나 신문지에 끼워서 그에게 전했다. 그때 소부렌 쪽에서도 같은 잡지나 신문을 밀라에게 전했다. 그러나 밀라 자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보고서는 쓸 수가 없었다. 거기에다 보고라 하더라도 미국 방 당국이나 정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동정에 관한 것이었다고 증언하였다. 즉 스탈린의 스파이로서 트로츠키파에 숨어 들어가 특히 해상노동자조합 기관지의 편찬자가 된 뒤부터는 미국 선박의 승무원으로 가장해서 미국에서 무루만스크 등지에 체입하는 트로츠키일파의 암살단의 동정을 보고해왔다고 말하였다. (밀라는 현재 뉴저지에 살고 있으며 직업은 서술업이다)

여성증인출현

7일에 개정된 법정에는 여성 증인을 맞이하였다. -그녀는 독일 태생으로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 독일을 떠나 1935년에 모스크바로 가서 그곳에서 몇 군데 미국회사 지사에 근무하는 가운데 하리 와그나라는 사나이와 결혼하였으나 이 사나이가 실은 당시 소련 비밀경찰의 끄나풀로 동료들을 스파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체포되어 간체 행방을 감추어 버렸다. 1937년 경에는 그녀는 모스크바를 찾아오는 미국인이나 그밖에 외교관 여행자들의 가십을 쓰는 일에 종사하다가 1937년 미국 뉴욕으로 왔다. 그것을 재미 소련간첩의 두목격인 자비린 등에게 잡혀서 간첩이 되었다- 이상이 이날 증언한 원 공산당원 요하나.K.베카라는 여인의 경력이었다.

그녀와 소부렌과는 1942년에

자비린서기관이 사는 아파트의 방음장치가 되어 있는 1실에서 자비린의 아내의 소개로 만났다는 것이다. 그녀는 증언하기를 그때 자비린의 아내는 소부렌을 소개할 때

『저와 가장 친한 친구분 입니다. 당신에게 대해서도 잘 말씀을 드려두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증언하자 캐이시 검사가 증인에게 소부렌을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증인석에서 소부렌을 손으로 가리켰다. 이로서 소부렌과 자비린과의 연관을 강력히 증시(證示)하는 증언으로 되었다. 일순 정내는 수군수군 대었다. 그녀는 요지 다음과 같은 증언을 계속하였다.

소부렌은 스파이단에 들어와 전령역할을 하게 된 그녀에게 매월 3,40불씩 주었다. 전달한 첩보가운데는 당시 OSS에서 일하고 있는 독일인에 관한 정보 특히 특수기능 정치적 편견 등 소련측에 필요한 정보가 있었다. 이것은 OSS내에서 이중간첩으로 있는 한스.히루슈벨드와 홀스트.베렌스블그(두 사람 다 독일계)가 수집한 것이었다. 그러나 1945년이 되자 이 두 사람으로 부터의 정보성질이 일변하였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초비밀의 만핫탄(원폭제조) 계획이 진보되고 있었다.

그녀가 지하철 역에서 히루슈멜드를 만났을 때 그는 「미국정부는 지금 어떤 중요한 군사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쟁 종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요」라고 말하였다. 히루슈멜드가 주는 정보는 모두 소부렌에게 보냈다. 소부렌과는 1947년까지 연락이 있었다. 소불렌은 그녀에게 두 번쯤 어느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당국과 무슨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나이에게 부탁하라고 말하였다. 어느 때는 센트럴파크를 드라이브 하면서 장래에 만일 비밀이 탄로되어 소부렌과 만난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받을 경우가 생기면 「내 오빠의 친구로 우연히 뉴욕 거리에서 만났다」고 말하라고 일러 주었다. -

이와 같은 증언에 검사가 「그렇다면 그 오빠를 소불렌은 알고 있었는가?」라고 질문하니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녀의 증언은 끝났다. 그 어떤 화려한 마타하리적 증언을 기대하였던 보도진은 어느 정도 실망조차 하였을 것이다.

최종공판일

7월 12일 최후 공판일을 맞이하였다. 그 날 출정한 소부렌은 긴 의자에 몸을 내던지듯이 앉아서 끊임없이 약을 마시고 있었다. 눈을 감고 어깨로 숨을 쉬는 이 암 환자를 기다리는 것은 극형인가? 그렇지 않으면 …….. 그것도 이날 하루로 결정된다. 변호인단은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었다.

배심석을 향해서 부리루 변호사는 쟈크.소불의 증언을 뒤집기 위해서, 소불은 형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과 허구와의 한계도 없는 증언을 하였다고 전제하면서 『만약 내가 여러분과 같은 배심원이라면 두 번이나 자살미수를 하고 20회나 전기 쇼크요법을 받은 이 미친 사나이 그리고 보수만을 바라는 이 썩어빠진 비열한

자라서 무서운 황열병의 병균을 제멋대로 퍼뜨렸다. 그리하여 이곳에 발을 붙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구 공격하였다. 생명을 위협하는 열병이 몇 번이고 창궐하여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갔다.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매장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의사인 맛드는 이와 같은 죽음의 섬으로 보내진 것이다. 간수는 그를 독방에 집어넣은 다음 쇠사슬로 묶어 놓고 감방 앞에다 「링컨을 죽인 사나이」라는 표식을 써 붙였다. 그때 요새에는 맛드가 오기전 부터 무서운 역병이 유행하여 끊임없이 사람이 죽어갔는데 오직 한 사람뿐인 옥의(獄醫)도 이 유행병에 희생되었기 때문에 맛드는 자진해서 치료를 담당하였다. 그 후 그도 또한 이 병에 걸렸지만 그는 어떻게든지 목숨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천명이나 넘는 이 열병환자들을 돌보아 주는 유일무이한 의사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행히도 목숨을 뺏기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동안 맛드의 안내 는 워싱턴으로 가서 눈물겨운 남편 구명활동을 4년간이나 계속한 끝에 드디어 남편의 억울한 사실이 밝혀져 석방되었다. 이와 같이 해서 맛드가 이곳을 떠나게 되자 죄수들도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이곳은 완전히 모기만 들 끓는 무인도가 되었다.

오늘날 이 불길하고도 비극에 찬 건물은 거의 누구하나 찾아가는 사람 없는 쓸쓸한 옛 모습 그대로 산호초 위에 서있다.

그러면 우리도 이곳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하자!

플로리다반도의 최선단에서 916키로 지점에 있는 키웨스트시에서 어선을 타고 가기로 한다. 이곳에서 요새까지는 반나절쯤 걸린다. 밤사이에 만을 건너질러 다시 서쪽으로 향해서 항행하면 해가 뜰 무렵에는 어렴풋이 전방에 요새의 벽이 파도사이로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우리들은 1865년 맛드 의사가 상륙한 지점인 방파제로 상륙하게 된다. 사람의 그림자 하나 눈에 띄일 턱이 없다. 우리들은 10미터 넓이 도랑위에 걸려 있는 다리를 건너서 요새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요새내부는 축구장의 20배 정도의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잡초가 우거지고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자주 내습하는 열대성 저기압이 안마당에 있는 병사나 창고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으며 또한 해안의 모래를 몇십 톤이나 몰아다 부어서 여섯 개의 도랑 가운데 두 개를 완전히 매워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거대한 성벽만은 어떠한 공격에도 견디어 기한 심한 폭풍이나 광파에도 꿈쩍안하고 5천만 개의 벽돌은 고스란히 제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긴 낭하를 어슬렁어슬렁 거닐어 본다. 그전에 이 낭하에는 대포가 수없이 놓여 있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림자조차 찾아 볼 수 없다. 그곳에 있는 여러 방들은 그 옛날 죄인들을 가두어 두었던 곳이었다.

우리는 다시 성벽 정상으로 올라가 황량한 안마당을 내려다보기로 한다. 옛날 건물이 서 있었던 곳에는 나무토막들이 쌓여 있으며 정원이었던 곳

에는 선인장이 무성하고 또한 엄청난 쓰레기의 집적은 폭풍의 맹위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눈을 도랑 밖으로 돌리면 파도로부터 요새를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방파제에 파도가 부서지는 광경이 보인다. 도랑 안에는 그 옛날 옥리들이 굶주린 상어떼 들을 잡아넣어 죄수들의 탈출을 방지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요새에는 찾아간 우리들 밖에는 없는데 결코 조용하지가 못하다. 머리위에는 해조들이 수없이 날고 있어 밤이나 낮이나 귀가 멍멍할 정도로 소란하다. 이들 해조는 요새에서 약 150미터 떨어진 산호초에 몇 천 마리나 서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해조들은 그곳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다. 그들은 어느 한 마리가 별안간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거나 서로 싸우든지 하면 모두가 한꺼번에 날아 요새상공을 큰 떼를 지어 선회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태양을 가릴 정도이다. 내가 그 섬에 갔을 때만 해도 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그것을 밟지 않고서는 걸어 다닐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소음 속에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려면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때때로 폭풍이 이 섬을 휩쓸면 노도가 섬을 깨끗이 쓸어가고 수풀을 엉망진창으로 만든다. 그러나 새들은 다시 몰려와 새로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르는 것이다.

우리들이 해조의 안식처를 찾아가 보면 해조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머리를 만져도 놀라지 않는다.

나는 제퍼슨 요새를 처음 가보고 나서 여러 번 그 기행문을 발표하였다. 그 후 한 독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까지 받아 본 수많은 편지 가운데 가장 재미있고 놀라운 것의 하나 였다. 그 편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친애하는 리챠드.하리바론씨! 1868년 맛드선생이 제퍼슨요새에 유폐되었던 즉시 저는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13세의 소녀였으니 지금은 아주 할머니가 되었음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아버지는 요새 수호대 중위로 복무하고 계셨는데 웨스트.포인트 졸업생으로 남북전쟁이 발발하였을 그 요새로 전속되어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어떠한 이유로 가족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저이들은 전쟁 중 거의 요새 안에서만 살았는데 종전 직전 즉, 1865년제가 열 살 때 어머니는 저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키웨스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새안의 학교라고 하면 천막 하나로 선생님은 상사 한분이었습니다.

저이들이 키웨스트에 있을 때 리 장군이 항복함으로써 전쟁은 끝나고 링컨대통령이 부스에서 암살되어 맛드의사가 이곳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1867년 저 무서운 황열병이 제퍼슨 요새에 크게 유행하였을 때 저이들은 다행히도 아직 키웨스트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도 요새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한번 이 열병에 걸려 면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의가 죽었을 때 맛드의사 선생을 도와서 열병환자들을 간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맛드선생이 쓰러졌을 때도

인간의 증언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유죄로 만들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OSS직원으로부터 1945년에 비밀병기에 관한 자료를 받았다고 말하나 그 당시 이미 원폭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고 주장을 하자 캐이시 검사는 소부렌이 처음으로 소련간첩 됨을 동의하였을 때는 소련은 히틀러의 동맹국이었으며 때마침 리투아니아에 침입하였을 때라고 반박하였으며 또한 비밀병기로 말하더라도 그 자료는 1945년 봄 즉 일본 광도에 원폭을 투하하기 수개월 전에 소부렌 손에 들어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7월 13일 배심원들은 별실에서 1시간 19분에 걸친 협의 끝에 입정하였다. 배심장 모톤.레스리가 기립하여「유죄」라고 선언한 순간 소부렌박사는 신음소리와 함께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때 변호사가 1만불의 보석금으로 가석방을 청원하였으나 한란즈 재판장은 맨하탄 연방구치소에 유치를 선언하고 폐정하였다.
모든 것은 끝났다.
유치된 지 20여일이 지난 8월 7일 구치소를 나와 법정에 선 소부렌은 할 말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받고「나는 이 나라에 해되는 일을 하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더욱이 국방에 관한 문제로 미국에 유해한 짓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가장 가혹한 벌을 받고 있다. 운명은 나를 혈액암으로 벌주고 있다. 나의 신상에 관한 한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렸다. 나의 생명은 앞으로 1년도 못갈 것이다……. 모든 것은 끝났다. 짧은 여명을 가족과 더불어 지낼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기 바란다……」이상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할 때 그는 극도로 흥분되어 있었다. 이어서 변호사는 변론을 통하여 시종 피고의 실제(實弟)인 소불의 정신이상을 강조하면서 판결연기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장은 피고에 대해서 정상을 작량할 여지가 없음을 밝히고「판결의 엄정은 피고의 범죄와 비례하는 것이며 미국의 국방비밀을 입수하여 이것을 타국에 보내는 따위의 음모는 모든 미국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엄벌이 마땅하다.」고 논고하면서 종신금고를 언도하였다.
본 스파이사건 공판을 통해서 명백해진 것은 소련이 전 세계에 걸친 스파이활동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가 하는 증거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명백해진 증거에 의하면 이미 20년 전에 소련공산정권의 고관이 명백하고 특정한 지시를 이 스파이 계획에 내리고 있었음이 판명된 것이다.「스파이는 그 건상상태 여하를 불문하고 어디까지나 스파이다!」라고 한 재판장의 말은 국가와 시민을 보호할 책임을 보유하는 법의 엄정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우방국에 대해서조차 국가기밀을 누설하며 혹은 도울 것을 약속하는 것까지도 -(설사, 누설한 정보내용이 기밀이 아닐지라도 그런 의도로 한 것) 스파이 행위이며 매국행위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틀림없이 그분을 간호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행병이 아주 자취를 감춘 다음 저이들은 다시 아버지 곁으로 가서 맛드선생의 입옥기간 중 그곳에 있었습니다. 옥사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가까이 갈수가 없고 몇백명 이란 죄수들 가운데서 맛드선생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귀하의 기행문 속에 들어 있는 요새사진은 참으로 그 당시를 추억케 하였습니다. 저는 도랑 속에 상어에 관한 이야기를 대단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상어가 단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어는 두 사람의 병사가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들은 돼지고기조림을 미끼로 하여 수문을 통해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애완용으로 길렀던 것입니다.
저를 제하고 그 당시의 제퍼슨 요새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아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장황하게 썼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귀하가 쓰신 글을 보고 그 옛날이 생각나서 아무래도 붓을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건강하시기 빌면서……
매리.웰스.구로바』
1934년 미국정부가 제퍼슨요새를 국정기념물로 지정 하였을 때 메리.구로바 할머니는 크게 기뻐하였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만 가운데 외로이 서 있는 이 경이로운 고성(古城)이 정부의 손으로 보호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인의 꾀

이탈리아 최대의 시인 단테가 하루는 어느 귀족의 집에 만찬 초대를 받고 찾아갔을 때의 일이다. 그 시대의 풍속으로는 고기를 다 뜯어 먹고 남은 뼈다귀는 테이블 아래에 내려놓기로 되어 있었다.
이 때 주인은 단테에게 장난을 하려고 자기가 먹은 뼈다귀를 단테의 테이블 아래로 모조리 슬쩍 밀어 놓았다.「단테선생은 그런 줄 몰랐더니 식성이 매우 좋으시군요. 걸신이 들린 듯이 얼마나 많이 잡수셨는지는 이 뼈다귀만 보아도 알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뼈다귀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니까요」하면서 창피를 주려하였다.
그러나 단테는 조금도 무안해 하지 않고 도리어 주인의 발 밑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
「무얼요, 내가 아무런 식성이 좋대도 이 댁 주인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나는 고기만 먹고 뼈다귀는 남겨놓았지만 주인께서는 뼈다귀까지 아주 집어 삼킨 모양입니다. 이 자리에 뼈다귀가 하나도 없는 것이 무엇보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니까요」 그 말에 손님들은 모두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는 것이었다.

『매스컴』의 윤리 과제

김기점

현대생활을 돌이켜볼 때 많은 사람들은「매스 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온 세상 사람이 모두가 이 혜택을 입는다고는 생각키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즉 미개한 나라이고 후진사회의 사람일수록 선진국가나 문명된 나라의 사람들에 비한다면 말이 아닌 곳도 아직까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제2차 세계대전에 종막을 고한 오늘날에 이르러 과학의 고도화에 따르는 산업의 전진으로 기계문명의 급진적인 비약은 각종 매스 미디어의 대폭적인 개량과 발달을 가져옴으로써 더욱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극상의 위치에 다다르게 하였다고 보겠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근래에 이르러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학술적 연구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諸國)에서 많은 전진과 많은 과제를 다루고 있음도 사실인 것이다.
즉 하나의 과학연구과목으로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과거에는 분파학과목으로서 다루어 오던 것을 지금에 이르러서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과학적 연구로서 철학적 연구 역사적 연구 그리고 윤리학적 연구 분야로 까지 이끌어 오게 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우연히 과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고,
극도로 근년에 이르러 발달한「매스 커뮤니케이션」은 현대의 사회생활에 혜택만을 주어진 것이 아니고 보면,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즉 현대인의 사회생활면에 해결을 가져와야만 할 커다란 문제점이란 바로「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윤리적 문제라고 보겠다.
이것은 한국과 같이 상금(尙今)도「매스 커뮤니케이션」이 극을 달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사회에 생활에서 볼 때는 그리고 성급히 서둘러야할 문제가 못된다고 보기는 하겠으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의 현금(現今)의 사회생활에 미치는「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비중과 이에 따르는 제문제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로서 하루속히 해결을 요하는「매스·커뮤니케이션」연구 분야의 중요한 과제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매스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또는 각종「매스 미디어」(Mass Media)의 윤리문제에 관해서 외국에서는 많은 해결책을 위한 학술연구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매스컴」윤리학이라 무엇인가? 또 이것은 무엇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연구하여야 할 것인가? 등의「매스컴」윤리학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는 그리 많이 다루어져 오지 않았다.
그러면「매스컴」윤리학의 과제와 방법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첫째 매스컴 윤리학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선 대중의 인식활동과 「매스 커뮤니케이션」연구의 관계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인식과정에 있어서의 활동은 추상작용을 종축으로 하고, 사변과 실천의 질서를 좌우 횡축으로 한다면 양축의 교착점을 중심으로 한원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 원형의 최하부의 구체적인 경험에서 출발하여 좌측의 사변적 질서의 추상단계에 상행한다. 그 최초의 단계는 경험의 세계에 이성적 법칙을 찾는 과학이 될 것이다. 그 위에 자연철학이 있고, 사변적 활동의 정점에는 형이상학이 있다.
여기에서 인간의 인식활동은 우측의 실천적 질서에 이행되어 더욱 구체적이고 , 실재적인 인간행위의 연구가 시작되는 것이며, 이것이 도덕철학 또는 윤리학인 것이다.
여기에서 더욱 구체적인 사실과 사실의 관련성을 찾아 역사적 단계로 하행한다. 이러한 실천적 질서로서 구상을 찾는 역사는 사변적 질서로서 구상을 찾는 과학과는 대조적인 위치에서 서게 되는 것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실체를 이해하고자 한 경우 우리는 우선 현재 경험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분석한다든가, 수수 측과 송수 측의 실체를 조사하든가 한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요소에 특정한 조건을 설정하여 실험을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한 결과는 수량으로 표현되어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것을 「매스컴」연구의 과학적 방법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매스 커뮤니케이션」현상의 기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본질과 원리를 찾아보기에는 보다 높은 추상 활동이 필요하다.
즉, 「매스컴」의 본질을 이해하려며는 사변적 철학이 필요하며,

또 「매스컴」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실천적 철학이 필요하다. 이 후자가 「매스컴」의 윤리학인 것이다.
윤리학이란 인간의 행위를 선과 악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매스컴」윤리학도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활동을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또한 어떻게 하면 옳지 못한 것이 된다든가 하는 선과 악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인 것이다.
「매스 커뮤니케이션」현상을 각종 『데이타』에 의해 기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선악의 규범 그리고 그 원칙을 마련하자는 학문이다.
이것은 바로 인간과 사회의 사변적 고찰에 기준하여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를 찾는 실천적 철학인 것이다.
「매스컴」윤리학은 신문윤리강령방송기준, 영화윤리규범 등과의 각종 「매스컴」 윤리규정의 기반이 되는 철학과 이의 실천적 적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사회적 책임』의 이념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미디어」(Media)의 직업윤리의 기본적인 이념을 성문화한 것으로서 각기의 「미디어」의 직업인이 연구하며, 실현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메스컴」의 윤리의 전체는 아닌 것이다.
「매스컴」의 윤리학자들은 이러한 기준의 근본적이 사고방식까지도 고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의 실천적 작용을 수많은 경우를 들어서 더욱 구체적인 고찰을 하는 것이다.
「매스컴」의 실제적 측면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그 구체적 실재를 찾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과학적 연구의 경우와는 달리하고 있어 현재 경험하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에서 더듬어 올라가 보아 과거의 「매스 미디어(Mass Media)」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의 송수 측과 수수 측, 그 위에 이것을 육성시킨 사회를 연구하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매스컴」이 왜 존재 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장래의 전망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적 연구의 분야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언하여 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매스컴」윤리학이 「매스컴」의 윤리문제에 관한 이성적인 탐구인 것이지 종교적인 해석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말하자면 신학자는 초자연적인 신앙의 빛으로 말미암아 윤리문제를 다루는 것이지만 윤리학자란 자연적인 이성의 빛으로 말미암아 윤리문제를 고찰한다고 보겠다.
요컨대 「매스컴」윤리학이란 다른 전문제(諸)과학과도 같이 신학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나 「매스컴」의 윤리문제를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고찰하고 규범을 세우는 것이다.
전술한 바 「매스컴」의 본질과 원리를 고찰하였거니와 둘째로 「매스컴」윤리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일반에는 ①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송수 측으로서의 신문, 잡지, 영화, Radio, T.V등의 「매스 미디어」(Mass Media)
②신문, 교육, 오락, 광고 등 「매스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활동
③신문, 잡지 등의 독자 Radio, T.V등의 시청자 영화의 관객 등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수순측
이상의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며, 이러한 세 가지 요소의 윤리문제를 개별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로 「매스컴」윤리학이 다루어야 할 문제점인 것이다.
한마디로 하여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여도 이것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각종 다류(多類)의 「커뮤니케이션」이 다루어지는 것이며,
일상의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보도 그리고 선설 논평을 하는 신문적인 「커뮤니케이션」학예란이나 교양프로 등의 교육적인 「커뮤니케이션」,
소설, 희곡, 음악 등의 오락적 「커뮤니케이션」 신문잡지의 광고나 T.V의 상업상의 광고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각종의 「커뮤니케이션」을 별개로 다룬다면 모든 건 「매스 미디어」에 있어 공통된 기능별의 윤리문제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신문적 「커뮤니케이션」의 윤리며, 교육적 「커뮤니케이션」의 윤리 그리고 오락적 광고적 「커뮤니케이션」의 윤리라는 「매스컴」의 윤리학의 분야가 생기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신문, 잡지, 영화, Radio, T.V등 각기의 「매스 미디어」의 특유한 문제가 있을 것이며, 이것을 각종 「미디어」별로 다루어 본다면 신문논리학, 잡지윤리학, 영화윤리학, Radio, T.V의 각 윤리학 등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미디어」의 기자 『타렌트』집필기고자, 기업주, 종업원 『스폰서』등의 송수측의 윤리가 문제로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은 송수 측에서 수수 측으로 전파되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스컴」윤리학은 송수 측의 윤리에만 그치지 않고 수수 측의 윤리까지도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우선 신문, 잡지의 독자, 영화의 관객, Radio, T.V의 시청자 등 각 「매스 미디어」의 수수 측의 윤리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매스컴」은 많은 경우 가정을 단위로서 강독되고 시청되기 때문에 「매스컴」의 수수 측으로서의 가정의 윤리문제가 있게 마련이고 국가정치나 경제 사회문제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가져오게 됨으로 「매스컴」과 국가의 윤리문제도 제기된다고 보겠다.
그러면 다음으로 「매스컴」의 윤리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의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셋째로 매스컴 윤리학연구에 있어서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즉
1.「매스컴」윤리의 학설 적 연구
2.「매스컴」의 윤리문제의 구체적인 『케이스』의 연구
3.「매스컴」의 윤리성에 관한 실체분석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매스컴」윤리학의 연구에서 있어서 우선, 다루어야 할 것은 「매스컴」의 존재에 관한 고찰을 연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매스컴」의 존재의 원리는 어딘가 사상적 성층권에 보편적인 원리로서 존재하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 사회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안출(案出)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해서 「매스컴」을 역사적으로 연구해 볼 수가 있고, 이에 관한 학설 적 연구에 대해서 많은 시사를 학자 간에 다루어져 온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매스컴」의 윤리연구는 기본적 원리의 연구와 더불어 이 원리의 실제적 적용을 고찰하지 않으며 안 되겠기에 이의 『케이스』연구를 빼놓을 수는 없으리라고 하겠다.
이와 동시에 윤리적 관점에서 「매스·컴」의 실체에 관한 조사 분석을 시도할 수 있으며, 송수 측이나, 수수 측의 실지조사나 효과의 실험조사 따위도 이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더욱 기본적인 것으로서는 내용분석이라 하겠다.
「매스컴」윤리의 교육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먼저 「매스컴」윤리의 교육에는 이상 말한 두 가지 연구의 측면에다 윤리교육, 『케이스』교육, 그리고 조사교육의 세 가지 교육이 성립하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교육이 개별적 혹은 종합적 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매스컴」의 윤리교육의 근본적인 것은 「매스컴」의 존재원리를 고찰하는 이론교육으로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기(其) 하나는 「매스컴」의 윤리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전망을 던져주어 그 해결의 가능성을 다루는 이론체계를 교육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는 역사적인 고찰로서 학설사적인 교육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에는 모두 일장일단이 있음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는 양자의 장점을 따서 「매스컴」의 윤리문제의 일반적 전망과 아울러 제학설을 연구시키는 종합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동시에 「매스·컴」의 직업인에게는 이러한 원리를 실무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시켜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무교육 가운데 윤리문제를 제시하여 각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의 「매스·컴」을 다룬 사람이 직면하였던 여러 가지 윤리문제라든가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온 사례도 교육시킴으로서 현실문제 타개와 대처에 있어 관건요건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일방 현실의 「매스·컴」이 사회적 책임 소재의 자각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는 이의 조사 분석등을 시키는 것도,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수단이라 하겠다.
예컨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대사건의 각종 「매스·메디아」를 통해 표시된데 대한 사회적 책임의 조사 등의 학술교육기관에 있어서의 「매스·컴」윤리의 조사교육의 좋은 과제가 된다.
이상 말한 직업교육은 장래 「매스·컴」에 종사할 송수 측을 위한 윤리교육인 것이나 「매스·컴」의 이용자인 수수 측의 윤리교육도 이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매스·컴」이 사회생활에 불가결인 것인 이상 이것을 수요로 하는 이용자인 사회인일반도 「매스·컴」의 본질을 이해하여 올바르게 활용할 줄 아는 방법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미 외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고교의 사회과교육분야나 대학에서의 일반교수과정에서 「매스·컴」에 관한 학과목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으며, 「매스·컴」의 기능과 사회생활에서의 의의를 설명하여 어떠한 「매스·메디아」를 선택하여야 할 것인가를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므로서 「매스·컴」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공동조사도 할 수 있다고 보겠다.
「매스·컴」은 많은 경우 가정을 단위로서 구독되고 시청되고 있음으로 해서 특히 가정에는 「매스·메디아」의 활용에 대해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가정에서는 많은 미성년자와 같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니 만큼 신문, 잡지의 선택, Radio, T.V의 프로 선택 등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나 성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으며, 그리고 더욱이 가정에서 Radio, T.V 「매스·메디아」를 올바르게 좋은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문연구나 교육기관 등에서 이것에 관한 강연 또는 강습회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매스·컴」의 윤리문제나 사회적 책임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사회생활의 불가결인 것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국가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미치는 해독의 침해를 보호하여야만 할 일대 사회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현실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제문제점을 고찰할 때, 법제상의 문제까지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매스·컴」의 법제는 확증에 기인한 「매스·컴」의 사회적 행위를 다루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매스·컴」의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 하겠다.

(필자 · 공군중령 공본 공보과장)

위인일화 **필승의 기백**

1798년 영국함대가 나일 강 어구에서 파죽지세로 이집트를 정복하려는 프랑스 함대와 싸움을 개시하기 전에 넬슨장군은 작전 계획을 부하 장병에게 설명하였다.
그 때, 참모 베리대령이 『각하, 만약 이 싸움에서 아군이 승리를 얻는다면 전 세계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라고 말하자며 넬슨은 엄숙하게 이렇게 말하였다.
『베리대령, 말조심하게. 이 싸움에서 만약 이긴다면 하는 따위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되네. 우리 영국을 위하여 또 전 세계 평화를 위하여 필승을 기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때일세. 전 세계의 사람들이 뭐라고 비평하든 그것은 지금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살아 있건 죽었건 간에 프랑스의 함대는 반드시 나일강변에서 퇴각한다는 한 가지 뿐일세.』
이 존귀한 훈계는 장병들에게 필승의 기백을 주어 드디어 프랑스의 대군을 격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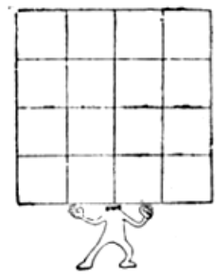
독창력 테스트

-(승전호)-

첫째로는 각 개개인, 즉 당신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장애를 의식적으로 적극 제거하는 일입니다.
둘째로는「아이디어」의 생산을 저해하고 방해하며, 좌절시키는 말을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세세히 설명하겠습니다.

4.독창성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독창성이 구비되어 있고, 이 기능은 또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거기에 비례하여 뻗어가는 이 능력을 저해하는 여러 장애가 또한 있습니다.
가. 인식의 장애(Perceptual Blocks)아래 그림에서 정방형은 전부 몇 개입니까? 60초 이내에 대답 하십시오.



설마 60개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17개 라구요? 21개요? 미안합니다. 정확한 답은 30개입니다. $4^2+3^2+2^2+1^2=30$
이와 같은 착오를 인식의 장애에 기인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⑴자기가 만든 조건에 구속되는 경우‥
주어진 문제, 또는 사실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상황과를 혼동하여 문제의 해결을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어지지도 않은 조건을 제멋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방형이라고 하니까 조그마한 정방형만 보고, 그 보다 큰 것은 인식 못하는 따위입니다.
⑵주어진 조건을 잊어버리는 경우‥
먼저와는 정반대로 주어진 조건들 중의 일부를 잊어버리고 문제를 풀려는 경율 때문에 왕왕 Problem Sloving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⑶속성과 그 영향과의 혼동‥
어느 사물이 갖는 속성과 거기에서 나오는 영향과는 별개의 것인데도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창적인「아이디어」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⑷감각기관의 편향‥
우리는 흔히 백화점에서 강렬하거나 선명한 색체에 현혹되어 물건을 산후에 내가 왜 이것을 샀을까 하고 집에 와서는 후회하는 때가 있는데 이러한 시각기관에 지나치게 정신이 집중되는 것 따위가 역시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⑸인과 과를 엇바꾸어 생각하는 경우 ‥
열이 난다는 현상, 그것은 병이 아니고, 병의 원인은 따로 있고, 열은 병을 고치기 위한 신체 자체의 치료현상인데 병원의 제거는 하려 않고 열만 나추려고 해열제만 자꾸 먹는 따위가 이 경우라 하겠습니다.
나. 사회문화 장애(Cultural Blocks)
우리가 사는 사회의 관습·전통 따위, 또 문화가 가져다주는 장애들입니다. 그간 여자들이 바지를 많이 있습니다마는 왜 남자는 치마를 입지 않습니까? 오히려 남자가 여자보다도 더 치마의 필요성을 통감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어릴 때는 공상의 날개를 마구 뻗쳐 봤습니다마는 성장해감에 따라 공상은 시간의 낭비니 어린애 같은 짓이거니 하고 저지당하고 있고, 호기심도 경박한 짓이라고 악덕시 되고 있습니다. 천재는 세계에서 가장 호기심이 강한 족속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외에 논리적인 사고만으로 유일의 것으로 신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풍조는 이 사회를 거의 지배하다시피하고 있는 장애로서 이론의 정연만이 만능이라는「인테리」의 근시안적 결함입니다. 생각해보시오. 현실은 논리적 사고만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가 더 흔한 것입니다.

지도상에서 평균수심 5천리의 강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건너가다가 익사한 꽁생원이 있다고 합니다. 통계의 과신이라는 것도 문화의 장애입니다.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풀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어느 큰 병원에서 간호부가 괴한에 능욕을 당한 끝에 교살을 당했습니다. 마침 이 간호부의 비명을 듣고 이, 김, 박 세 의사가 달려와 간호부가 쓸어져 있는 방에 뛰어 왔습니다. 간호부는 빈사상태에서도 겨우 고개를 들어 이렇게 말하고는 숨이 끊어 졌습니다.「범인은 바로 저 사람이에요」라고
누가 범인이었을까요. 그런데 김의사가 진범임이 곧 판명되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부정하드라도 하도 증거가 뚜렷하여 말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증거란 무엇이겠습니까? 무척 간단하고 싱거운 그리고 뚜렷한 증거! 아신 분은 싱글싱글 웃고 계시는 군요. 해답은 마지막에 실립니다마는 한 십분간 만 더 생각 해보십시요.

이런 경우도 사회 통념 때문에 사고가 어지럽혀진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다. 감성의 장애(Emotional Block)
감성이나 성격에서 오는 장애입니다. 혹 남들이 웃지 않을까? 불쾌해 하진 않을까? 바보취급하면 어쩌나 …….
열등감(Inferioroty Complex)이 주원인이 되어 우리의 독창력에 녹이 쓸게 합니다.
저 사람은 군인타입 이 사람은「엔지니어」그 친구는 선생 타입 등등도 이것으로써 자기 직업의 고정된 틈속에 박혀버려, 밖의 일은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한 이해하려고도 않습니다. 투입 에너지가 클수록 생산되는「아이디어」의 효율은 높아집니다. 비평을 겁내지 않고 강한 의욕을 가지고 한 곳에 집착하거나 구애되지 말고 부지런히 활약하는 적극성으로 이들 장애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심중의 장애를 정복함과 더불어 남의「아이디어」를 살린다는 관점에서 남의「아이디어」를 비록 선의에서 일망정 비판한다는 엉뚱한 사치를 깨끗이 버리고 격려와 찬사로서 가꾸고 닦아 준다는 건설적인 비덕을 갖추어야 겠 습니다.
이제까지 인식의 장애, 문화장애, 감정의 장애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요인들이 창조적인 사고를 방해하므로, 이를 제거토록 평시, 적극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유공장에 불이 났는데 때마침 단속중이어서 속수무책으로 서성거리는 판에 한 독창적인 직공이, 우유저장탱크에 호-스를 연결하여 우유를 물에 대신할 것을 착상하므로 서 공장을 구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휘관의 입장에서 계신 여러분, 한사람의「아이디어·맨」을 당신의 부하로 갖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대의 모든 난문제가 재치 있게 풀려 나갑니다. 공고한 단결과 항상 발전이 약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전부대원을「아이디어·맨」으로 할 수 있는「키-」를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구한 세월에 걸쳐 당신의 마음속에 쌓여진 독선적이고, 고루한 장애가 만에 일이라도 있다면 말끔히 씻어 내십시오. 선입감을 버리고 부하들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내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5.살인문구(Killer Phase)

이번에는「아이디어」를 죽이는 고약한 말들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들 살인문구야 말로 여러분의 부대원으로 하여금 현상유지에만 시종케 한 기계와 같은 무능하고 무미한 인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문구를 잘 음미해 보십시오.

○그것, 괜찮은 생각이긴 한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은 경우가 다르니까.
○이론으로 그러하겠네만, 실제 면에서는 별문제거든.
○우리 부대의 임무에는 배이되거든
○비용 너무 들 텐데……
○실행은 곤란 할 텐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는 걸,
○부대규모가 적어서 어디 될 수 있을까?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네
○그러면, 현 시설은 소용없게 되지 않을까?
○아직 시기상조일세.
○좀 더 기대려보세. 응?
○자네의 생각은 너무 진보적이거든. 허, 허.
○너무 변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이 정도는 흔히 있는 말들로써「아니,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된단말야」하고, 반박하실 겁니다. 여하튼 안하니만 못한 것이 사실이고 보니, 연구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 일은 아직 아무도 해본 일이 없다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토록 하게.
○그런 것을 하면 상부에서 웃을 껄.
○자네, 농담하는 것이 아니겠지.
○지휘관이 말을 듣지 않을 껄.
○모두들 반대일거야.
○그런 것은 하지 않고서도 이제까지 잘해왔단 말야.
○쓸데없는 것은 아예 생각도 말게
○자넨 늘 엉뚱한 것만 생각하는 군.
○전에도 해봤지만 잘 안 되드군.
○그런 변곡을 할 필요가 어디있나?
○그건 안 되네! 해보지 않아도 잘 알아!
○그런거 생각할 틈에 딴 거나하지 그래!
○할일이 많을 텐데, 그렇게 한가한가?
○어디 딴 데서도 한 적이 있나?
○그건 우리 책임범위 밖의 일일세.
○늙은 사람들의 머리가 잘 돌아갈까?
꾸준히 읽어 보셨읍니까? 퍽 다채롭습니다.
그러나 더 지독한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놈)아!
○귀관, 돌지 않았나?
○누구한테 잘 보일려구 그러나?

이와 같은 살인문구도 그리 드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둘레서 매일같이 발사되는 것들입니다.
이상의 말들은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조금만 힘쓰고 주의하면 얼마든지 딴 좋은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부하나 동료의 독창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되고, 부대의 사기를 고양케 되고, 개인과 집단의 전투력을 높여 보다 희망적이고 바람직한 목표를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십시다.
「킬러-.푸레이스」를 말소하는 운동을 전개합시다. 그래서 현상에 만족치 않고 문제를 찾아내어, 과감히 이를 해결해 나가는 왕성한 의욕의 기풍을 육성해 나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해서 이등병부터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간호부살인사건의 해답>
김의사만 남자이고, 이·박 두 의사는 여의사였습니다.
(필자·유철종 공군대위 육사 훈육관)

<세계를 움직인 책들>②

토마스 페인의 〈커먼 쎈스〉가 나온 후 두 달이 안 되어 인간 활동이 다른 영역에서 심대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운명을 지닌 책이 런던에서 출판되었다. 그것이 바로 애담·스미스의 〈제국민의 부의 성질 및 제원인의 연구〉(O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라는 두 권으로 된 당당한 대작으로 처음 간행되었을 때에는 아무런 주의도 끌지 않았다. 사실인즉 저자의 사후의 다음 세기가 도래하기까지 이 저자는 그것이 가진 충격을 완전히 발휘하기에 이르지 않았던 것이다. 1776년은 미국혁명이 시작되고 프랑스 혁명이 무르익어 가던 때로 산업혁명은 증기력의 발견에 의해서 빛을 얻어 그 속도를 가하고 있었다. 영국에 있어서는 경제생활의 모든 국면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배하에 있었다. 가격은 안정되어 있었고, 노임과 노동시간은 고정되었고, 생산은 통제되고, 그리고 외국무역은 국가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었다. 전쟁은 연달아 일어나고 강력한 육, 해군대 입구 전 세계를 통해서의 식민지 쟁탈, 허실양수를 써서 하는 프랑스 등 경쟁국의 약체화 등등의 국민 정책의 지도목표였다. "부의 공평한 지배 등에 관한 따위의 일언반구일지라도 반드시 지배계급의 맹렬한 반대를 만났다. 교육은 소수의 특권자들만을 위해서 있었고, 형법은 준렬을 옹(擁)하고 대중의 정치적 권리는 대개는 이론뿐이고 사실은 전연 다른 것이었다. 이미 몇 세대를 이어 왔듯이 지주인 귀족들이 여전히 정권의 고삐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상업 및 산업의 강력한 계급이 이미 대두하였으며, 자기들도 특권을 요구하고 또한 누려 왔었다.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수출은 천복(天福)이고 수입은 재앙이었다. 화폐가 나라를 떠나서 나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하고, 무역은 언제나 「순조로운」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노동임금은 싸고, 노동시간은 길지 않으면 안 된다. 고액의 관세로서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강력한 상선대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리고 중상주의자를 원조하는 수단 그 자체가 사실상 전 국민의 이익이 된다고 상정되어 있었다. 그와 같이 높아진 주장의 압력하 에서 의회는 "그러한 개념의 태반을 법률로 제정하였다. 이러한 때에 그러한 생각이 그릇되고 유해한 것이라 하여, 이를 논파하려는 마음을 품고 아담 스미스가 나타난 것이다.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스미스의 생애는 이제 그가 다루게 되었던 그 불명의 과업을 위한 준비기간 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스코틀랜드 태생으로서, 14세에(1737) 글라스고우 대학에 입학하였다. 거기서 그는 위대한 교사 프란씨스·허치슨의 영향을 받았으며, 되풀이 말해지던 허치슨의 신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스미스에게는 불변의 지배철학이 되었던 것이다. 다음 옥스퍼드 대학으로 진학하였으며, 여기서 6년간 재학하였을 때 그간 스미스는 태반 시간을 보내면서 닥치는 데로 많은 문학서를 읽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돌아가서, 1751년까지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의를 계속했다. 에딘버러 에서는 논리학 및 형이상학 강좌의 제1교수로 있었고 그 후 글래스고 대학에서 도덕철학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12년간 재능 있고 또한 평판이 좋은 교사로서 재직하였던 것인데, 그 동안에 베스트 셀러가 된 〈도덕정조론〉(Theory of Moral Santiment)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한결 평판을 더해갔다. 그러자 충분한 경제적 보수를 얻을 수 있다는데 마음이 동해서 대학교수직을 사임하고 어떤 젊은 귀족의 3년간의 대륙여행에 동반자 겸 교사로 따라 갔다. 그 덕분으로 스미스는 특히 프랑스에서 제일류의 경제학자, 철학자 및 정법사상가들과 사귀게 되었다. 후에 〈국부론〉으로 발전을 본 초고는 1759년에 이미 스미스 노트에 나타나 있으나 오랜 숙려와 연구와 독서와 직접적인 관찰과 여러 가지 직업 여러 계급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수정하여 결국 1776년 3월 9일에 이르러 비로소 이 노작(勞作)이 인쇄소에서 나오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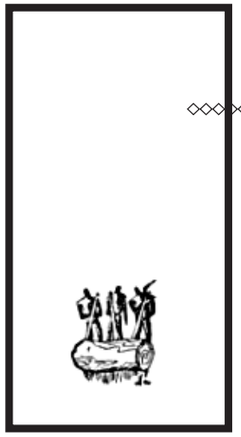
〈국부론〉의 내용의 백과사전적 광범 성은 이 책을 한낱 경제학적 논문 이상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 노동의 분업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고 있으나, 스미스는 그 고찰을 화폐의 기원 및 사용, 상품의 가격, 노임, 자본의 이윤, 지대, 은의 가치,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과의 구별 등에까지 뻗치고 있다.

애담·스미스의
국부론
Adam Smith;
Wealth of Nations

이어서 그 고찰은 로마제국 몰락이후의 유럽의 경제발전, 유럽 제국(諸國)의 상업 및 식민정책의 분석과 비판, 원수의 세입, 원시사회에 있어서의 방위 및 재판의 제방법, 유럽에 있어서의 상비군의 기원과 발전, 중세기에 있어서의 교육의 역사와 스미스 자신의 시대의 대학의 비판, 교회의 속사상(俗事上)의 권력의 역사, 공채의 발달 등등에까지 미치고, 결론으로서 과세의 원칙과, 공세입의 제방법의 검토가 마지막으로 행해지고 있다. 〈국부론〉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은 니코로·마키아벨리에 의해서 이미 단정된 것 이었는지도 모른다. 즉 무릇 모든 인간은 주로 사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 재부에의 욕망도 또한 그것의 현출인데 불과하다. 이기적인 충동과 자극은 모든 인간생활의 바탕이다. 따라 차라리 이 개개인의 이기주의야 말로 사회의 복리를 좌우하는 힘이라고 스미스는 믿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의 모든 제한과 금지로부터 인간의 자유로운 생산경쟁으로만이 번영이 약속된다고 했다.

노동자, 농민, 억비자(抑費者) 그리고 크게 말해서 사회의 옹호를 위해서 스미스가 창도하였던 학설은 그 후 일체의 정부의 통제도 간섭도 없는 방임된 방종을 의미하는 무절제한 사리에 의해서 왜곡되었다. 그러나 어떻든 영국의 실업가들은 이 새로운 경제적 자유주의를 변호한 스미스의 학설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산업혁명의 진행에 추차(推車)를 가하고 중상주의적 제한과 특권을 내던지고 마침내 19세기에 이르러 영국으로 하여금 세계최부의 국가로 발전케 하였던 것이다.

(로버트 B 다운즈의 「세계를 개혁한 책들」에서 요약)



중공치하에 있어서의 지식인

<승전호(承前號)>

정죽원(鄭竹園)

3. 지식분자에 대한 중공의 새로운 방침

「백화제방(百花齊放), 백가쟁명(百家爭鳴)」을 슬로건으로 하는 중공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모택동은 중공정권에 대한 중국내의 지식의 혐오와 분노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은 그가 예측한 것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그에게 깨우쳐주는 것이 되었다.

50년 6월 「명방(鳴放)」정책의 종결 후 중공은 당시 지식분자에 대한 「사상의 개조」와 「노동개조」를 제기하여 문교정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눈에 거슬리는 지식인들을 추방하는 한편 공산당에 마음을 돌리게 하려는 교심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58년 새로 인민공사 운동이 추진되면서부터 지식분자와 노동계급을 하나로 묶는 정책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종래의 지식계급을 개조하여 소위「보다 빨갛게 보다 전문적」인 새로운 지식계급을 만들어 내려는 새로운 조치인 것이다.

중공은 지식분자에 대한 정치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문교공작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총서기 유소평(劉小平)은 57년 9월 8기 3중전회에서 행한 「정풍(整風)운동에 관한 보고」가운데서 전력을 다하여 문교조직을 정비할 것을 제창하고 동시에 공산당은 자기 자신의 기술간부를 가져야 하며 당 자신의 교수, 교원, 과학자, 보문기자, 맑스·레-닌주의자 및 이론가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유소기는 57년 11월 소련 혁명 40주년을 경축하는 자리에서 행한 연설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동자계급 자신이 각종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공은 3중전회 후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1. 57년 10월 중공중앙위원회는 그의 중앙당기관 중에서 천여명의 고급 중급간부를 선출하여 각급 대학 중학교의 교장, 교감, 원장, 과학연구소의 정부소장에 임명하여 숙청된 「우파분자」에 대치하였다.

2. 중앙 및 지방당 위원을 대량으로 대학전문학교에 파견하여 강의를 담당케 하였다. 선전부장 육정일(陸定一)은 북경사범대학에, 정치국후보위원회 강생(康生)은 중인인민상학에, 선전부차장 진백달(陳伯達) 주양(周揚)은 북경대학에 파견되었고 그 밖에 많은 당위원 서기들이 각급 학교에 파견되었다.

이것은 지식인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을 그의 장중(掌中)에 넣으려는 것이다.

3. 당 자신이 이론공작을 담당할 많은 간부를 양성키로 한 것이다.

이것은 광둥에서 내몽골에 이르는 15개의 성 시 자치구에서 광범히 추진되었는데 5개년 간에 3만5천의 이론가를 만들어 당, 학교에 투입함으로써 구지식인과 대치하여 공산주의이론을 지도하는 한편 신문, 잡지 등에 공산주의이론에 입각한 각종 언론과 평론을 기고케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이론가들이 양성되는 기간에 중공은 종래의 지식분자에 대하여 다음 네 가지 처리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명방(鳴放)기간 중 우파적인 언동을 한 선생들이나 학생들에 대해 여러 가지 징벌을 주는 방법이다.
한양폭동에 관계가 있는 세 명의 교사 곧 한양 제1중학의 부교장 왕건국과 교무주임 및 교사 5명은 총살을 당했고 폭동에 참가했던 주동 학생들에게는 5년에서 15년에 이르는 장기형이 과해졌고 57년 여름의 졸업생들은 정풍운동 중 그들이 취한 언동에 따라 정치적 성분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 중 극단적으로 「반사회주의적」인 분자는 「노동」을 통해 소위 「노동개조」를 받아야 했다.
둘째는, 지식인들은 추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대학, 전문학교교사, 문예작가의 순으로 시행되었다. 57년 11월2일부 북경 광명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북경인연대학에서만도 560여인이 추방되었다고 한다.
중공의 설명으로는 이들에게 노동을 체험시키므로 서 「부르주아사상을 타파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사상을 갖게 하는데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모양을 바꾼 처벌임이 틀림없다.
셋째, 지식인들로 하여금 교심(交心)운동을 전개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자백을 통한 자기비판으로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서약케 하는 것이다.
이 교심운동에는 집단교심과 개별교심, 두 가지가 있는 바 집단교심의 실례는 58년 3월 민주각파, 대학전문학교 교수, 과학자, 작가 등 1만여 명이 북경과 상해에서 교심궐기대회를 개최 교심공약을 선언한 것을 들 수 있다.
공약은 (1)마음으로부터 공산당과 같은 보조를 취한다. (2)성심성의를 다해 사회주의를 위해 노력한다. (3)열심히 사상개조를 단행한다. (4)노동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노동공작에 참여 한다 등이다. 개별교심은 고급지식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묵살하고 그에 모욕을 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이전의 「고백」이나 「자기비판」에 비해 한걸음 진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학술사상계의 지도적 학자들에게 대하여 비판을 가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저명한 작가 파금(巴金)을 위시하여 철학, 경제학 사회학계의 권위들이 비판을 받았다. 중공은 이러한 저명인사들을 비판함으로서 구 지식인의 사회적 지위에 타격을 가하고 당의 지도적 지위를 높이려고 한 것이다.
58년 4월 이후 인민공사의 진전에 따라, 중공은 한걸음 더 나아가 지식인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문화소동자」로 개조하려고 하였다. 선전부장 육정일(陸定一)은 당시 홍기(紅旗)에 발표한 논문에서 새로 양성되는 지식분자는 「사회주의적 자각이 있고 교양이 있는 노동자」로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에 다 같이 종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 지식분자인 동시에 지식분자로서 노동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새로운 요구에 따라 중공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신정책을 실시했다.
1.노동면학의 실시
각급 학교는 공장과 농장을 설치하고 반노(半勞) 반학(半學)을 실시했다. 학생과 교직원은 노동함으로서 자기 자신을 양육하고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다. 많은 학교가 2·3제를 실시하여 수업시간의 ⅓은 학습, ⅓은 실습, ⅓은 노동을 하였다. 이것은 문교비를 줄이는 동시에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구별을 없애 버리려는 것이다.
2. 민영학교의 장려
이것은 학교가 대부분 국가의 경영하에 있음으로 민영학교를 장려하여 학교를 좀 더 일반화하려는 것이다. 그 주된 것은 농업중학과 각지인민공사 경영의 총합홍전(總合紅專)대학이다. 총합홍전대학은 그 학생의 소감이 초급중학 내지 초등학교정도의 불과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대학의 호칭을 달아주고 그 교수로 지구 당 위원들과 합작사의 숙련공을 동원함으로서 구 지식인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려 하였다.
3. 후금박고(厚今薄古)의 제창
고대보다 현대를 중시하자는 운동이다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된 숙청투쟁으로 인하여 학자들이 감히 현실 문제를 말할 수 없게 되자 자연히 고대로 눈을 물려버려 현대를 멀리하게 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사가(史家)는 진한(秦漢)시대만 말하고 문인들은 고전문학만 논하게 된 것이다. 52년에서 57년까지의 출판물의 7할이 고전관계였다.
중공은 이러한 학계의 분위를 다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위 후금박고를 주장하여 일체의 학술은 현실의 정치문제와 연결되고 사회주의의 수요에 충당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새로운 정세에 당연하여 중국 대륙의 수백만 학자, 지식인들은 사상적으로 중공에 완전히 동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피하든가 둘 중에서 하나를 택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4. 지식인과 중공의 기본적 모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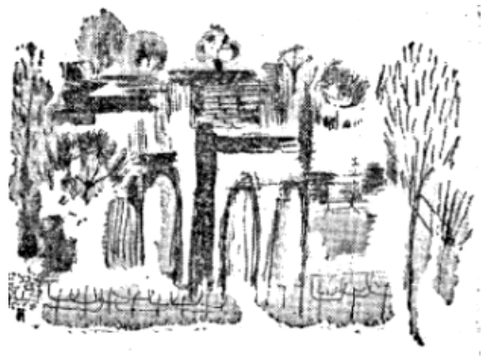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중공은 정권을 탈취하기 전에는 지식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은 것이 사실이었으나 일단 그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57년 명방 운동에서 최고조에 달한 이러한 증오심은 지식인들이 중공을 지지하는 위치에서 반항으로 나가기까지 전후 10년이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기본적 원인은 지식인들이 점차로 공산주의의 실체와 본질을 파악한데 있다.
57년 명방 기간 중 지식인들의 대 중공비판은 통렬을 극한 것으로 그 중요한 논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공산당의 본질문제
중공의 국영통신인 「신화사(新華社)」의 기자로 13년 동안이나 당에 충성을 다했던 대황(戴煌)은 공산당이 본질이 신적 권위에 특권을 더한 새로운 착취 계급이라고 지휘하면서 공산당의 각종 간부는 중앙지방을 막론하고 언제나 자기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신화함으로써 인민의 머리위에 종종 오줌을 끼얹는 행동을 제멋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르빈시당 선전부장 전신(傳信)은 「공산당은 특권을 휘두르며 무상으로 인민의 잉여 노동을 가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말들은 지식인들이 중공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산정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2)당천하의 문제
북경 광명일보 편찬인 저안(儲安平)은 중공이 표면상으로는 연립정부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당독재를 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비난했다. 그는 수상 및 12명의 부수상이 전부 공산당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심양사범학원학생 장백생(張白生), 황진려(黃振旅) 등 2인은 57년 6월 20일부 심양일보에 발표한 논문 중에서 「해방 후 10년간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었고 다만 형식만이 존재했다. 헌법은 한 조각 공문(空文)에 불과한 것이고 당은 언제나 헌법 위에 군림한다. 표면상으로는 민주선거니 통일전선이니 하지만 실제로는 일당독재 소수중앙정국위원들의 독재다. 당은 한손에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성전(聖典)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정권의 보검을 들고 있다. 여기에 누가 감히 이의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의를 말하면 반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철모를 쓰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죄명도 없는 수갑을 채우기 마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3)반혁명숙청 문제
지식인들은 중공이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 반혁명진압(진반(鎭反)과 반혁명숙청(숙반(肅反)이 치자(治者)는 인정(仁政)을 해야 한다는 중국 고래(古來)의 정치적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폭력으로 혁명을 옹호하려고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동제대학조교수 왕장풍(汪長風)은 「반혁명숙청은 인간의 도덕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4)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하여
북경대학학생 담천영(譚天榮)은 「1895년 이후 마르크스주의는 그가 말하는 역사의 필연성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반대물로 전화(轉化)되고 말았다. 」고 말하고 있고 경제학자 오반농(吳半農)은 「자본주의국가의 경제발전과정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나는 여러 면으로 현실과 고전(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저자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시장에 대한 국가의 작용,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상대적 빈곤화, 이윤률 체감법칙, 경제위기에 대한 공산주의 이론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역사의 발전에 의해 현실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무원 제1공업부기계과학연구원 부원장 뇌천각(雷天角)은 더욱 명백하게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세계의 어디에나 통용되는 것이라는 중공의 주장을 부정하였다.
이 밖에도 지식인들은 중공의 융통성 없는 「일변도」 외교노선이나 소위 사회주의에의 개조 등에 대하여 가차 없는 공격을 가하였다.
이러한 방격(放擊)은 중공정권에 대한 지식인들의 큰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또 지난 8년간 중공이 사력을 다해 힘써온 「사상개조」나 「문예정풍」등 여러 운동으로도 지식인들의 사상경향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식인들과 중공 사이의 대립이 깊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으로 그 대립의 주요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점이다.
첫째, 당성(黨性)과 인간성 사이의 대립이다. 공산주의는 폭력을 방패로 하는 일종의 광적 종교운동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이단을 배척하는 유아독존주의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선전과 무력 그리고 권위를 생득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공산당은 항상 인간들에게 당성을 주입함으로써 진실한 인간성을 몰각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당의 요구에 대하여 자유와 진리를 사랑하는 지식인들이 동조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때문에 당과 지식인은 선천적으로 대립하게 마련이다. 공산당이 아직 정권을 잡기 전에는 지식인들의 이상주의에 호소함으로서 그들을 유혹할 수 있었으나 정권장악 후에는 그들의 이상주의적 가식이 점차로 드러나고 적나라한 권력투쟁의 본질이 나타난 것이다. 정권을 보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은 한편으로 인민의 생활을 통제해야하고 인민의 사상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광명과 진보의 상징으로 국민을 현혹할 수 있지만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지역의 인민들—특히 지식인들은 그들의 진면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반공운동이 일어나고야 마는 것이다.
둘째의 기본적 모순은 학술과 교조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국가사회를 막론하고 학술의 융성은 사상적 자유가 전제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춘추전쟁시대에 중국의 학술이 융성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의 학자들을 통할할만한 강력한 통일된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이 자유분방하게 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산당은 그의 일당독재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이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하여 항상 교조적 무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기와 다른 학술사상을 배척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백가쟁명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학술사상이 나날이 침체되어갈 것은 뻔 한 노릇이다.
지식인과 공산당 사이의 모순은 물론 이상 두 점뿐만 아니다. 그러나 이 두 점만 가지고 보아도 중공은 그 뱃속에 대환(大患)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3백만 이상에 달하는 참된 지식인들의 마음은 중공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으며 이들의 진정한 협력이 없으면 소위 사회주의건설도 공염불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중공은 전기한바 새로운 지식분자의 양성에 일체의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중공은 그들이 계획한 새로운 지식계급의 양성으로 또 다른 하나의 도전을 받을 것이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지식인은 누구나 어느 정도 이상으로 성장한 다음에는 반드시 중공의 폭정에 불만을 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헝가리, 폴란드에서의 인민봉기와 명방의 교훈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명백히 추리해 낼 수 있다. 즉 장래의 대륙반공혁명 중에는 이러한 지식인들이 –그들이 말하는 바 지식분자들이 –틀림없이 가장 유력한 반공선봉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
역사의 전개는 이러한 우리들의 견지를 증명하고야 말 것이다. (끝)

(김병성 역)

장병페이지

창공에 도전하는 형제들
-공군 일가를 찾아서-



10전비단 편

제1번
공구소령 이배석(李培石)(34세)
(전10전비 의무전대 항공의무과장)
제2번
공군대령 이배선(李培善)(32세)
(현 10전비 기지전대장)
제3번
공군소령 이배열(李培烈)(30세)
(현11전비 군수처 질통제공장)
제4번
공군하사 이배을(李培乙)(25세)
(현 33구조대대 구조사)

4형제가 모두 공군의 「유니폼」을 입고 있다면 아마 놀랄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거짓말 아니 정말인 사실이다.

이들 용감한 형제들은 또한 형제합동결혼식을 올려 한때 화제를 독점한 일이 있는데 그 장본인인 둘째 이배석 대령이 바로 10전비의 기지전대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필자가 어느 날 전대장실 문을 두드렸더니 이대령님은 반갑게 맞으면서 앉기를 권한다.

우선 필자는 공석상에서 형님을 대할 때 좀 거북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대령은 손을 내저으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파안대소하는 것이었다. 얼마 전만 하여도 형님인 이배석 소령과 전체지휘관 참모회의 때는 가끔 형제가 같이 참석하여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런 때도 조금도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정에서는 양당(兩堂)께서 말하자면 신식 분이기 때문에 쭉 가족들이 둘러앉아 재미있는 얘기꽃을 피우며 특히 아버님의 「죠크」는 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든다고 자랑삼아 말한다. 원래 북한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을 비롯하여 9남매가 모두 월남하였고 맨 처음 이배선 대령이 병과3기생으로 입대하게 된 것이 처음인데 이대령은 곧 공군사과학교1기생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뒤 형님인 이배석 소령 동생인 이배열 소령과 이배을 하사가 차례로 공군에 들어왔는데 모두 이대령의 권고 때문 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공군제복을 입고 나란히 인사드리는 아들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퍽 기뻐하신다고 한다. 형제끼리 가끔 대포 집에 가서 얼큰히 취했을 때도 있고 특히 형제탁구시합을 할 때가 제일 재미있는 순간이라고 한다. 이기고 지는 것은 실력들이 다들 막상막하이기 때문에 서로 예측할 수 없다.

1년에 한 서너 번쯤 다들 함께 모이게 되는데 이럴 때는 주로 공군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화제가 집중된다는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들 4형제가 모두 공군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배선 대령과 이배열 소령의 합동결혼식을 올릴 때도 형인 이배석 소령이 주장하고 형제들의 합의로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아직도 그 당시의 아름다운 추억을 잊을 수 없다고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들 형제는 앞으로 군대생활을 계속할 것인데 앞으로 공군에 들어올 동생이 둘이나 더 있노라고 덧붙이면서 되도록이면 형제들이 다른 특기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한결 보람 있는 일일 거라고 말하였다.

현재 맏형인 이배석 소령은 도미하여 피 교육중에 있는데 나머지 형제들은 지금 각각 다른 임지에서 일하고 있다. 필자는 이들 용감한 공군일가에 행운이 깃들기를 빌면서 발길을 돌렸다. (10전비 정훈관실 김열회(金烈會) 기)

정비사의 수기(手記)

상사 김영수(金永洙)

여기는 ○○공군기지-출근자 차창 밖으로 두 줄기의 흰 비행운이 고공에서 원을 그리는 모습이 보인다. 이건 출동 전에 으레 있는 비상특기

파리의 표정

「메트로」사람을 실어다 주는 전철편이다.
「피앙세」를 기다리는 여인이 초조하지 않아서 좋다.
다음번 차표를 꺼내는 어느 「파리장」이 또한 어색하지 않아서 마음에 든다.
-지하철 출입구에서-

사진·글 윤응열(尹應烈)
〈10전비 행단장〉

조종사들의 아침해장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몇 대가 떠있는지 분간할 수 없는 고공에는 다만 두 줄기의 흰 줄만이 아름답게 비쳐준다. 저것이 내가자고 깨면 어루만지는 물체려니 생각하니 비록 말없고 감정이 없는 한 개의 쇠붙이 불과하지만 애정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늘을 맴도는 이들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직장으로 들어간다.

내가 군대에 들어와서 뼈마디가 굵은 사람이만 특히 내 생활의 반을 이곳에서 지나는 나로서 정비대대에 있는 한 개의 때 묻는 물건이라도 다정스럽게 느껴지는데 하물며 전우동료들의 모습을 대하는 일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외 하사관들만 하여도 ○○명을 헤아리는 정비대대는 각기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숙련된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각종항공기의 엔진, 기체, 동력, 전기, 전자, 계기, 유압, 기계, 판금, 용접, 도장과 목공 등 각 분야에 걸쳐 노련한 기술자들이 모였으며 오락시설 도서관 등이 완비된 자랑하고 싶은 곳이 이곳이다.

아침에 얼굴을 마주 대하면 「굿모닝」으로 시작하여 그날의 일과가 개시된다. 수년 동안 고락을 같이하여 온 동료전우이지만 언제보아도 반가운 얼굴들이다.

각기 작업장으로 흩어지는 틈에 끼어 나는 부리나케 PARKING AREA를 달음질쳐 작업장으로 들어간다. 상황판이 놓여 진 책상에 앉으면 으레 관리실부터 작업명령이 「인터폰」을 통하여 들려온다.

『xx반 ○호에 STILL1명, x호의 RUN-UP, ○○시에 TEST FLIGHT OVER』
『xx반 알았습니다. OVER』
이 시간부터 나는 내게 부여된 여덟 간의 작업을 시작한다. 항공기의 수리 보기의 기능점검 및 수리와 측정장비의 작동상태 그리고 점검 등을 분담시킨 나는 격납고안 –해당 항공기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이 어느덧 습성이 되고 있었다. 이건 시시각각으로 변동— 항공기의 작업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때문이다.
이곳저곳에서– 소음이 격납고안—다. 야생동물들–울부짖는 듯한–장을 온통—는 소리, 「기아」의— 묘한 조화— 격납고를 울–
–로 제 환자가–이제는 이것도 –감을 던져줄 뿐만 아니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곧장 POWER CHECK장으로 항공기의 시운전을 나가면서도 잠시 Z엔진의 최고출력고주파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손에 든 CHECK LIST에 일일이 CHECK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IINTAKE가 터질지도 모르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변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시하지 않을 수 없다. RDM을 올려라! 연기가 새는 곳은 없느냐? 또 연기가 나는 곳은 없느냐? APU를 꺼라! 돌려라! 이렇게 한참 하고 나면 정말 정신이 멍청해지지 않을 수 없다.
소방차까지 미리 준비해 놓고 한 시간이나 두 시간동안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전율 때문에 전신이 땀으로 흠뻑 젖지만 이러한 아슬아슬한 모험 같은 일을 하는 것도 남자로서 통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뿐이 아니다. 게이지를 헤아리는 T.O를 뒤—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작업— 도 좀처럼 끝이 나지 않았다. 이럴 때면 밤을 꼬박 세워가면– 해야 한다. 작전상의 이유도– 가동률의 기준량에 도달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이러한 야간작업은 떡 주무르듯이 한 달에도 몇 번씩 한다.
그렇다고 우리 정비사들은 조금도 낯을 찡그리거나 불평을 하지 않는다. 그건 언제든지 우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인 탓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정비사는 정비사대로 느껴지는 희열이 있는 까닭이다. 자기가 애써 다룬 항공기가 시험비행을 할 때에는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안절 부절을 못하는 심정이지만 막상 재연기관이 작동되고 하늘로 솟구칠 때의 기쁨이란 어디에 비할 수 있으랴? 그러나 나는 항공기가 시야를 벗어날 때까지 이윽히 바라보면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마음속으로 비는 것이다.
시험비행을 마친 애기(愛機)가 무사히 활주로에 착륙할 때 초조히 기다리던 정비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와—』환성을 지르며 애기 위에 뛰어오르는 모습은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가끔 틈이 생기지만 나는 무사고비행기록의 수립에 전력을 기울여 보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여 본다.
하루의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설 때 에도 내일의 「스케줄」을 머릿속으로 외어보는 것이다.

시

길

병장 최복영

턴
하얀 노정(路程) 양옆
뽀부라의 대열
구름이 가고
달이가고

집나간
나그네의 여정(旅程)
발소리
그리고
말소리

시

마음

상병 조동진

뽀오얗게
솟아 오른 산
흐르는 물

강가엔
배가 잠들고
바람이 물결을 이는데

어디서
송긋한 원함이
하늘을 향(向)해

마냥
못잊는
마음이 있다.

장병페이지

<소설(小說)>

우연(愚緣)

오상원(吳尙源)

머리위에서 가물거리는 등잔불과 함께 노인은 통히 잠을 이루지 않고 창밖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밤도 깊을 대로 깊어 누구를 기다릴 시각도 아닌데 창밖에로 다가오는 그 누구의 인기척인가를 이젠가 저젠가 하고 기다리는 듯이 눈을 껌벅이며 누워 있었다.
판자 틈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 바람은 제법 차가웠다. 그 때마다 까맣게 놓은 등잔불빛이 어두운 그림자를 판자 집 벽 위에 남기며 흔들렸다.
행길 가 무너진 벽돌담에 기대어 주어 놓은 판자와 「메뉴」통 껍질로 얼기설기 엮어 놓은 보잘 것 없는 방이었다.
몇 시나 되었을까?
때 국에 젖어 실밥이 터진 사이로 흰색털이 비죽거리는 미군용 스링핑 빽에 어린애처럼 포근히 파묻혀서 노인은 눈을 감았다 푸시시 다시 떴다.
이윽고 가볍게 내쉬는 한숨 소리가 허리를 일으키면 맞닿을 듯한, 누렇게 낡은 신문지 조각으로 덮인 천정위에 흩어져 갔다.
『그놈 같은이……』
노인은 입속에서 중얼거렸다. 그러고 보니 노인은 갑자기 고향…… 산이 높고 그 위에 가을이면 더욱 하늘이 높은 고향이 눈앞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석이……그 놈이 살았으면 지금 꼭……그렇지, 설 흔 살이 되었을 게다. 혹 살아 있다면 그 놈은 지금쯤 어디서 잠자리를 하고 누워서 이 애비를 생각하고 있을까
노인은 이렇게 생각이 들자 외로운 생각이 판자 틈으로 새어드는 가을바람처럼 쌀쌀하게 가슴속으로 자꾸 파고들었다.

이 때 창밖에서 무엇인가 부스럭 하는 소리가 났다. 노인은 숨을 죽이고 급히 스릎핑 빽에 묻었던 고개를 살며시 들며 그쪽으로 신경을 모아 귀를 기울였다.
또 부스럭 하는 소리가 분명히 문가에서 들렸다.
어제 밤 같으면 노인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쪽 깔렸을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밤은 그 무엇인가를 마음속으로부터 기다리는 표정이었다.
잠시 쌀쌀한 침묵이 흐른 후 또 부스럭하는 소리가 났다. 노인은 더 참을 수 없는 듯 잘게 기침을 하였다. 노인은 더 참을 수 없는 듯 잘게 기침을 하였다.
그러자 창밖에서 부스럭 거리던 소리가 뚝 끊어지고 침묵이 조용히 이어왔다. 노인은 공연히 기침을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혹시 문밖까지 왔다가 기침소리에 놀라 다시 돌아서 버리지나 하지 않았을 까 하는 근심이 앞서는 것이었다.
노인은 숨을 죽인 채 창밖에서 또 기척이 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창밖은 쥐죽은 듯 침묵이 흐를 뿐 바스락 거리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거 밖에 누가 왔오?』
노인은 참다못하여 말하여 부드러히 이렇게 한마디 하고 기침을 서너 번 해보았다. 그 순간 바스락거리며 재빠르게 판자 틈 사이로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다. 쥐인 모양 이었다.
노인은 실망스러이 무겁게 한숨을 입속에서 죽이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바로 어제 밤 일 이었다. 노인은 한잠 푹 자고 나서 잠을 깨었다. 버릇처럼 밤 한중간에 꼭 잠이 깨이고 그렇게 되면 혼자 외로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팔려 시간을 보내다가는 또 자기도 모르게 잠에 드는 것이었다. 이제 밤도 역시 마찬가지 었다.
눈을 푸시시 뜨고 판자 틈으로 새어드는 차가운 가을바람에 더욱 외로운 생각에 젖어 있는데 바른 창가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린 것이었다. 노인은 몸이 으스스 떨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무엇이 덜크덕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바로 문틈사이에서 났다. 노인은 머리카락 끝이 모두 곤두박지를 해서 일어서는 것만 같았다. 다음순간 삐걱 하며 판자 틈이 벌어지는 소리가 났을 때 노인의 머릿속은 한줄기 어두운 그림자가 쏜살같이 스치며 지나갔다. 노인의 심장은 세차게 뛰놀았다. 안으로 닫힌 빗장이 짧게 무거운 소리를 남기며 퉁기는 소리가 뒤이어 울렸다. 노인의 사지는 부들부들 떨렸다.
견딜 수 없는 숨 가쁜 침묵이 한동안 지나간 후 문이 살며시 열리는 것과 함께 검은 사람의 머리가 슬금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검은 기다란 팔이 물건들을 여 놓은 상자쪽으로 다가갔다. 바로 그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에 손이 닿았을 때였다. 노인은 벼락같이 달려들며 그 검은 그림자의 뒤통수를 내리 족쳤다. 상상할 수 없을 만치 빠른 속도 였다.
검은 그림자는 너무도 뜻밖에 급소를 얻어맞은 듯 픽하고 안으로 공구라졌다. 노인은 마치 거북이를 타고 앉듯이 업더진 그 검은 잔등에 올라타고 마구 주먹으로 머리, 목, 어깨 할 것없이
『이 놈 쌔끼! 이 쌔끼가!』
하고 소리를 냅다 지르며 손가는 대로 윽박질렀다.
처음에는 검은 그린자도 몇 번 이를 불의의 공격에서 벗어나려는 듯이 몸을 뒤재이는 것 같았으나 곧 맥없이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대로 쭉 뻗었다. 그래도 농니의 주먹질은 그치지를 않았다. 그리고 이 침입해 들어온 자가 완전히 반항할 기운을 잃고 나가 떨졌다는 것을 알고서야 주먹질을 그치고 곧 성냥을 찾아 등잔에 불을 켰다.
흔들리는 불빛처럼 노인의 전신은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이 놈 새끼! 내래 지금 어떻게 해서 먹구 사는디도 모르구 도적질하레 드러와! 이 놈 새끼!』
간신히 발굽을 세우며 일어나려는 도둑을 노인은 또 한 대 냅다 쥐어박았다.
『아이구우……』
꿍 소리를 무겁게 지르며 일어나던 도둑은 얼굴을 감싸며 한쪽 구석지로 몸을 피했다.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쌔끼가. 어디 상판데기나 좀 보자, 응!』
그러면서 노인은 도둑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도둑의 입에서는 검붉은 피 거품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머리가 헝크러져 내린 핼쑥하게 여윈 얼굴에서 휭 하게 눈만이 뻐금거리고 있었으나 나이는 젊어 보였다.
『아 아, 이 놈 쌔끼, 낫살이 아깝구나,. 너 도대체 그 낫살 가지구 뭐 못해 먹어서 도적질이야? 엉!』
노인은 또 양주먹으로 머리를 좌우로 내질렀다. 그리고 노인은 도저히 분을 참을 수 없는 듯
『너 도대테 메치가, 어?』하고 소리를 꽥 질렀다.
도둑은 한 구석지에 몸을 쭈구리고 벌벌 떨며 연상 머리를 꾸벅거리며 용서를 비는 시늉을 하 였다. 그러나 노인은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야! 이 쌔끼가, 너 내레 네편내 애 쌔끼 할 것 없이 일사후퇴 때 피난 나오다가 잃어 버리구, 빌어먹디 못해 이 하꼬방 가개 하나 가개 하나 만들어 가지구 살아 가는데 도와주진 못하나마 도적질을 하레 들어와! 이놈 쌔끼 나이가 아깝구가 엉!』
노인은 어깨 숨을 들까불다 참을 수가 없는 듯 울음 섞인 음성으로 뇌까렸다. 그리고 더욱 터져나오는 울분을 참을 길이 없는 듯 곁에 있는 작달막한 몽둥이를 집어 들였다.
『한번만……한번만 용서해 주구레』
도둑은 죽을 시늉을 하며 애원하였다.
『뭐, 용서!나이가 아깝띠 않니! 메치가 근데?』
하며 노인은 몽둥이를 휘둘렀다.
『설혼이야요.』
도둑은 피거품을 연상 손등으로 씻으며 빌었다.
『설혼? 호렝이 같은 나이로 그래 뭘 못해서……야! 넌 애비 에미도 다 없니! 엉?』
도둑은 쭐쭐 울고 있었다.
『야! 애비, 에미도 없어?』
『있어요』
도둑은 띠엄 띠엄 입술의 피거품을 문질르며 대답하였다.
『어디메 있니?』

『고향에 있어요』
『고향? 고향이 어디가?』
『이북이야요.』
이북이라는 말을 듣자 조금 사그라지려던 노인의 노기는 다시 솟구쳐 오르는 모양이었다.
『이북이야? 근데, 이 놈 쌔끼, 여기까지 나와서 도적질이야』
거세게 튀어나오는 음성과 함께 노인은 손에 들었던 몽둥이로 둑의 어깨를 한 대 분퉁이 터지듯 내려쳤다. 아이구구, 하는 비명이 잠시 까물거리는 등잔불과 함께 주위를 뒤흔들었다.
『이 놈 쌔끼, 이북에서 그렇게 빨갱이들 한테 고생하고 지금 와서 이꼴이가?』
또다시 몽둥이가 허공을 가로 질르며 도둑한테 떨어졌다.
『아이구, 잘못 해시오. 아이구 우우 다시는 안길가시요.』
도둑은 몸을 비비꼬아 틀며 머리를 마루 바닥에다 박고 용서를 애걸하였다.
『제 버릇 개준데던, 야! 근데, 언제 넘어왔?』
화가 치밀기는 하였으나 두둑의 가련한 꼴을 보자 노인은 한편 측은한 생각이 들어 넘어 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었다.
『일사후퇴때요』
도둑은 비명과 함께 입술을 덜덜 떨면서 말하였다.
『그래 도적질이 몇 번채냐?』
『처음이야요.』
『이 놈 쌔끼, 진통으로 안 댈래?』
노인은 또 뭉둥이를 휘둘렀다. 그러나 속은 완전히 누구러져 있었다.
『아니, 정말이야요. 처음이야요.』
도둑은 얻어맞은 자리를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지며 간신히 몸을 바로 일으키며 말하였다.
『그래 이북 어디가?』
노인의 음성은 인제 완전히 누구러져 있었다.
『평안도야요.』
『평안도……?』
노인은 가슴이 뭉클하고 무언가 누시울이 뜨거워지는지 멍하니 잠시 도둑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가 말을 천천히 이었다.
『그래 여기 나와서 지금껏 뭐핸?』
완전히 노인의 음성과 안색이 누구러워 진 것을 보자 도둑은 몸을 바로 잡으며 나즉히
『미국부대에 있어시오』
하고 갑작히 서러움에 복받힌 듯 쿡 울음을 삼키며 얼굴을 감쌌다.
『그래서……?』
『「까드」로 있다 차사고로 다리 병신이 되어 해고되서……』
말을 채 끝내지 못하고 또 눈물을 꿀꺽 삼키며 도둑은 콧등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쳤다.
『그래서……』
노인은 다음 말을 물었다.
『남한에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벌어 먹을 수가 있어야디요.』
노인은 시선을 떨구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노인은 다음 순간 다시 어성을 높이며 물었다.
『정말이가? 이 놈 쌔끼, 거짓말 했단 없다!』
『정말이야요.』
『그래 언제 해고된……?』
『한 달포 되시오.』
도둑은 또 때릴가 보아 노인을 마주보며 몸을 뒤로 비끼면서 대답하였다. 노인은 들었던 몽둥이를 내려놓았다. 노기라곤 전연 보이지 않았다. 도리혀 뭔가 친근감이 느껴보였다.
『그렇다고 도적질 하문 어떡하니』
노인은 쓸쓸하게 입맛을 다시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도적질 하문 어떡하니』
노인은 쓸쓸하게 입맛을 다시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 평북 어디가?』
『넹벤(영변)이야요.』
도둑을 하러 들어왔던 청년은 그제야 마음을 놓으며 대답하였다.
『넹벤……?』
노인은 입속에서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노인의 시선은 희미한 등잔불에 반사되어 눈물기에 번져 있었다다. 노인은 천천히 청년한테로 시선을 모아갔다. 그러나 휘미한 등잔 불빛에 한쪽이 가리워져 청년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가 없었다.
노인은 등잔불을 내리워서 마루바닥위에 놓으며 청년과 그때서야 마주 앉았다.
『넹벤 골이가?』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글성거리고 있었다.
청년도 다시 눈물을 글성이며 대답하였다.
『산재 넘어 어디?』
『세 미치광이네 뒷집이요.』
『세 미치광이……』
『딸 세시 다 미취광이 있디 않어요』
『……』
노인은 고개만 끄떡였다.
『아버진 뮈 핸?』
『장작 장수 해시오.』
『……』
노인은 또 고개만 끄덕였다. 잠시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나이 메치가?』
얼마후에 노인이 다시 물었다.
『아버지요?』
『아니, 너 말이야……』
『설혼이야요.』
『……』
노인은 혼자 또 고개를 끄덕 끄덕하였다. 둘 사이에 잠시 말이 또 끊어졌다.
노인은 갑자기 한기(寒氣)를 느끼고 문을 닫은 후 빗장을 차자 꼬았다. 그리고 제자리에 앉으며
『춥디?』
하고 청년에게 물었다. 그 순간 청년은 미처 대답을 못하고 흑 하고 흐느꼈다.
피에 얼룩진 침이 턱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노인은 호주머니에서 때물이 시커떻게 젖은 수건을 꺼내서 청년에게 주었다.
얼마후 청년은 노인이 준 수건으로 피로 얼룩진 턱을 문지르고 쭐쭐 울고 있었다. 농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줄곧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후 둘 사이에 오고 간 말이라곤 단 하 마디 뿐이었다.
『어 석이 아니?』
『석이요?』
『너하고 동갑인데 윤석이라고 본정소학교 다녔디……』
『모르게시오, 난 산재 넘에 소학교 다녀시오. 』
다음날 아침 – 바로 오늘 아침 휘뿌어니 동이 트기 시작하였을 때 노인은

아무런 말없이 그 청년을 그대로 보냈다.
왜 보냈을까. 노인은 지금 자리에 누어서 오늘 아침 그 청년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었다. 붙잡아 줄 것을 하고 후회하는 것이었다. 사실 어제 밤 똥기는 그리 유쾌한 것이 못되었다 할지라도 노인과 그 청년은 서로 마주 앉아 꼼박 밤을 새운 것이었다. 청년은 쿨쩍 쿨쩍 울면서 농니를 쳐다보며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고 노인은 청년을 보며 아들인 석이를 생가하며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눈물을 글썽거렸던 것이었다.
노인은 한숨을 죽였다. 그 청년이 다시 찾아와 주었으면 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으나 전연 그러한 기척이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시 도둑놈이 되어 물건을 훔치러 들어와 주었으면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만일 그렇기라도 했으면 다행일 것만 같았다. 그렇게만 된다면 노인은 결코 이번에는 때리지 않고, 아니 때리기는커녕 얼싸얼싸 안고 울어보리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 영 자기 곁에서 떠나보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노인은 스릴빽의 목덜미를 목 가까이로 여몄다. 판자 틈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바람은 제법 차가웠다. 등잔불이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며 까물거리고 흔들렸다. 오늘 따라 외로운 생각이 더욱 판자 틈으로 새어드는 가을바람처럼 쌀쌀하게 노인의 가슴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끝)

혁명공약

1. 반공을 국시에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 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재건을 총력을 경주 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편집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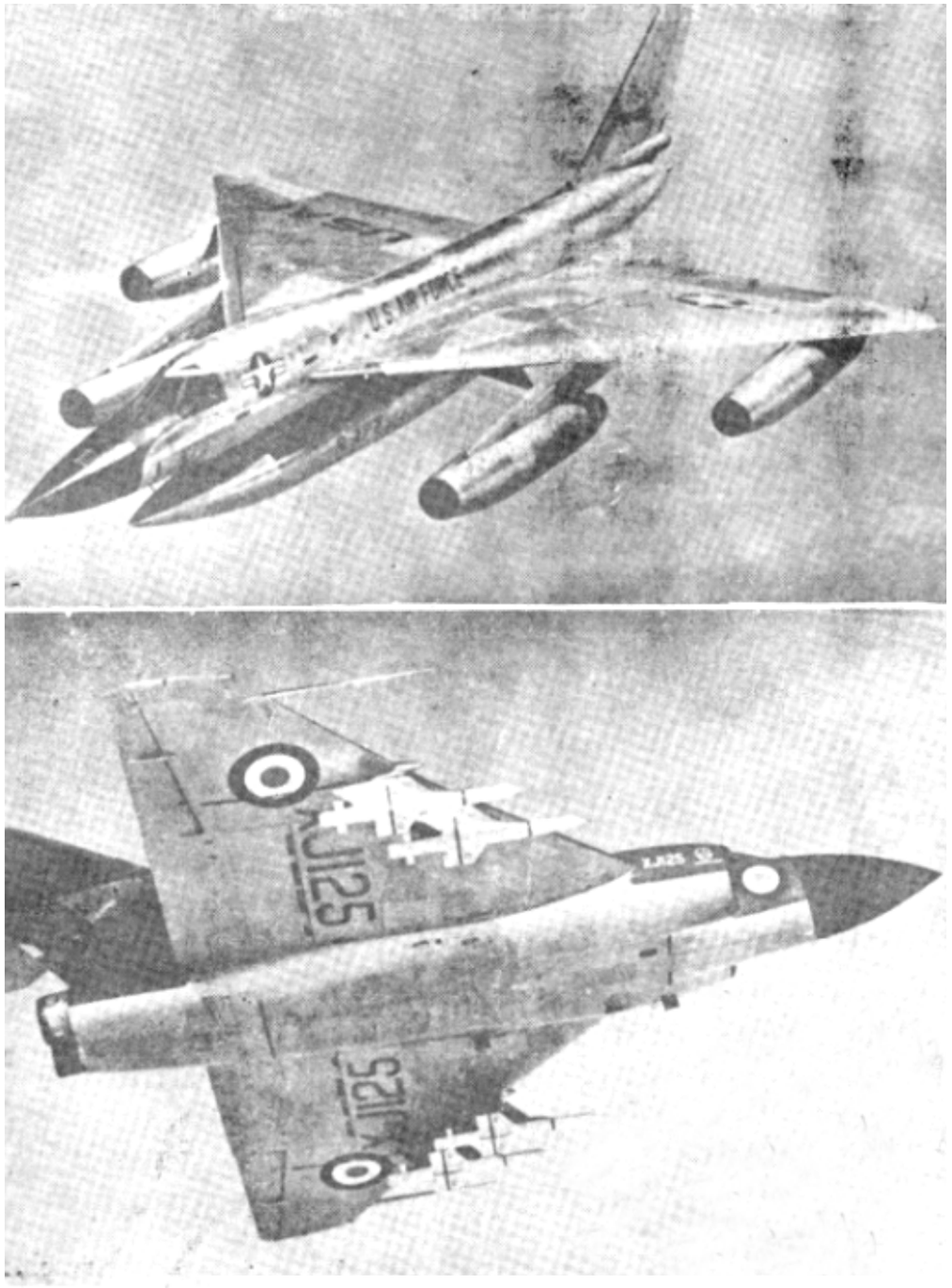
이번에도 난산(難産)을 불면(不免)했다.
시기(時期)를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독자들께 여간 미안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특집 〈매너리즘을 장송한다〉는 묶음은 우리의 생활 주변을 반성할 수 있는 훌륭한 것이라 자부하고 싶다.
이에 관련하여 〈생활의 과학화〉에 포함된 세 편의 글은 합리적 생활태도를 수립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미사일 교실〉난을 신설했다.
연재 중인 세미나 둘에 「생활 과학과 「새 군법 해설」을 보탠 것이다. 다음번에는 쉬운 「생활경제」를 추가할 예정이다. 성원을 바란다. (M)

편집실에 돌연 엽서 한 장이 날아들어 부원들의 화제를 모았다.
「학교도서관에서 미사일지(誌)를 일고 여러 가지로 감명이 깊었 습니다… 앞으로는 저에게도 한권씩 직접 보내주세요…』하고 전번에 부탁해왔던 묘령(?)의 아가씨로부터 다시 날아온 것인데, 실은 여유가 없어 아직 보내 주지 못한 터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사일 10호를 보내주어 무척 감사 합니다…」고 애교있는 역습을 가하고 나서 「과학지(誌)라면 그 내용과 구성이 딱딱하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부드러운 것이 짜임새가 있어 좋다」고 회유하고는 앞으로 「우주과학에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까지 서슴지 않고 또박 또박 쓴 글이었다.
H:「한대 먹었군. 대단해.」
L:「다음 번에는 내꺼라도 보내야겠는데—.」
k:아니야 미사일이 탈선하면 큰일 나!
그러나 Y만은 「그런데 군내 장병들에게서도 이런 기탄없는 편지가 와야 해. 우리 독자들은 너무 과묵해서 탈이야.」 (文)

(상) 지난 24일 제1전대에서는 제1차 공지합동작전 교육과정 수료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중) 이미 여러 단대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거니와 10전비에서는 지난 28일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의 네 부락과 자매의 연을 맺었다.

(하) 또한 12일에는 항공 본창을 비롯한 주둔지 각 단대가 경북 경주군 용성면의 6개 부락과 자매 결연을 맺었다.
—표지 2면 사진설명—



신예기 소개

(상) 3만 5천 피트의 고공에서 음속의 2배로 나는 삼각익의 제트폭격기 B-58은 1960년 취역 이래 미 전략공군의 일선기로서 활약하고 있으며 핵폭탄을 적재하는 동기에는 적 전파방애장치까지 되어 있다.
(하) 3만 8천 피트의 고공에서 음속의 0.95배로 나는 삼각익의 영국 전천후 제트 전투기로서 MK-8은 1960년 이래 상당수가 영국 공군의 일선기로서 취역하고 있다.

미 사 일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